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교리주도형 한국군 군사혁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octrine-driven ROK Army' s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RMA)

2022년 2월

한남대학교 대학원

정치언론국제학과

이 기 성



한남대학교
Hannam University

교리주도형 한국군 군사혁신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종 하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2월

한남대학교 대학원

정치언론국제학과

이 기 성



한남대학교
Hannam University

이 기 성의 박사학위 논문을 확인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2022년 2월

한남대학교 대학원



한남대학교
Hannam University

감사의 글

1999년 국방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박사까지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바람을 갖고 지내오던 중 2019년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 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군 생활 동안 우리 군에서 군사교리가 중시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소망하면서 교리발전에 관심을 가져 왔으며, 그 연장선에서 군사교리를 연구 분야로 선정하여 심층적인 연구기회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논문 작성 과정은 어렵고 힘들다기보다는 그동안 부족하고 알지 못했던 부분을 폭넓게 알아가며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보람된 과정이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대학원 강의 출석이 어려운 근무지에서 원격수업을 통하여 나머지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였고, 오히려 논문 작성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였습니다.

박사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누구보다도 김종하 지도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하 교수님은 국가안보에 대한 강한 신념과 군에 대한 애정으로 늘 연구 주제에 대하여 공감해 주셨으며, 연구 과정에서도 등대 역할을 하면서 열정적인 지도를 해 주신 저의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또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많은 지도를 해 주신 백강희 교수님, 군의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신 최봉완 교수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많은 지혜를 알려주신 서상국 교수님의 지도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영학의 관점에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인식과 해법을 보여주신 박현재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같은 기간에 현익, 학명 두 아들 또한 대학원 과정을 공부 중이어서 부자지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의식 또한 즐거움이었으며, 자라는 동안 늘 함께해 주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기가 나아갈 방향을 향해 정진하고 있는 두 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료 준비에 많은 도움을 준 전·후임 전속부관 진상욱, 박관호 중위와 도서관의 김희경 주무관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끝으로 군사교리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노력하는 군 내부와 민간 연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 군에서 군사교리를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리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2월 이 기 성 올림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8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18
제 1 절 군사혁신에 관한 일반이론	18
제 2 절 군사교리와 혁신 개념	29
제 3 절 연구문제 및 분석의 틀	44
제 3 장 베트남전과 군사혁신	47
제 1 절 한국의 베트남전 수행	47
제 2 절 군사교리와 전쟁수행방식의 혁신 : 중대전술기지	61
제 3 절 군사혁신 관점의 평가	70
제 4 장 걸프전과 군사혁신	78
제 1 절 미국의 걸프전 수행	78
제 2 절 군사교리와 전쟁수행방식의 혁신 : 공지전투	87
제 3 절 군사교리와 무기체계 혁신	95
제 4 절 군사교리와 조직편성 혁신	98
제 5 절 군사혁신 관점의 평가	102

제 5 장	크림반도 군사작전과 군사혁신	106
제 1 절	러시아의 크림반도 군사작전 수행	106
제 2 절	군사교리와 전쟁수행방식의 혁신 : 하이브리드전	112
제 3 절	군사교리와 무기체계 혁신	130
제 4 절	군사교리와 조직편성 혁신	134
제 5 절	군사혁신 관점의 평가	137
제 6 장	한국군의 군사교리 발전방안	140
제 7 장	결 론	151
제 1 절	연구의 결과 및 정책적 함의	151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57
참고문헌		159
초록		166
ABSTRACT		168

표 목 차

〈표 2-1〉 군사혁신과 관련된 용어의 범위 및 의미	23
〈표 2-2〉 군사혁신 요소에 대한 연구자들의 입장	25
〈표 2-3〉 국가별 군사교리의 정의	32
〈표 2-4〉 한·미 개념과 군사교리 발전 비교	39
〈표 3-1〉 중대전술기지의 임무	62
〈표 3-2〉 중대전술기지 위치 선정시 고려사항	63
〈표 3-3〉 중대전술기지 공사 우선순위	64
〈표 3-4〉 한국군 전술책임지역 내 적 활동	67
〈표 3-5〉 베트남전 대대급 이상 작전 현황	68
〈표 3-6〉 베트남전 중대급 이하 소부대 작전 현황	68
〈표 3-7〉 미군의 비정규전 교리와 주월한국군 교리 비교	73
〈표 4-1〉 중부군사령관의 작전개념	81
〈표 4-2〉 사막의 폭풍작전시 지상군 편성	84
〈표 4-3〉 미 육군 병력 현황	88
〈표 4-4〉 베트남전 이후 미 육군의 소요결정 무기체계	95
〈표 5-1〉 전쟁의 특성 변화(정치적 목적 달성)	114
〈표 5-2〉 2014년 이전 전력화된 러시아군 주요 전자전 장비	133
〈표 6-1〉 미래전의 특징과 내용	142

그 립 목 차

〈그림 2-1〉 군사적 변화의 크기와 범위	· · · ·	24
〈그림 2-2〉 분석의 틀	· · · ·	45
〈그림 3-1〉 베트남 끼년 및 독코 일대	· · · ·	56
〈그림 3-2〉 짜빈동 일대의 지형	· · · ·	59
〈그림 3-3〉 짜빈동 중대전술기지 병력배치와 적 공격 방향	· ·	60
〈그림 3-4〉 중대전술기지 부대 배치와 전경	· · · ·	63
〈그림 3-5〉 중대전술기지 화력계획	· · · ·	66
〈그림 4-1〉 사막의 폭풍작전시 단계별 진격도	· · · ·	85
〈그림 5-1〉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요충지	· · · ·	108
〈그림 5-2〉 크림반도의 주요 도시	· · · ·	110
〈그림 5-3〉 게라시모프의 분쟁 발전의 주요 단계	· · · ·	115
〈그림 5-4〉 하이브리드 부대 구성	· · · ·	117
〈그림 5-5〉 크림반도에서의 주요 분쟁 단계	· · · ·	118
〈그림 5-6〉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하이브리드전 수행방식	· ·	128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전 세계는 과학기술의 큰 변환기라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Computing),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 등 첨단과학기술의 발달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지금까지와는 다른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각 국가들은 미래에는 급속히 발전하는 과학기술이 세계질서를 주도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잘 수용하는 국가는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로 발전할 것이라는 큰 기대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부가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군사분야의 변환 노력도 예외일 수가 없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강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들을 어떻게 군사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모색하면서 전장의 패러다임(Paradigm)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쟁수행개념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¹⁾.

사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가 바로 군사력 운용이다. 과거 기술혁신이 주로 전쟁수행방식의 변화를 초래했다면,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은 승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은 3차 상쇄전략(Offset Strategy)²⁾에 따라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군사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발간한 국방백서를 통해 첨단무기와 장비의 발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

1) 육군교육사령부는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 낼 전쟁양상은 완전히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며, 주변국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고 선점하기 위해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진행 중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육군교육사, 『월간 작전환경분석』 19-1호(2019), p. 2.

2) 이는 오바마 정부의 척 헤이글(Chuck Hagel) 국방장관이 2014년 11월 15일 레이건 국가안보포럼 연설에서 선언한 것으로, 자신만이 보유해 온 기술을 상대도 보유하게 되고 오히려 상대가 수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경우 새로운 기술혁신과 전쟁방식을 통해 상대의 수적 우위를 기술적 우위로 상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국방과 학기술의 혁신을 위한 획득조직 개편과 인공지능 능력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강석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분야 개혁정책 : 3차 상쇄전략의 연속성과 정책적 함의”, 『국방논단』 제 1734호(18-33), 2018, pp. 1~11.

고, 군사혁신의 관점을 ‘지능화(智能化) 군대’³⁾를 건설하는데 두고 있다. 일본은 사이버·우주·전자파 통합부대를 창설하는 것을 비롯해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무기체계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⁴⁾ 그리고 러시아는 무장계획 2027(’18~’27)을 지속 추진하여 미래전에 대비한 차세대 슈퍼 무기체계를 전력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⁵⁾ 특히, 북한도 국방과학기술이 기술학습형(견본모방형)에서 기술혁신형(개발창조형)으로 한 단계 도약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金正은의 본격적인 집권이 시작된 2013년 이후 국방과학기술 정책의 변화가 보이고, 핵무력 달성을 선언한 2017년을 기점으로 그것이 뚜렷해 졌는데, 최근에는 무장 장비의 조정밀화, 국방공업의 고도화, 세계적 수준의 기술 확보, 첨단핵심기술의 독자적 개발 활성화 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⁶⁾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이러한 노력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전 양상을 예측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군사혁신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주요 국가들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군사과학기술을 전쟁수행에 접목하고, 새롭게 출현하는 첨단 신형군사과학기술이 군사력 건설과 전투력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국방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인 과제들을 식별하고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군도 이러한 주요 국가들과의 군사력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군은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조기 구현을 목표로 실행력을 강화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군이 추구하는 강한 군대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군’,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게 운영되는 군’⁷⁾을 의미한다. 「국방개혁 2.0」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한 첨단 과학기술군으로 진화하

3) 중국은 걸프전에서 착안하여 장쩌민 이후 과학기술을 군사기술에 접목하기 시작하였으며, 시진핑 시대에는 해양, 우주, 사이버분야의 지능화(智能化) 군대를 추구하고 있다. 이창형, “제3국의 군사혁신 전망”, 『19-1차 Korea Mad Science 발표 자료』(육군교육사, 2019), p. 63

4) 육군교육사, 『월간 작전환경분석』 19-1호(2019), p. 5.

5) 육군교육사, 『월간 작전환경분석』 19-1호, p. 4.

6) 신승기, “북한 국방과학기술 정책의 변화 양상”, 『국방논단』 제 1826호(20-43), 2020, p. 1.

7) 국방부, 『2020 국방백서』(2020), p. 43.

려는 노력은 군사혁신⁸⁾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육군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새로운 무기체계에 효과적으로 접목시켜 첨단과학기술군으로의 도약적 변혁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5대 게임체인저’, ‘Army TIGER 4.0’ 등은 첨단무기체계의 전력화를 통한 군사혁신 노력의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군사혁신에 관한 지금까지 국내 학계의 논의를 살펴보면 단순히 새로운 무기와 군사기술에 의한 변화, 혹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군사선진국 내의 동향이나 사례를 소개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⁹⁾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술주도형 군사혁신의 추진을 강조하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기술주도의 군사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절대적인 방법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군사혁신은 무기체계, 군사교리, 조직편성 등의 요소가 시너지를 발휘할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의 방향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강조되면서 기술주도의 군사혁신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군사기술의 발전도 적시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군사혁신의 궁극적인 목표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있다면 운용개념, 즉 군사교리가 주도하는 군사혁신이 어찌 보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는 한국의 군사혁신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군사혁신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이며, 각 요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군사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분석해 낼 것이다. 동시에 군사혁신을 성공시키는데 있어 군사교리가 수행하는 역할을 살펴보고, 교리주도형 군사혁신을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군사혁신 내용을 군사교리와 군사혁신의 성공 관계 측면에서 분석하여 그것을 통해 도출된 정책적 함의를 토대로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도약하려는 한국군에 필요한 군사교리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8) 미국에서 군사문제의 혁명적 변화를 설명하는 용어인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를 군사혁신으로 번역한 것은 군사혁명이 ‘군사쿠테타’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혁신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권태영·노훈, 『21세기 군사혁신과 미래전』(경기: 법문사, 2008), p. 53.

9) 김종하·김재엽, 『군사혁신(RMA)과 한국군』(서울: 북코리아, 2008), p. 15.

사실 군사혁신의 성공은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인 무기체계, 군사교리, 조직편성을 조화와 균형을 통해 통합적으로 진행시키는 데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군사혁신의 3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병행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중 가장 취약하고 간과되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군사교리이다. 무기체계나 조직편성이 아닌 군사교리가 주도하는 군사혁신을 추구할 수 있다면, 비용과 노력의 절약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군사혁신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군대의 존재목적이 유사시 전쟁에서 승리를 달성하여 국가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다고 할 때, 군사혁신의 완성은 최종적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달성하는 것까지 검증되어야 그것이 성공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군대를 보유한 모든 국가에서 군사혁신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어떠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양한 군사혁신의 결과는 다음번 전장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¹⁰⁾ 이러한 맥락에서 군사교리와 군사혁신의 성공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군사교리와 군사혁신의 성공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사혁신의 개념을 이해하고 무엇이 군사혁신의 요소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군사교리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그와 함께 여러 국가들의 군사혁신 사례분석을 통해 각 국가들이 어떤 수단들을 통해 군사혁신을 성공으로 이끌게 되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실 군사혁신의 성공은 전쟁에서 승리를 달성할 때 만이 비로소 검증되고 완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국의 전쟁사례 중

10) 맥스 부트 지음, 송대범·한태영 옮김, 『MADE IN WAR(전쟁이 만든 신세계)』 (서울 : 플래닛미디어, 2008), p. 19.

군사교리가 주도적으로 영향을 미쳐 군사혁신을 달성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대표적인 사례들을 분석하여 앞에서 제기한 연구목적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첫째, 1960년대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수행한 ‘중대전술기지’ 사례를 분석한다. 당시 중대전술기지 운용은 혁신적인 교리였다고 평가된다. 이는 한국적 특성에 맞는 군사교리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높이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군사혁신의 관점에서 새롭게 분석할 것이다.

둘째, 1991년 미국의 걸프전 사례를 분석한다. 걸프전은 군사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로 정보사회의 전쟁양상과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군사혁신의 시각에서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걸프전은 미국이 월남전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공지전투(Air Land Battle) 개념에 의해 승리한 전쟁이라고 평가한다면 교리주도형 군사혁신의 성공사례로도 분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셋째,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군사작전 사례를 분석한다. 이 작전은 전쟁수행의 패러다임을 바꾼 새로운 형태의 군사혁신 사례라 할 수 있다. 러시아는 서방에서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 수행 시 회색지대전술 구사 -상대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정치적 선전·선동 및 내부 분열, 경제적 압력, 사이버공격, 기만, 역정보 제공 등을 활용해 상대국의 심리 및 인식에 영향- 로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전쟁수행방식을 통해 인명피해가 거의 없이 크림반도를 합병하였다. 이 또한 ‘하이브리드전’ 교리가 주도한 군사혁신의 성공사례로 새롭게 주목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군사교리와 군사혁신의 성공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사례연구에 해당한다. ‘군사교리는 군사혁신의 성공 요인이다’라는 전제하에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단일사례보다는 다중사례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를 위한 관찰단위는 주로 정부와 군에서 발생한 변화들이 될 것이며, 분석단위는 군사혁신 요소인 군사교리, 무기체계, 조직편성을 하위분석단위로 하여 군사혁신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중사례연구 중 복합분석단위를 적용한다.

장차 한국군이 베트남전, 크림반도 군사작전과 같은 저강도에서부터 걸프전과 같은 고강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앞으

로 ‘한국의 군사혁신(RMA)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연구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질적 연구 패러다임을 활용하는 다중사례 설계를 선정하였다. ‘군사교리’와 ‘군사혁신’의 성공 관계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연구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저장도뿐만 아니라 고강도 전투작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다중사례 설계는 다출처 정보를 포함하는 상세하고 심층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한 탐색을 요구한다. 다중사례 설계를 활용한 연구 질문의 광범위한 탐구를 통해, 본 논문에서 분석하는 세 개의 사례 -베트남전시 한국군 중대전술기지, 걸프전에서 미군의 공지전투 교리, 러시아의 크림반도 군사작전시 하이브리드전-에서 ‘군사교리’와 ‘군사혁신’(RMA)의 성공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전시 중대전술기지는 주월한국군사령부와 육군본부에서 발간한 파병전사, 체명신 장군의 자서전 등과 함께 1950~1970년대 「국방사」를 연계하여 같이 분석할 것이다. 걸프전시 공지전투는 베트남전 이후 197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1단계 군사혁신을 거쳐 1980년대 초반 이후 걸프전이 개시되는 시기까지 2단계 군사혁신을 완성한 이후, 1991년 걸프전 수행 과정을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을 기초로 하되, 한국의 시각에서 평가한 자료를 같이 살펴볼 것이다. 크림반도 군사작전은 1991년 구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의 국방개혁에서 시작하여 2014년 크림반도 군사작전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과정을 탐구할 것이다.

연구의 자료들은 주로 공개된 국내·외 최신연구, 세미나 자료 등과 같은 2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군사혁신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합참 및 각 군의 정책서, 비전서 등과 같은 자료들을 분석하고, 각 국의 군사혁신과 전쟁수행에 대한 사례분석은 공개된 국내·외 2차 연구자료를 총망라하여 분석한다. 하지만 러시아의 전쟁사례 분석은 자료수집의 한계에 따라 주로 영문자료와 국내 연구자료들을 활용한다. 군사교리는 군사혁신 과정에서 군사교리의 발전과정을 주로 육군 교리 위주로 분석하되 부분적으로 합동교리와 연계하여 분석한다.

3.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모두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서론에 이어 제 2

장에서는 군사혁신 및 군사교리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을 제시한다. 제 2장 1절은 군사혁신에 관한 일반이론을 통하여 군사혁신의 개념을 설명하고 군사혁신의 요소는 선행연구와 연계하여 무기체계, 군사교리, 조직편성의 3가지로 한정하고 교리주도형 군사혁신에 대하여 논의한다. 제 2장 2절은 군사교리의 개념과 역할, 한국군 군사교리의 현주소, 군사혁신 요소와 혁신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고, 제 3절에서는 ‘군사교리는 군사혁신의 성공 요인이다’라는 전제하에 분석의 틀을 제시한다.

제 3장은 베트남전과 군사혁신에 대한 사례분석이다. 제 1절은 한국군이 베트남전을 어떻게 수행하였는지 과병 배경 및 경과를 이해하고,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의 작전개념과 중대전술기지 전투사례로 독코 전투와 짜빈동 전투사례에 대하여 개관한다. 제 2절은 군사교리와 전투수행방식의 혁신 사례로 중대전술기지 전술을 적용한 베트남전을 집중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중대전술기지의 개념, 편성 및 운용, 성과와 성공 요인까지 군사혁신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제 3절은 군사혁신의 관점에서 베트남전은 독창적인 한국적 군사교리의 발전을 통하여 게릴라전 수행방식을 혁신한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군사혁신 관점에서 중대전술기지는 무기체계의 개발 없이 군사교리의 발전만으로 새로운 형태의 전쟁수행방식을 만들어낸 군사혁신의 성공사례로 분석될 것이다.

제 4장은 걸프전과 군사혁신 사례를 분석한다. 제 1절은 미국의 걸프전 수행의 배경, 전쟁의 경과와 특징에 대하여 개관할 것이다. 제 2절은 군사교리와 전쟁수행방식의 혁신으로 공지전투의 발전과정과 이를 적용한 현대적 의미의 새로운 형태의 기동마비전 수행 과정을 분석한다. 제 3절은 공지전투 교리가 무기체계의 개발을 어떻게 견인하였는지 설명하고, 제 4절에서는 공지전투 교리에 의한 조직편성의 혁신을 분석한다. 제 5절에서는 군사혁신의 관점에서 걸프전은 공지전투 교리가 주도하여 새로운 무기체계와 조직편성을 변화시켜 새로운 양상으로 전쟁수행 패러다임을 전환한 사례로 분석할 것이다.

제 5장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군사작전과 군사혁신 사례를 분석한다. 제 1절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군사작전 수행에 대하여 군사적 개입 배경과 크림반도 군사작전을 통한 합병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제 2절은 하이브리드전 개념인 차세대전 군사교리에 의한 전쟁수행방식의 혁신에 대하여 탐구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러시아의 차세대전과 게라시모프 doktrinu를

알아보고, 크림반도에서 하이브리드전 수행 과정을 게라시모프의 분쟁의 6단계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러시아 하이브리드전의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제 3절은 차세대전 교리에 의한 무기체계 혁신을, 제 4절은 조직편성의 혁신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제 5절은 군사혁신의 관점에서 러시아의 크림반도 군사작전은 하이브리드전 개념인 ‘차세대전’ 교리에 의하여 새로운 무기체계와 조직편성을 혁신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하였음을 분석할 것이다.

제 6절은 한국의 군사교리 발전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제 1절에서는 3개국의 군사혁신 사례에서 나타난 베트남전과 중대전술기지, 걸프전과 공지전투, 크림반도 군사작전과 차세대전 교리의 발전과정을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군사교리는 누가 주체가 되어, 얼마 동안의 기간에 걸쳐, 어떠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실질적인 군사교리의 발전방안을 찾아낼 것이다. 그리하여 제 2절에서 한국군의 군사교리 발전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제 7장 결론에서는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군사교리는 군사혁신의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 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설명하고 군사혁신의 성공을 위하여 군사교리가 갖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를 위해서는 군사혁신의 개념과 그것의 성공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선행연구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군사혁신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군사혁신에 대한 초기의 논의는 주로 기술발전이 전쟁양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구 소련의 오가르코프(N.V.Ogarkov)는 ‘정찰-타격 복합체 이론’에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군사발전을 주창¹¹⁾하였고, 이는 미국에서 ‘기술중심의 군사혁명’ (MTR)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정보화혁명 시기인 걸프전쟁에서는 정밀타격무기가 살상률을 높이고 효과중심작전을 수행함에 따라 새로운 무기체계의 개발이 전쟁의 양상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었다.

11) Mary C. FitzGerald, “The New Revolution in Russian Military Affairs,” *RUSI Whitehall Paper Series* Vol 26(1994), p. 1.

이러한 기술주도의 군사혁신은 1990년대에 접어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탈냉전기에 접어들면서 기술 중심의 군사혁신에 한계를 인식하고 기술발전, 작전운용개념, 군사조직 편성이 상호 조화롭게 시너지를 창출해야 군사혁신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사고로 발전되었다.

마샬(Andy Marshall)과 함께 미국 국방부의 군사혁신에 깊이 관여해 온 앤드류 크레피네비치(Andrew Krepinevich)는 군사혁신을 ① 새로운 기술(emerging technologies)을 이용하여 새로운 군사체계(evolutionary military system)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② 작전운용의 혁신(operational innovation)과 ③ 조직의 혁신과 적응(organizational adaptation)을 상호 결합시킴으로써 전쟁의 성격과 수행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때 발생한다¹²⁾고 정의하였다. 이는 새로운 군사기술이 주도하는 군사혁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군사기술 혁신이 작전운용개념과 조직편성의 혁신을 함께 달성했을 때 군사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군사혁신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권태영·노훈(2008)은 미 국방부 총괄평가국(Net Assessment)의 마샬(Andy Marshall)이 정의한 군사혁신과 같은 맥락에서, 군사혁신은 ‘기술혁명을 이용한 전력체계의 혁명뿐만 아니라 군사력 운용방법과 조직편성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이들을 상호 밀접하게 결합,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매우 큰 군사적 변화’¹³⁾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그와 함께 한국군의 군사혁신 방향은 단순히 선진기술을 이용하여 무기체계를 개발·획득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원의 추가적인 투입이 없이도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군사교리, 군사조직, 운영체계 등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¹⁴⁾고 제안하였다. 김종하·김재엽(2008)도 군사혁신의 대상으로 무기와 전투력, 부대구조, 전략의 3가지 요인이 시너지를 발휘할 때 군사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¹⁵⁾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면 군사혁신의 대상이나 요소들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접목한 무기체계, 혁신적인 군사교리,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12) Andrew F. Krepinevich, “Cavalry to Computer : The Pattern of Military Revolutions,” *The National Interest* Vol. 37 (Fall 1994), p. 13.

13) 권태영·노훈, 『21세기 군사혁신과 미래전』(경기 : 법문사, 2008), p. 47.

14) 권태영·노훈, 『21세기 군사혁신과 미래전』, p. 94.

15) 김종하·김재엽, 『군사혁신(RMA)과 한국군』, p. 30.

조직편성이라는 세 가지 범주 내에서 주로 군사혁신을 논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군사혁신에 대한 국내 기존 연구들의 대부분은 한국군의 지향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 위주로 연구되어 군사교리, 무기체계, 조직편성 간의 조화와 협력과정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는 사실상 부족하다.

군사혁신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식별하고자 하는 연구로는 이종호(2011)의 연구가 있다. 이종호는 군사혁신의 성공을 위해 ① 과학기술과 군사전력체계의 결합, ② 군구조와 편성의 혁신성, ③ 국민-지휘관과 군대-정부의 삼위일체, ④ 전쟁수행개념과 교리변화에 대한 수용을 제시하고 있다.¹⁶⁾ 이 연구는 군사혁신을 과학기술에 한정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군사분야 전반의 혁명적 변화를 강조하고 있어 다소 개념적인 차원에서 군사혁신의 성공을 논의하고 있다.

이종용(2020) 또한 새로운 군사체계의 개발, 전장운용개념 및 군구조 혁신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군의 현 상황을 고려한 추진¹⁷⁾을 강조하였다. 구혜정(2020)은 군사혁신의 방향을 ① 과학기술의 군사적 활용, ② 혁신적 아이디어, ③ 조직의 적응력 등으로 제시하면서 첨단과학기술의 군사적 도입이 운용개념과 조직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군사혁신 요소들의 통합적이고 조화된 발전이 필요함¹⁸⁾을 강조하였다. 이 또한 과학기술 중심적 사고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군사혁신 3가지 요소의 조화를 강조하는 보편적인 입장과 유사하다.

김종하·김재엽(2008)은 군사혁신은 군사기술의 혁신적 개발 및 응용을 통한 ‘무기와 전투 기능의 급격한 변화’, 혹은 다양한 군사적 도전에서 비롯된 ‘군사전략·전술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 부대구조의 변화, 나아가서는 전쟁양상의 변화로 귀결되는 과정을 거치는 특징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즉,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를 기준으로 ① 기술주도형(Technology-driven) 군사혁신과 ② 교리주도형(Doctrine-driven) 군사혁신으로 나뉜다고 제시하였다. 기술주도형 군사혁신은 과학기술의 발전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새로운 군사적 능력을 창출해 내는 것이며, 교리주도형 군사혁신은 새로운 운용개념의 등장이 새로운 군사기술 소요와 기술을 창출하여 군

16) 이종호, 「군사혁신의 전략적 성공 요인으로 본 국방개혁 방향 : 주요 선진국 사례와 한국의 국방개혁」,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년, p. 15.

17) 이종용, “4차 산업혁명시대 한국군 군사혁신 방향”, 『한국 국가전략』 제 5권 2호(통권 13호), 2020, p.103.

18) 구혜정, “4차 산업혁명시대 한국군의 군사혁신 발전방향”, 『군사연구』 제 148집(2020), p. 345.

사혁신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군사혁신 추세에서 기술발전의 속도와 증대, 그 주기 단축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¹⁹⁾

군사혁신에 관한 국내의 최근 연구들은 기술발전에 주목하여 기술주도형 군사혁신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춘일(2017)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전투시스템을 혁신적으로 창출함으로써 기존의 전쟁 패러다임을 진부하게 만드는 현상’²⁰⁾으로 정의하여 기술발달이 기존의 전쟁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군사혁신의 성공이 가능하다고 제시하였다. 김관호(2017) 또한 군사혁신을 ‘새로운 군사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체계를 개발하고 새로운 체계에 상응하는 작전운용개념의 혁신을 통하여 효과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한 조직편성의 혁신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전투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²¹⁾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군사기술과 작전운용개념, 조직편성의 상호 연계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새로운 무기체계의 개발이 작전운용개념과 조직의 변화를 선도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마찬가지로 기술주도형 군사혁신의 관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신성호(2020)는 현재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기술주도형 군사혁신을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²²⁾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다른 연구자들과 같이 교리와 조직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이 주목받으면서 기술발전이 모든 사회변화뿐만 아니라 군사혁신을 급격하게 촉진하게 될 것이라는 논의가 많아지면서 기술 중심적 사고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무기체계를 첨단화할 뿐만 아니라 싸우는 방법과 조직의 변화까지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군사혁신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무기체계의 발전만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는 기술주도의 시각은 작전운용의 측면에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4차

19) 김종하·김재엽, 『군사혁신과 한국군』, pp. 34~35.

20) 정춘일, “육군의 군사혁신 무엇을 할 것인가?”, 『군사혁신논단』 제 1호(18-1호), p. 3.

21) 김관호, “4차 산업혁명을 위해 한국군이 준비할 사항 No1”, 『군사저널』 통권 133호 (2017), pp. 74~79.

22) 신성호, “군사혁신 그 성공과 실패 -한반도 전쟁의 미래와 미래의 전쟁-”, 서강대학교 육군력 연구소 기획, 이근욱 엮음, 『도전과 응전, 그리고 한국 육군의 선택』(경기 : 한울, 2020), p. 49.

산업혁명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과학기술들을 군의 무기체계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먼저 생각하면, 무기체계를 개발한 후 작전운용개념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작전전구(Korea Theater of Operations) 상황에 부합되는 싸우는 개념을 발전시키는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맥그리거 녹스(MacGregor Knox)·윌리엄슨 머레이(Williamson Murray)는 군사혁신에 관한 연구가 첨단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하여 작전과 조직의 변화를 이끄는 기술 중심의 군사혁신을 중시하고 있는 것을 경계하면서 결론 부분에 군사혁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군사혁신은 ① 기술 자체만으로 군사혁신을 추진할 수 없었고, 기술은 하나의 촉매제로 작용해 온 것 뿐이다. ② 군사혁신은 특정한 적을 상대로, 특정한 전장에서, 특정한 작전적·전술적 과제를 목표로 진화적인 문제해결 노력에서 성취되었다. ③ 군사혁신은 매우 현실적인 군 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일관성 있는 교리와 개념이 필요하다. ④ 군사혁신은 전략의 본성(givens), 전쟁의 본질(nature)에 기초하여 한정되고 있다.²³⁾

맥그리거 녹스·윌리엄슨 머레이는 미군은 기존의 특정한 전략적 수요와 작전적·전술적 운용개념에만 집착하여 거대한 무기체계를 확보하기 때문에 미래가 밝지 않다고 전망하면서 끊임없이 교리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에 집중하고 노력한다면 장차 미국의 군사혁신에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이는 군사혁신의 특징 중 교리주도형 군사혁신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교리주도형 군사혁신과 유사한 관점에서 이병구(2014)는 내부적 군사혁신이론과 외부적 군사혁신이론을 활용하여 이라크 전쟁기간 중에 이루어진 대반란전 교리혁신 사례를 분석²⁴⁾하였다. 이라크전 후반기에 나타난 미군의 교리적 군사혁신은 군대 내부의 소수 개혁세력의 지원을 받는 외부 민간지도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군사혁신 성공 요인을 찾는 새로운 시도라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미군의 교리적 군

23) MacGregor · Williamson Murray 편저, 김칠주·배달형 역, 『강대국의 선택 : 군 혁명과 군사혁신의 다이내믹스』 (KIDA, 2014), pp. 335~338.

24) 이병구, “이라크 전쟁중 미군의 군사혁신 :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 군사혁신 이론의 타당성 검증중심으로”, 『군사연구』 제 91호(2014), p. 350.

사혁신이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진 특정 분야의 군사혁신으로써 군사혁신의 성공 요인 전반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내 연구 중에는 군사혁신의 성공 요인을 조직구조 측면에서 분석한 색다른 연구도 있다. 안기석(2005)은 군사혁신의 구성요소를 앞에서 정의한 것들과 유사하게 무기체계 발전, 조직체계, 전쟁수행 교리로 설명하면서, 한국군의 군사혁신 방향을 군구조 혁신에 방점을 두고 상부구조, 군병력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의 혁신²⁵⁾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는 군사혁신에서 중요한 무기체계와 작전운용개념이 간과되어 상대적으로 논리적 설득력이 약하다.

최근 국내 연구 중에는 군사혁신 3가지 요소의 조화 또는 기술주도형과 교리 주도형의 관점이 아닌 새로운 관점에서 군사혁신의 성공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박지훈(2018)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기술주도형 군사혁신을 추구하되, 기술결정론 기반의 하향식(Top-down) 추진보다는 기술의 사회적 형성론에 기반한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추진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상향식 방식의 군사혁신은 기술의 도입과 투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과 지식, 전문성에 기초하여 사용자의 입장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구현하는 사회적 과정이 필요하다²⁶⁾고 제안하고 있다.

정연봉(2019)은 군사혁신 요소 중 군사기술 측면에서 첨단과학기술의 군사적 적용을 분석하여 군사혁신의 성공 요인을 ① 위기의식, ② 잠재적 핵심역량, ③ 변혁적 리더십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잠재적 핵심역량인 과학기술력의 활용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개념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²⁷⁾고 덧붙였다. 이는 군사혁신을 구조적 관점보다는 개체적인 관점에서 성공 요인을 분석한 색다른 시도로 보여진다. 유사한 시각에서 박휘락(2007)은 한국의 국방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정과 통찰력을 구비한 지도자를 선정함과 동시에 충분한 기간과 권한을 부

25) 안기석, 「한국군의 군사혁신 추진방향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년, p. 179.

26) 박지훈, “4차 산업혁명시대 한국군 군사혁신 추진방향”, 『주간 국방논단』 제 1704호 (18-3), pp. 5~6.

27) 정연봉, “베트남전 이후 미국의 군사혁신이 한국 육군의 군사혁신에 주는 함의”, 『군사연구』 제 147집(2019), pp. 303~308.

여할 필요가 있다²⁸⁾고 주장하였다.

4차 산업혁명시대 한국군의 군사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중심적인 군사혁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과학기술을 적용한 新무기체계가 전쟁수행방식을 변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군사혁신의 성공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실제 전쟁을 통해서만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체계를 미리 예상하고 이를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군사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그 자체에만 주목하기보다는 군사혁신의 정의에 기초하여 군사혁신의 요소 모두를 국가별 상황에 맞게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즉, 어떤 군사과학기술을 어떤 전투력에 적용하며, 이를 위해 예산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정하고 관련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주도면밀하게 관리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크레피네비치(Andrew Krepinevich)는 군사혁신의 요소를 ①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군사체계의 발전(system development), ② 작전운용의 혁신(operational innovation), ③ 조직의 적응력(organizational adaptation) 등 3가지 요소로 제시하고, 각 요소들을 조화롭게 추구하여 전투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군사혁신을 주장하였다.²⁹⁾ 권태영·노훈(2009)에 의하면 유사하게 군사혁신의 요소를 ① 군사기술, ② 작전운용, ③ 조직편성이라는 3가지로 제시하면서, 군사혁신은 단순한 기술적 변혁뿐만 아니라 제 요소와 함께 동시에 변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³⁰⁾ 김종하·김재엽(2008)은 무기와 부대구조, 전력운용 방식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성을 갖고 통합되어 군사력의 총체적 상승효과(Synergy effect)를 창출해 내는 것이 군사혁신의 중요한 특징으로 보았다.³¹⁾

군사혁신 요소 중 군사교리에 대한 국내 연구활동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군사교리는 군사력을 직접적으로 운용하는 군 내에서 주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작전적·전술적 수준에서 무기체계의 운용방식과 작전수행방법, 즉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하여 군내 연구기관과 군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연구되다 보니 민간 차원의 이론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

28) 박휘락, 「정보화시대 국방개혁에 관한 연구-미국 군사변혁 분석과 한국 국방개혁에의 함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년, p. 204.

29) Andrew F. Krepinevich, “Cavalry to Computer : The Pattern of Military Revolutions,” p. 1.

30) 권태영·노훈, 『21세기 군사혁신과 미래전』, p. 47.

31) 김종하·김재엽, 『군사혁신과 한국군』, p. 35.

있는 것이다. 민간분야에서 군사교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은 안재봉(2017)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한국군의 군사교리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발전된 교리를 바탕으로 한국적 특성을 가미하여 작성하였거나 모방교리 수준으로 발전되었고, 군사교리의 특성상 민간학자들과 일반인에 대한 열람이 제한되다 보니 학문적 연구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³²⁾하고 한국군의 군사기본교리 정립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보람(2011)은 그의 저서에서,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군사-전쟁의 현상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여 전쟁사를 통하여 군사교리가 발전하였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군사교리를 창안하는데 미군의 것을 자꾸 훑기거리면 한국군 고유의 것을 연구하는 데 지장이 있으며,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한국적 군사교리를 발전시켜야 하고, 역량이 부족하여 성안해 낸 군사교리가 한국군의 능력과 제한사항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군사교리를 발전시켜 나가야 함³³⁾을 역설하고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군사혁신의 성공 요인은 크게 5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군사혁신 요소의 조화와 시너지를 통한 성공을 보장하는 시각이다. 군사혁신의 요소는 연구자들에 따라 각각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크레피네비치(Andrew Krepinevich)는 군사혁신의 요소를 새로운 군사체계, 작전운용의 혁신, 조직의 적응력으로, 권태영·노훈(2008)은 군사기술, 작전운용, 조직편성을, 김종하·김재엽(2008)은 무기와 전투력, 부대구조, 전략을 군사혁신의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종호(2011), 이종용(2020), 구혜정(2020)의 연구에서도 표현은 달라도 같은 범주 내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군사혁신의 요소는 군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① 무기체계, ② 조직편성, ③ 군사교리의 3가지 요소로 재정리할 수 있다. 연구자들이 제시한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군사체계, 군사기술, 무기와 전투력 등은 군에서 사용하는 무기체계에 해당하고, 조직의 적응력과 조직편성, 부대구조 등은 군의 조직편성에 관한 사항이다. 그리고 작전운용의 혁신, 작전운용, 전략 등은 군사교리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군사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기체계, 조직편성, 군사교리가 모두 조화되고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군사혁신이 성공한다는 관점을 식별하였다.

32) 안재봉, 「한국군의 군사교리 정립방안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년, p. 295.

33) 남보람, 『전쟁이론과 군사교리 : 군사-전쟁 현상의 이론적 탐구』(경기 : 지문당, 2011), p. 207.

둘째는 첨단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이 전쟁양상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기술중심의 군사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는 군사혁신의 개념이 태동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명되었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술중심의 군사혁신의 중요성은 여전히 설득력을 갖고 있다. 정춘일(2017), 김관호(2017), 신성호(2020) 등 최근 국내의 많은 연구자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새로운 무기체계를 등장시키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작전운용개념과 조직편성의 변화를 유도하여 군사혁신을 성공적으로 견인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구혜정의 연구처럼 최근 기술중심적인 군사혁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연구들도 등장하고 있지만, 기술주도형의 군사혁신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운용개념, 즉 새로운 군사교리의 등장이 무기체계와 조직편성을 촉진하여 혁신을 견인한다는 교리주도형 군사혁신 관점이다. 앞에서 제시된 것처럼 맥그리거 녹스(MacGregor Knox)·윌리엄슨 머레이(Williamson Murray)는 미국의 군사혁신에서 기술을 하나의 촉매제로 인식하고 끊임없는 군사교리의 재정립을 강조하였다. 국내에서도 이병구(2014)가 이라크전 사례를 통하여 교리적 군사혁신을 설명하기는 하였으나 군사혁신 전반에 관한 입장에서 교리주도형 군사혁신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아쉽게도 군사혁신의 성공 요인을 군사교리로 선정하여 분석한 연구는 찾기가 더 힘들다. 단, 앞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관점에서도 과도한 기술주도형 군사혁신을 경계하는 시각에서 군사교리의 발전에 보다 더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군사교리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주장은 최근의 연구에서 크게 투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창발(創發, emergence)하는 미래전³⁴⁾에 대비한 군사혁신을 위해서는 교리주도형 군사혁신이 보다 더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 군사혁신의 성공을 조직편성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다. 안기석(2005)의 연구에서 군사혁신의 방향을 군구조 혁신에 맞춰 부대구조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지만, 군사혁신 전반을 견

34) ‘창발’은 거시적 변화 관점에서 ‘신흥’의 의미를 말하며 ‘미래전(future warfare)의 창발’은 기술혁명, 군사혁신, 국제정치의 변환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미래전이 나타나는 것을 의한다. 김상배, “4차 산업혁명과 미래전, 그리고 세계정치”,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창립 컨퍼런스 자료집』(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9), p. 2.

인하는 요인으로서는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다섯 번째는 군사혁신의 요소보다는 군사혁신의 추진방식과 영향요소 측면에서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관점이다. 박지훈(2018)은 상향식 군사혁신을, 박휘락(2007)과 정연봉(2019)은 지도자의 변혁적 리더십을 주요한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볼 때 군사혁신의 요소는 무기체계, 군사교리, 조직편성의 3가지 요소로 한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군사혁신에 관한 연구들 중에는 군사혁신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군사교리의 발전을 제시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런데 실상 우리 군에서 가장 부족하고 취약한 분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군사교리 분야이다. 이 때문에 군사교리가 군사혁신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가 지금까지 거의 없는 것이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제 1 절 군사혁신에 관한 일반이론

1. 군사혁신의 개념

군사혁신은 “무기를 포함한 군사용 유형자산과 전투력 운용방식, 조직 등에 대한 급격한 질적 변화가 상호 연계, 결합되어 기존 군사력의 전투 수행 능력과 전투효과를 큰 폭으로 향상시키고, 새로운 전쟁양상 및 수행 방식을 창출하는 것”³⁵⁾이라 정의 할 수 있다. 각 국가들은 강한 군사력이 뒷받침된 튼튼한 국방태세를 통하여 그들의 핵심이익인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많은 국가들은 새로운 군사기술을 이용한 무기체계의 개발을 넘어 전투효과와 전쟁의 패러다임까지도 바꾸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의 변화로 군사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관련된 개념에는 ‘군사기술혁명’ (Military Technical Revolution), ‘군사혁신’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안보분야혁신’ (Revolution in Security Affairs), ‘군사혁명’ (Military Revolution), ‘군사변환’ (Military Transformation) 등 다양한 논의가 있다.

가. 군사기술혁명(MTR)

구 소련의 총참모장이었던 오가르코프(N.V.Ogarkov) 원수는 1984년 새로운 군사기술을 이용한 군사발전의 혁명적 잠재력을 주장하고 더 늦기 전에 군사변혁을 추진해야 됨을 역설하였다³⁶⁾. 그 당시 구 소련은 중부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대적하기 위해 전차와 장갑차로 무장된 대규모의 기갑부대를 전방에 배치하고 있었는데, 구 소련의 군부는 막강한 기갑부대들이 NATO군의 장거리 탐지와 미사일에 의한 타격에 매우 취약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NATO군이 구 소련 기갑부대들을 감시하여 발견한 후 30분 이내에 수백 Km 떨어진 원거리에서 대전차 유도미

35) 김종하, 김재엽, 『군사혁신과 한국군』, p. 26.

36) Mary c. FitzGerald, “The New Revolution in Russian Military Affairs,” *RUSI Whitehall Papers Series* Vol 26 (1994), p. 1.

사일로 집중공격하게 되면 구 소련군의 기갑부대들은 결정적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구 소련이 이전까지 사용해 온 전투체계는 ‘정찰-타격’을 전술적 차원에서 결합시킨 것이었다. 즉, 적의 목표를 탐지·발견하고 이를 화력으로 파괴하는 체계를 발전시켰는데 이는 탐지 능력과 범위가 제한되고 타격자산의 사거리도 짧고 부정확하여 전쟁양상은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군사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통제체계와 정확도가 높은 장거리 정밀타격무기를 결합시키게 되면, 전략적 차원의 새로운 ‘정찰-타격 복합체’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핵무기에 견줄 수 있는 혁신적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체계가 개발되면 신속한 표적획득이 가능하고 장거리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타격할 수 있으므로 비접촉·비선형·장거리 전투수행이 가능하여 전통적인 공격과 방어의 구분조차도 곤란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개념적 사고에서 등장한 것이 ‘군사기술혁명’ (MTR)이다.

군사기술혁명(MTR)이란 새로운 기술이 혁신적인 작전개념 및 조직과 결합하여 무기체계 내에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군사기술혁명이 일어나려면 기술적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그 운용도 혁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조직 내에서 그것이 적용될 수 있어야만 한다.³⁷⁾ 구 소련의 MTR 논쟁은 베트남 전쟁 이후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이 추진하였던 미군 현대화 노력을 목도하고 구 소련이 MTR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론체계를 형성하여 크게 2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첫 단계는 표적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우주기반체계, 무인체계, 자동화체계 등이 중시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정밀-타격 복합체’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³⁸⁾. 그 다음 단계는 레이저, 입자빔, 로봇공학,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 등 신기술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든 오늘날의 추세와 유사하다.

그러나 구 소련은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수렁에 빠지면서 미국의 봉쇄정책으로 인한 경제난까지 겹쳐 MTR을 실현시키지 못하였으며, MTR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미국에서 더 가속화되었다. 구 소련의 오가르

37) Andrew F. Krepinevich, *The Military-Technical Revolution : A Preliminary Assessment* (Washington D.C. :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 2002), p. 3.

38) Andrew F. Krepinevich, *The Military-Technical Revolution : A Preliminary Assessment*, pp. 5~6.

코프가 제시한 ‘정찰-타격 복합체’ 이론에서 시작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군사발전’이 미국에서는 ‘기술중심의 군사혁명(MTR)’으로 발전하게 되었다.³⁹⁾ 1991년 걸프전쟁에서 혁신적인 무기체계(감시·정찰과 정밀타격무기)의 등장도 효과중심작전 수행을 가능케 함으로써 전쟁의 양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확산시켰고, 이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나. 군사혁신(RMA)

199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기술 중심의 변화에 한계를 인식하고, 기술 발전과 작전운용개념, 조직편성이 상호 조화롭게 변혁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군사혁신의 영역이 확대되었다. 마샬(Andy Marshall)과 크레피네비치(Andrew Krepinevich)은 군사분야 혁명(RMA)을 ‘새로운 기술의 군사시스템에의 적용이 혁신적인 작전개념 및 조직의 적응력과 동반될 때 전쟁의 성격과 수행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기술, 시스템 주축의 전쟁양상의 변화를 의미하는 군사기술혁명(MTR)과 작전운용, 조직편성의 복합적이고 조화된 변혁을 의미하는 것으로, 군사혁신을 더 이상 군사기술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기술을 군사시스템으로 통합하고 혁신적 작전개념을 채택하여, 이를 운용하기에 적합한 조직의 발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군사기술혁명(MTR)이란 용어가 군사혁신(RMA)로 발전되었지만, 1990년대 초기에는 이 두 용어 간의 구분이 불확실하였다. 1994년 미 교육사에서 발간한 「21세기 군 작전(FORCE XXI Operations)」과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1993년 발행한 「군사기술혁명」에서는 MTR에 작전운용개념과 군사조직 편성의 변혁도 포함시키고 있어 RMA와 사실상 차이를 식별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95년 이후부터는 MTR은 ‘기술 중심적 개념’, RMA는 ‘작전운용 개념과 조직편성’까지 포함시킨 보다 광범위한 군사변환의 개념으로 차별화되었다.

이와 같은 용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샬(Andy Marshall)과 함께 미국 국방부의 군사혁신에 깊이 관여해 온 앤드류 크레피네비치(Andrew Krepinevich)는 군사혁신을 ① 새로운 기술(emerging technologies)을 이용하

39) 권태영·노훈, 『21세기 군사혁신과 미래전』, pp. 48~50.

여 새로운 군사체계(evolving military system)을 개발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② 작전운용의 혁신(operational innovation)과 이를 위한 ③ 조직의 혁신과 적응(organizational adaptation)을 상호 결합시킴으로써, 전쟁의 성격과 수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때 발생한다⁴⁰⁾고 정의하였다. 이는 새로운 군사기술의 등장에 따른 군사혁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군사기술 혁신이 작전운용개념과 조직편성의 혁신을 함께 달성하여 군사혁신이 이루어진다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RMA에서 중요한 것은 변혁의 속도(speed)가 아니라 군사적 효과성에 대한 변화의 급격한 규모(magnitude)에 있으며⁴¹⁾, 군사발전이 진화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으로 진화되는 것을 말한다.

다. 안보분야혁명(RSA)과 군사혁명(MR)

미국에서는 한때 안보분야혁명(RSA : Revolution in Security Affairs)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의 군사혁신 관련 용어가 제기되었다⁴²⁾. 군사문제는 정치, 경제, 기술, 산업, 심리, 문화 등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광의로 총체적인 안보 차원에서 군사혁신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토플러 부부(Alvin & Heide Toffler)는 거시적으로 경제구조 측면에서 군사혁명(MR : Military Revolution)을 관찰하였다. 완전한 의미의 군사혁명은 새로운 문명이 낡은 문명에 도전하여 전략, 무기, 기술, 조직, 훈련, 제도 등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강요할 때 발생 되었다는 것이다.⁴³⁾ 이처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지구상에는 1차 농경사회의 탄생, 2차 산업사회의 탄생의 두 차례의 군사혁명이 있었고, 이후 문명사회의 중심이 정보화로 옮겨감에 따라 새로운 제 3차 군사혁명이 태동했다는 것이다. 군사혁명(MR)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접어들어 따라 이제 제 4차 군사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0) Andrew F. Krepinevich, "Cavalry to Computer: The Pattern of Military Revolutions," p. 13.

41) 이는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나 전략·전술 이론, 사상을 창안해 낸다고 해도, 신무기의 개발과 부대구조, 전략에 반영함으로써 그 군사적 효과가 실제 증명되기까지는 한 세대 이상의 오랜 시간이 요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종하, 김재엽, 『군사혁신과 한국군』, p. 33.

42) Norman C. Davis, "An Information-based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Strategic Review*(Winter 1996), pp. 43~53.

43) 권태영·노훈, 『21세기 군사혁신과 미래전』, p. 53.

라. 군사변환(MT)

미국에서 군사혁신(RMA) 노력이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1990년대 후반에 군사변환(MT : Military Transformation)이란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RMA에 대한 요구는 높아졌으나, 정부의 구체적 로드맵이 그려지지 못하자 1990년대 말에 다양한 연구논문과 보고서들이 등장하였다. 그 주요 내용들은 정보기반의 무기체계와 그 활용전략 등을 빠른 시일 내에 미군에 뿌리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변환’ (Transformation)이란 용어 사용이 증가하였다.

RAND연구소는 1996년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군대의 변환’ (Transforming the Force)에서는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교리와 조직면에서 주요한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군대의 변환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소는 RMA가 완성된 상태를 변환이라고 정의하면서 변환을 위해 즉각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1997년 미 국방 패널이 ‘국방의 변환-21세기의 국가안보’ (Transforming Defense-National Security in 21st Century)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논의는 더욱 구체화 되었다. 이후 군사변환은 미국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포함되었으며, 부시 행정부가 출범된 이후에는 미국의 공식적인 국방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⁴⁴⁾

따라서, 군사변환은 RMA를 이루기 위한 국방정책이자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써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는 RMA가 혁명이라는 단어로 비용과 노력에 더하여 단기간의 성과를 요구하게 되는 환상을 불러일으킬 것을 경계하여 군사변환이라는 용어로 정착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마. 군사혁신 개념 간의 관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 군사문제의 혁명적 변화를 설명하는 용어으로써 군사기술혁명(MTR), 군사혁신(RMA), 안보분야혁명(RSA), 군사혁명(MR), 군사변환(MT)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의 의미 및 범위를 상대적인 관점에서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44) 양욱, 「미국 군사변환의 평가에 관한 연구-럼스펠드 시기 군사변환의 정책평가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0년, p. 16.

〈표 2-1〉 군사혁신과 관련된 용어의 범위 및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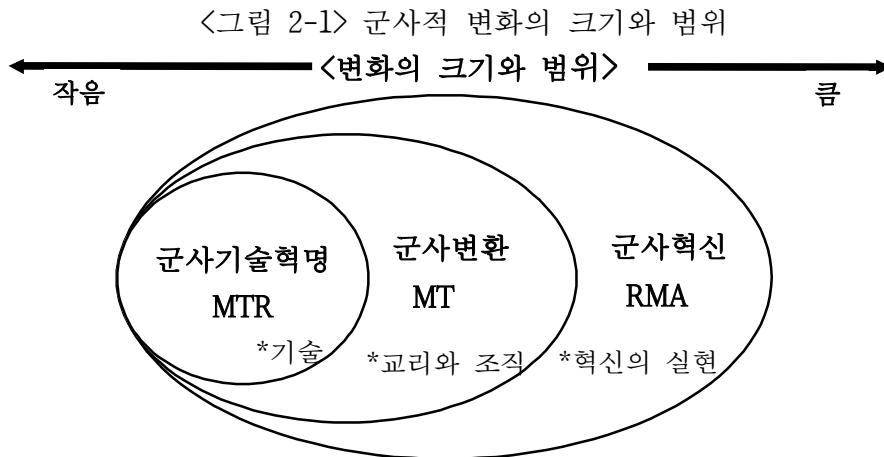
구 분	의 미
㉠ 군사기술혁명(MTR)	· 정찰-타격복합체(Reconnaissance-Strike Complex) · 기술·시스템 중심의 변혁
㉡ 군사혁신(RMA)	· ㉠ + 작전운용 + 조직편성 · 기술·시스템, 작전운용, 조직편성의 동시·복합·조화적 변혁
㉢ 안보분야혁명(RSA)	· ㉡ + 사회적 변혁 · 군-사회의 동시·복합·조화적 변혁
㉣ 군사혁명(MR)	· ㉠, ㉡, ㉢를 포괄 · 혁명성, 충격성 수준에 따라 ㉠, ㉡ 또는 ㉢로 차별화 가능
㉤ 군사변환(MT)	· ㉡에서 작전운용과 조직편성 우선

출처 : 권태영·노훈, 『21세기 군사혁신과 미래전』, p. 54에 제시된 표에 ‘군사변환’을 추가하여 작성

이와 같은 다양한 개념 중에서 군사혁명(MR)이라는 용어는 군사기술혁명(MTR), 군사혁신(RMA), 안보분야혁명(RSA), 군사변환(MT)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 국방부 총괄평가국(Andy Marshall)에서 정의한 군사혁신(RMA)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국내·외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유사한 입장을 취하는 점을 고려하여, ‘군사혁신(RMA)’이라는 용어가 군사적 대변화를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용어로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사적 대변화를 총칭하는 의미로 ‘군사혁신(RMA)’을 사용하며, 그 요소들도 RMA의 개념을 주로 적용하게 될 것이다.

이중 군사기술혁명(MTR), 군사혁신(RMA), 군사변환(MT)의 3가지 개념은 일련의 군사적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군사기술혁명(MTR), 군사혁신(RMA), 군사변환(MT) 순서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개념은 최초에는 과학기술의 발달을 무기체계로 연계시키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점차 전쟁양상의 변화에 따라 군 조직, 군사교리 및 전략의 변화는 물론 교육훈련에 적용하려는 단계까지 진화해 나가고 있다. 이는 군사분야의 변화가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지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책적 아젠다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개념이 더욱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⁵⁾ 이러한 개념의 군사적 변화의 크기와 범위는 〈그림 2-1〉과 같다.

45) 양욱, 「미국 군사변환의 평가에 관한 연구-럼스펠드 시기 군사변환의 정책평가를 중심으로-」, pp. 17~18.



출처 : 양욱, 「미국 군사변환의 평가에 관한 연구-럼스펠드 시기 군사변환의 정책평가를 중심으로-」, p. 17.

시기적으로 MTR은 RMA의 기반이 되었으며, RMA는 군사변환(MT)의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군사적 요소를 구성하는 요소를 무기·교리·조직로 나눈다면, MTR은 군사기술의 발전에 집중하면서 무기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RMA는 이러한 무기의 변화가 전쟁의 패러다임을 변경한다고 할 때 무기, 교리, 조직 모두의 변화를 달성한 상태로 볼 수 있다. 한편 최근에 논의되는 군사변환은 이미 미국이 이루어 놓은 새로운 무기의 개발에 교리와 조직이 변화를 촉진시켜 RMA가 이루어진 상태를 달성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개념들에 비추어 볼 때 군사혁신은 “상대방이 기존의 군사적 수단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다른 차원의 군사력을 창출해 내는 것으로, 군사력의 효과성에 대한 변화의 급격한 규모를 특징으로 하며 변화의 속도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생각된다.

2. 군사혁신 요소와 종류

가. 군사혁신 요소

군사혁신의 성공 요인을 알기 위해서는 군사혁신의 대상, 그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해야만 군사혁신의 성공과 실패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와 군사혁신의 개념을 검토한 결과 군사혁신의 개념과 대상들은 대

부분이 유사하며, 군사혁신 요소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점은 아래 <표 2-2>와 같다. 이를 토대로 군사적 관점에서 군사혁신의 요소는 ① 군사교리, ② 무기체계, ③ 조직편성으로 볼 수 있으며, 군사혁신의 추진과 평가는 이러한 3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표 2-2> 군사혁신 요소에 대한 연구자들의 입장

연구자	군사혁신 요소(① 군사교리, ② 무기체계, ③ 조직편성)
크레피네비치(1994)	· 새로운 군사체계(②), 작전운용(①), 조직의 적응성(③)
김종하·김재엽(2008)	· 무기와 전투력(②), 부대구조(③), 전략(①)
이종호(2011)	· 군사전력체계(②), 군구조와 편성(③), 국민+군+정부 삼위일체, 전쟁수행개념과 교리(①)
이종용(2020)	· 군사체계(②), 전장운용개념(①), 조직구조(③)
구혜정(2020)	· 과학기술의 활용(②), 혁신적 아이디어(①), 조직의 적응력(③)
정준일(2017)	·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전투시스템(②)
김관호(2017)	· 새로운 체계(②), 작전운용개념(①), 조직편성(③)
안기석(2005)	· 군구조 혁신(③)

따라서 군사혁신에서 무기체계, 군사교리, 조직편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는 군사혁신의 성공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되며, 이 3가지 요소가 어떠한 순서⁴⁶⁾로 진행되어야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과거 사례를 살펴볼 때 먼저 새로운 무기체계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군사교리가 탄생했다는 시각이 많았다. 화포의 등장이 화력전술, 전차나 항공기의 등장이 기동전 교리를 태동시켰다고 바라보면서, 새로운 무기가 등장하여 획기적인 성능과 충격을 가져오면 새로운 군사교리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군사교리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 새로운 조직이 편성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새로운 무기체계가 새로운 군사교리를 탄생시키지만 반대로 군사교리가 무기체계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조직편성이 무기와 교리의 변화를 추동할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무기체계 + 군사교리 + 조직편성의 다양한 메카니즘이 군사혁신을 성공시킨다고 할 수 있다.

46) 양욱은 무기→교리→조직 순의 메카니즘으로 군사변환을 성공시킨다고 분석하였다. 양욱, 「미국 군사변환의 평가에 관한 연구 -럼스펠드 시기 군사변환의 정책평가를 중심으로-」, p. 30.

나. 군사혁신의 종류

군사혁신은 그 출발점이 무엇이나를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① 기술주도형(technology-driven) 군사혁신과 ② 교리주도형(doctrine-driven) 군사혁신으로 나눌 수 있다.⁴⁷⁾

기술주도형 군사혁신은 ‘새로운 기술 → 새로운 무기 → 새로운 전투력 체계 → 새로운 전투력 운용개념 → 새로운 전략·전술 → 새로운 부대구조 → 새로운 전쟁양상’으로 진행되어 과학기술의 발전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새로운 군사적 능력을 창출해 내는 개념을 말한다.⁴⁸⁾ 이는 새로운 군사기술의 등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군사기술의 혁신이 작전운용개념과 조직편성의 혁신을 견인하여 군사분야의 혁명으로 나타나는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기술주도형 군사혁신은 군사기술혁명(MTR)에서 진화·발전된 개념으로 새로운 기술을 응용하여 일련의 군사체계를 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창의적인 작전운용개념과 조직편성의 최적화를 통해 전투효과성을 획기적으로 증폭시킴으로써 전쟁의 본질과 수행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군사혁신 추세에서 기술발전의 속도와 증대, 그리고 그 주기 단축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계속된 미국의 군사혁신(RMA)은 적대국가에 대한 신속하고 결정적인 군사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는데 초점이 모아졌고, 신기술에 입각한 새로운 무기들을 ‘새로운 미국식 전쟁’이라고 믿었던 전쟁에서 효과적이었다.⁴⁹⁾ 1·2차 걸프전에서 미국이 전쟁 초반에 거둔 압도적 승리⁵⁰⁾는 미국의 첨단 군사기술에 바탕을 둔 혁신적 무기체계에 의한 승리였다. 하지만 2차 걸프전 후반의 안정화작전은 공중과 지상의 최첨단무기체계로는 전쟁

47) 김종하·김재엽, 『군사혁신과 한국군』, pp. 34~35.

48) 헨들리 박사는 “군사혁신은 ‘새로운 기술(a new technology)’을 이용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장치(a new device)’를 개발하고, 새로운 장치를 이용하여 전투력 발휘를 극적으로 향상시키거나,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체계(a new system)’를 만든 후, 새로운 체계를 운용할 ‘새로운 운용개념(a new operational)’에 따라 ‘새로운 교리와 부대구조(a new doctrine and force structure)’를 발전시킴으로써 ‘새로운 전투력’을 창조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정의한다. Richard O. Hundley, *Past Revolutions Future Transformations* (Santa Monica : RAND, 1999), p. 23.

49) Max Boot, “The New American Way of War,” *Foreign Affairs*, Vol.82. No.4 (July/August 2003), pp. 41~58.

50) 1차 걸프전에서 이라크군 사망자는 2만명 이상이었던 반면에, 미군의 사상자는 382명이었고 실제로 교전에서 사망한 병력은 147명에 불과하였다.

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낳았다. 이는 냉전 이후 미국의 군사혁신이 군사기술과 무기체계에만 치우치면서 정작 싸워야 할 대상과 작전환경의 변화에 대처가 미흡했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교리주도형 군사혁신은 ‘새로운 전투력 운용개념 → 새로운 전략·전술 → 새로운 군사기술 수요의 등장 → 새로운 기술 → 새로운 무기 → 새로운 전투력 체계 → 새로운 부대구조 → 새로운 전쟁양상’ 순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새로운 운용개념의 등장이 새로운 군사기술 소요와 기술을 창출하여 군사혁신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군사혁신은 새로운 기술과 무기의 등장과 상관없이 기존의 관행적인 전술과 군사교리의 혁신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1차 세계대전과 기관총 운용이다. 오늘날의 기관총은 미국인 발명가에 의해 19세기 중반 남북전쟁을 전후로 개발되었으나, 실제로 영국군이 19세기 말 아프리카의 식민지 국가에서 수 만명의 원주민을 기관총 몇 정으로 단숨에 제압하는 위력을 발휘하였다. 1차 대전 이전까지 영국 육군은 기관총을 식민지 원정군의 원주민 살육에 사용하는 것으로만 간주하고 유럽의 전투 상황에서는 완전히 비합리적인 것으로 여겨 기관총 활용을 위한 군사교리를 발전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기관총의 효용성은 러·일전쟁(1904~1905)에서 러시아와 일본군이 기관총을 보병의 직접 지원무기로 사용하는 개념을 발전시켜 전투에 적용하면서 입증되었다. 이후 독일군은 1913년 앤(Asine)강 전투에서 보병에게 기관총을 추가로 보급하여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의 진격을 격퇴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⁵¹⁾ 남북전쟁 당시 미국에서 개발된 기관총은 1차 대전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전까지 미국과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기관총을 활용하는 작전개념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독일은 후발 군사강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기관총의 효용성을 파악하고 1차 대전시에 창의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진지전에서 그 효과성을 입증하였다.⁵²⁾

제 2차 대전시 전차와 전격전도 마찬가지로 사례에 해당한다. 유럽에서 전차는 영국에서 개발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에 2차 대전 발발 직전까지 영국은 전차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군사교리나 부대편성을 발전시

51) John Ellis, *The History of the Machine Gun* (Baltimore :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5), pp. 65~68.

52) 신성호, “군사혁신 그 성공과 실패-한반도 전쟁의 미래와 미래의 전쟁-”, pp. 32~34.

키지 못했다. 프랑스 또한 방어 위주의 지상전 교리를 채택하고 마지노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2차 대전에서 전차를 활용하여 전격전 개념을 발전시킨 국가는 후발주자인 독일이었다. 독일은 당시 신흥 군사강국으로 부상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독일 육군의 핵심 엘리트들이 전차전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결과들을 발표하면서 신형 전차의 개발과 그 활용방안에 대한 군사교리를 발전시켰다.⁵³⁾

또한 2차 대전시 항공모함을 이용한 작전개념을 최초로 발전시킨 나라는 1차 대전 당시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한 영국이었다. 하지만 영국 항공모함은 항공기의 탑재, 연료 보급, 재무장을 갑판 아래층의 격납고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24~30대의 전투기만 탑재가 가능하였다.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항공모함의 격납고와 상부 갑판을 동시에 활용하여 80~100대의 전투기를 탑재함으로써 신속한 재출격주기로 강력한 해군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영국이 항공모함을 최초로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 이후 해군력이 뒤쳐진 이유는 신무기체계에 대한 작전운용개념의 발전이 간과되었기 때문이다.⁵⁴⁾

교리주도형 군사혁신이 설득력을 갖는 또 다른 이유는 군사혁신은 통상적으로 전쟁기간보다는 평화로운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⁵⁵⁾ 전쟁수행을 위한 군사교리는 단기간에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쟁경험과 과학기술의 발달 추세 등을 반영하여 많은 연구의 축적과 집단지성이 만들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평화시에는 과거 전쟁의 교훈을 재평가하거나 창조적 발전 노력이 가능하고, 그에 따르는 전략·전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할 여유가 허락될 것이다. 당장 가시적인 위협이나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군사부분에서 국가재정 지출이 감소되기 마련이고, 군 당국은 군사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적 성장보다 질적 발전에 주안을 두게 됨으로써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는 과학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약소국 또는 중견 국가의 경우 첨단과학기술 이외의 요소에 의한 군사혁신을 고려할 수 있는데, 독일군의 전격전, 모택동의 인민전술 등은 군사교리 주도형 군사혁신으로 전승

53) 신성호, “군사혁신 그 성공과 실패-한반도 전쟁의 미래와 미래의 전쟁-”, pp. 35~36.

54) 신성호, “군사혁신 그 성공과 실패-한반도 전쟁의 미래와 미래의 전쟁-”, pp. 37~38.

55) 김종하·김제엽, 『군사혁신과 한국군』, p. 35.

을 달성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군사력 건설에 접목되면서, 이러한 과학기술들이 군사교리, 작전 및 전술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군사교리와 작전개념을 연구하는 덴마크 국방대학교 이안 바우저스 교수와 사라 키르치버거 교수는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2020년 12월호에 발표한 공동 기고문에서 “4차 산업혁명의 군사력 접목이 세간에 회자되는 만큼의 성과는 없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교리와 전략, 군사작전 개념과 전술 변화를 지향하지 않는 한 그리 큰 성과는 없었다”⁵⁶⁾라고 주장하였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미래전 양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이 되나, 전장에서 파괴적 혁신이 군사력 운용의 구조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군사교리의 발전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군사력 건설에 접목하기 위해서라도 사고의 중심을 교리 자체에 두고 군사교리의 발전이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한다.

제 2 절 군사교리와 혁신 개념

1. 교리와 관련된 다양한 개념

가. 교리(Doctrine)

교리(Doctrine)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Doctrina’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의미는 ‘가르치는 것’ (Teaching)이다. 가르치는 행위를 의미하는 Doctrina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초점이 전환되어 Doctrine으로 정착되었다. 교리라는 용어는 학계와 종교계, 정치·사회분야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교리의 사전적 의미는 “수용이나 믿음을 위해 종교, 정치 또는 철학 집단이 제시한 원리들의 체계”⁵⁷⁾이며, “종교상의 이치나 원리, 각 종교 또는 종파가 진리라고 규정한 교의(敎義)체계”⁵⁸⁾이다.

56) Ian Bowers & Sarah Kirchbergers, “Not So Disruptive After All : The 4IR, Navies and the Search for Sea Control,”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December 2020), p. 1.

57) Microsoft Co, 『Microsoft Encarta 백과사전』 (1993).

58) 이희승, 『국어대사전』 (서울 : 민중서림, 1994).

일반적으로 교리의 의미는 가르침이며 보편타당한 진리라고 믿는 원리들의 체계이고, 철학적(哲學的)이고 교조적(敎條的)⁵⁹⁾이며, 인간의 행동에 지도적인 영향을 주는 원칙과 지침이 되는 일련의 실천적 차원의 사고 및 행동체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리란 종교, 정치, 군사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된 의미가 아니라, 해당 분야에 필요한 원리와 원칙, 기본방향, 지침 등을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교리의 대상을 주로 군사 작전에 국한시켜 사용하는 것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작전수행을 위해 가르쳐지고 활용되는 지식체계를 의미한다.

나. 개념(Concept)

개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일반적 지식’, ‘일반적인 아이디어’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용어이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개념(concept)의 의미는 전투발전체계 속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미래 작전환경과 과학기술 변화로 인하여 전쟁 또는 전쟁 수행방식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아이디어’⁶⁰⁾로 정의된다. 개념은 ‘미래에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며, 미래에 요구되는 ‘능력’(capability)에 초점을 맞춘다. 작전환경과 과학기술의 변화는 새로운 작전수행방법을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에 의해 ‘미래 작전수행개념’이 정립되고, 정립된 개념을 토대로 ‘요구 능력’을 도출한 이후에 ‘현재 능력’과 비교하여 ‘부족한 능력’을 식별하며 전투발전 7대 분야⁶¹⁾별로 ‘부족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화 사업이 추진된다. 참고로 미국 합동개념은 기본개념, 운용개념, 지원개념으로 구분하고, 미 육군은 기본개념, 운용개념, 기능개념으로 구분하여 제대별, 기능별 통합된 개념을 발전시켜 미래에 대비하는 전투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개념은 교리발전의 소요가 되기도 한다. 미래 작전환경 변화에 대비하

59) ‘교조적’이란 의미는 환경이나 구체적 현실과 관계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인 듯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60) The Department of the Army, *ADP1-01, DOCTRINE PRIME*(2014), pp. 1~2.

61) 현재 및 미래 전장에서 작전수행에 요구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발전시켜야 할 분야, 구조 및 편성, 무기·장비·물자, 시설, 인적자원, 교리, 교육훈련, 간부개발분야로 구분된다. 통상 DOTMLPF(Doctrine, Organization, Training, Material, Leadership, People, Facility)로 표현되고 있다. 육군본부, 『야전교범1-1 군사용어』, p.148.

여 ‘개념’을 발전시키고, ‘개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편성·무기·인력 등 타 전투발전 요소와 병행하여 교리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다. 운용개념, 작전수행개념, 작전개념

운용개념, 작전수행개념과 작전개념은 일반적으로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되어 사용되나 군대에서의 정확한 의미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미군의 교리에서 ‘Operational Concept’을 우리말로 운용개념, 작전개념 등으로 번역해 사용하면서 그 의미가 달리 이해된 것으로 생각된다.⁶²⁾

운용개념은 ‘일반적으로 운용하는 개념’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다. 운용이란 ‘임무수행을 위해 부대 및 장비를 그 기능과 성능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운용개념은 군사혁신 요소를 설명할 때 전략, 작전운용, 작전운용개념, 혁신적 아이디어 등 다양한 용어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으나, 운용개념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광의의 개념에 해당한다.

작전수행개념(Operational Concept)은 합동부대의 일부로서 작전하는 부대들이 작전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개념을 제공하는 기본 기술이다. 작전수행개념은 METT-TC와 관계없이 교리적으로 어떻게 작전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표현이다.

작전개념(Concept of Operation)은 과업을 부여받은 지휘관이 작전구상 결과 최종상태 달성을 위해 자신의 부대운용 방향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을 뜻한다.⁶³⁾ 이는 지휘관이 완수하고자 하는 것과 가용한 자원을 사용하여 어떻게 달성하려는 지에 대한 명확하고 간결한 복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군사분야를 논의할 때 군사교리, 개념, 교리, 운용개념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정확한 의미에 맞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군사교리의 중요한 역할이다.

62) 군사혁신과 군사교리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운용개념, 작전수행개념, 작전개념이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군사영어를 유사한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며, ‘Operational concept’은 ‘작전수행개념’, ‘Concept of operation’은 ‘작전개념’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군사용어는 용어 자체도 군사교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용어의 정확한 이해와 사용이 필요하다.

63)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2020), p. 232.

2. 군사교리의 개념과 역할

가. 군사교리의 정의

군사교리는 ‘군사(軍事)’와 ‘교리(敎理)’가 결합된 용어으로써, 군에서 사용하는 교리⁶⁴⁾를 의미한다. 군사교리는 작성하는 기관과 나라마다 또는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군의 경우 최고군령기관인 합동참모본부에서 군사교리는 “군사력으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승인된 군사행동의 기본지침으로 권위는 있으나 적용 시에는 판단이 요구되며, 군사교리에는 합동교리와 각 군 교리가 있다”⁶⁵⁾고 정의하고 있다. 각 군 교리 중 육군 교리는 “군부대나 그 구성원이 작전을 수행하는데 적용해야 할 공식적으로 승인된 군사행동의 기본 원리와 전술, 전기, 절차, 용어 및 부호”⁶⁶⁾로 규정하여 행동원리에 가깝게 정의하고 있다.

〈표 2-3〉 국가별 군사교리의 정의

구 분	정 의
미국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본 원리, 전술, 전기, 절차, 용어 및 부호 등이며, 작전부대와 작전을 지원하는 육군의 구성요소가 국가목표 달성을 지원하도록 그들의 행동을 인도한다. 이것은 권위는 있으나 적용시에는 판단이 요구된다. ADP1-01, 「교리입문서」
영국	군대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행동을 인도하는 기본원칙이며, 권위는 있으나 적용 시에는 판단이 요구된다. JDP 0-01.1 「합동용어사전」
러시아	현대 전쟁의 본성과 전쟁 시 군대의 사용에 관해 과학적으로 발견된 의견들 중에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체계이다. 「소련의 군사용어」, 미국 번역본

군사교리의 정의는 〈표 2-3〉과 같이 대부분 국가에서도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공통적으로는 군사교리는 ① 공식적 승인이 필요하며, ② 권위가 있고, ③ 적용 시 판단이 요구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군사교리를 발간하는 목적은 국가목표를 군사력으로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군사행동이나 군사력을 운용하는 원칙과 지침을 의미⁶⁷⁾하며, 군사

64) 군에서는 군사교리를 일반적으로 ‘교리’라는 용어로 함축해서 사용하는데, 이는 군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의미의 혼란이 없으나 군이 아닌 외부에서 사용시에는 군사교리가 정확한 용어이다.

65)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합동참모본부, 2014), p. 73.

66) 육군본부, 『야전교범 0-2, 교리』, pp. 1-3~1-4.

67) 미 합동기본교리에 해당하는 JP1 『Doctrine for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의 서문에서 군사교리는 미군을 운용하는 기본 원칙 및 포괄적 지침을 제공하고, 국가안보전략

교리는 권위 있는 국가기관에서 발행하지만 실전과 실무에 적용할 경우에는 당시 상황에 맞도록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의해 적용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적용 시 융통성을 강조하고 있다.

군사교리는 전쟁을 통하여 끊임없이 발전되어 왔으며, 군사력 운용을 위하여 ‘어떻게 싸울 것인가?’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 즉 양병(軍政)과 용병(軍令)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공한다. 그것은 미래전의 성격에 대한 군사력 건설과 발전방향, 전쟁의 목적과 국가의 사회적·경제적·기술적 및 군사적 능력에서 생겨나는 전쟁수행의 형태와 방법에 대한 공식적인 기본원칙과 지침으로 영구불변의 것이 아니라, 정세와 능력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변화되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⁶⁸⁾

나. 군사교리의 역할

군사교리가 왜 필요한가? 그것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답이 군사교리의 역할이며, 군사교리 발전의 목적과 효과가 될 것이다. 군사교리는 군대의 장비, 편성, 훈련체계 및 절차를 도입하게 하고, 필요시 개인 및 부대에 부여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동의 이해를 증진하며, 군사적 충돌의 대혼란 속에서도 성공을 위한 강력한 부대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⁶⁹⁾

군사교리가 중요하다는 인식과 발전을 위한 노력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860년 프러시아는 프랑스와 예나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명령이 하달되기 전에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 군대문화를 개혁하기 위하여 ‘임무형지휘’를 발전시켰다. 월남전에서 실패한 미국은 패배주의에 젖은 군대문화를 혁신하고 유럽에서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1973년 미육군교육사령부(US Army TRADOC)를 창설하고 군사교리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였다. 이때 미군이 중요시 한 것은 행정적·관료적 군대 문화를 전투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으며, 가장 가시적인 조치가 예산획득 및 관리 위주의 행정사령부로 전락한 ‘본토육군

및 군사전략과 연계하며, 국가정책 및 전략 개발 과정에서 군이 담당하는 역할을 설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68) 이종학·길병옥, 『군사학 개론』(대전 :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9), p. 31.

69) Walter E. Kretchik, *US ARMY DOCTRINE: From the American Revolution to the War on Terror*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11), p. 2.

사령부(CONARC)⁷⁰⁾를 해체하고 교육사령부(TRADOC)를 창설하여 전투 현장에 부합된 군사교리를 발전시켜 이를 토대로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강화하였다.

군사교리의 중요성과 함께 군사교리의 역할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교리는 국가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의 구성원들에게 권위있는 지침을 제공한다.⁷¹⁾ 군사교리는 구성원들에게 국가안보의 개념 및 목표, 국방목표, 군사력의 특성, 전쟁의 원칙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줌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해주고 군사력을 사용하는 행동의 근거와 원칙을 공유하도록 하여 노력의 통일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 국가가 설정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원칙과 리더십이 군사교리를 통해 구체화 되어야만 비로소 군 조직이 운용되고 무기가 활용된다.⁷²⁾ 또한, 군사교리는 군사활동의 지침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건전한 사고와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작전과 임무수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둘째, 전쟁과 전투방식에 대한 통일된 이해와 시각을 제공한다. 전쟁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조직적인 폭력행위이며, 전투수행방식은 적과 전투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전투원들이 어떻게 전투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제반 활동이다. 군사교리는 전쟁에 대한 오랜 경험을 토대로 도출된 영속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전쟁과 전투수행방식에 대한 통일된 이해와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양한 전장상황에서 개인들의 경험과 능력을 뛰어넘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력 운용 원칙을 제공한다. 따라서 군사교리는 독선적 이어서는 안되며 상상력과 창의력이 부족하고 경직된 사고에 함몰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군사교리는 전쟁에서 군사력을 운용하는 방법에 대한 집합이며, 구성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조언들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군사교리는 군사력 건설을 위한 소요기획의 기초를 제공한다. 군사교리는 군사작전의 지휘 및 통제, 작전계획 및 실행에 관한 방법을 제

70) 본토육군사령부(CONARC : Continental Army Command)는 미국 본토의 모든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 학교교육 통제, 훈련센터 운용, 교리발전 등의 책임을 지고 1955년에 창설되었으나, 전투보다는 예산, 군수 등에 초점을 둔 행정사령부라는 비판 속에 1973년 교육사령부 창설시 해체되었다.

71) 안재봉, 「한국군의 군사교리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p. 25.

72) 양욱, 「미국 군사변환의 평가에 관한 연구 -럼스펠드 시기 군사변환의 정책평가를 중심으로-」, p. 28.

시함으로써 적과 ‘어떻게 적과 싸울 것인가?’에 대한 기본지침을 제공하고, 이것으로부터 군사력 건설 소요기획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소요가 잘못될 경우 무기체계가 야전에서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일정이 너무 지연되는 것과 같은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소요기획은 정확한 군사교리와 개념에 대한 공부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⁷³⁾ 아울러 군사교리는 교육훈련을 위한 최선의 원칙을 제공하기도 한다. 결국, 군사교리의 개발은 인력, 장비, 조직, 훈련 교리의 일치화⁷⁴⁾를 통하여 군사작전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군사교리는 대외적으로 군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증진시키고 전쟁억제에 기여한다. 일반적으로 군사교리의 대외적 역할은 연합군에게 자기 나라 군대의 군사기풍과 전투방식을 이해시키는데 기여하며, 우리의 경우 한미연합작전이나 해외파병시 다른 나라에 한국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국가별로 교리의 대외적 역할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두느냐에 따라 자국 교리에 대한 대외 공개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미군은 군사교리의 대외적 역할을 중시하여 거의 모든 교리문헌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다. 반면 우리 군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적에게 자신의 작전수행방법이 노출되어 발생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하여 대외공개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민간분야에 대해서는 전쟁에 대한 국가의 접근방식에 관하여 합법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며, 군사교리를 통하여 군사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잠재적 적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데 기여한다. 아울러 군사력 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타 정부 기관 및 타군에도 상호 이해의 기반을 제공하기도 한다.

3. 한국군의 군사교리

가. 군사교리의 현 주소

군사교리는 내부적으로 한 국가의 전투력과 직결되는 것은 물론 국가의 안보환경과 능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

73) 김종하, 『국방획득과 방위산업 : 이론과 실제』 (성남 : 북코리아, 2015), p. 5.

74) 에스퍼 미국방장관은 2020년 7월 17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국방전략(NDS : National Defense Strategy) 이행 경과 보고’ (The Honorable Mark T. Esper Secretary of Defense NDS Implementation : First Year Accomplishments)에서 현대화된 합동전투수행개념과 교리 개발은 10대 목표 중 하나로 인력, 장비, 조직, 훈련, 교리의 일치화를 통해 전영역 작전(All-Domain Operations)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평가하였다.

다. 국가의 능력이 향상되고 주변 안보환경이 변화되면 군사교리는 동시에 발전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군사교리는 발전의 토양이 척박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군의 군사교리는 주로 미국 등 선진국의 교리를 모방하거나 선진국의 교리를 근간으로 하여 발전되어 왔다.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거나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는데도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 군사교리가 우리의 공식 군사교리로 계속 반영되고 있고, 그렇게 하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알아채는 사람은 극소수이다.⁷⁵⁾ 이러한 점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한국군의 독창적인 군사교리의 창출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⁷⁶⁾들이 있기는 하였으나, 척박한 교리발전의 현실 속에서 실현시키기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 할 수 있다.

둘째, 군사교리에 대한 무관심과 그 발전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군사교리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단면이다. 군사교리는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보완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누군가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자신은 그 당사자가 아니라고 여기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야전에 복무중인 사람들은 군사교리를 만들고 가르치는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불편함을 감내하고 드러내지 않고, 군사교리 연구 담당자들은 야전의 장교들이 교범을 읽지 않아 소요제기조차 하지 않는다고 탓하는 듯하다.⁷⁷⁾

셋째, 군사교리는 주로 용병 측면에서 집중하다 보니 양병에 관한 원칙과 지침을 동시에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군사교리의 연구는 주로 군사력을 직접적으로 운용하는 군 내부에서 연구가 진행되면서, 작전적 수준의 교리와 전술적 수준의 교리 등 하위 수준의 교리는 무기체계의 운용 방식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연구에 치중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상 유지에 치우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새로운

75) 야전 지휘관을 마친 A장군과의 인터뷰(2021. 10. 28)에서 야전에서 군사교리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이와같이 언급하였다.

76) 대표적인 사례는 1996년판 「작전요무령」에서 제시되었던 ‘지상군 전법’이다. 이 교범에서 ‘입체고속기동전’ ‘도로전부위주 종심방어’, ‘공세적후방지역작전’ 등 창의적인 개념들이 제시되었으며, 실제로 작전과 훈련시에도 적용되었다.

77) 남보람, 『전쟁이론과 군사교리 : 군사-전쟁 현상의 이론적 탐구』(경기 : 지문당, 2011), p. 22.

개념을 창출하는 심화연구가 부족하다.

넷째, 군내 교리분야 전문가들이 부족하다. 군사교리는 현역 영관급 장교 및 예비역 교리연구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리연구직은 비선호직위로 인식하여 우수인력이 보직을 기피하고 잦은 보직 교체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부족하다.⁷⁸⁾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일부 예비역을 교리연구관으로 채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연구의 추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교리연구는 군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일부 군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민간학자들에게 열람 및 자료의 개방이 제한되고 학문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다섯째, 교리발전 조직의 최적화와 협력적 교리발전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군사교리는 주로 육군이 선도하여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조직과 내용면에서 육군의 교리가 합동교리보다 먼저 발전된 분야가 많다. 하지만 현재 및 장차전은 합동작전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육군의 교리도 합동교리와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합참과 각 군간의 교리발전 조직의 최적화된 운영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연계된 교리발전이 필요하다.

나. 개념과 군사교리의 관계

개념은 전투발전 체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미래 작전환경과 과학기술 변화에 따라 전쟁 또는 전쟁방식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아이디어를 말한다. 개념은 통상 5~15년(F+6~F+16) 이후 ‘미래에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현재와 다른 새로운 작전수행방법을 제안한다. 육군의 경우 미래 작전환경과 과학기술의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작전수행방법을 발전시켜 「지상작전 기본개념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요구능력’을 도출하고 ‘현재능력’과 비교해 ‘부족한 능력’을 식별하여 전투발전 분야별(교리, 구조 및 편성, 교육훈련, 무기·장비·물자, 간부개발 및 리더십, 인적자원, 시설)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군사교리는 ‘현재의 능력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공인된 원리와 지침으로 현재 및 가까운 미래에 전력화되고 편제되고, 훈련할 부대를 위한 가능성 있는 술(術)에 집중한다. 교리에서 관심을 갖는 ‘가까

78) 육군△△학교장 B장군은 한국군의 교리발전을 위해 풍부한 식견과 개념을 갖춘 많은 장군들이 교리연구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터뷰 일자 : 2021. 1. 28.

운 미래’는 일반적으로 중기계획 기간인 5년(F+2~F+6)이 이에 해당되며, 새로운 부대가 창설 또는 개편되고, 새로운 무기체계가 전력화되기 이전에 필요한 교리가 사전에 제공되어야 한다. 개념을 발전시킬 때 교리나 과학 기술의 제약을 받지 않는 않지만, 다수가 공감하는 타당하고 합리성 있는 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유효한 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미래에 새롭게 싸우는 방법에 대한 교리를 발전시키는 것은 교리의 핵심 역할이자 관심 사항이며, 미래 작전환경 변화에 대비한 교리발전은 두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준비한다.⁷⁹⁾ 하나는 현재 우리 군의 능력 범위 내에서 미래에 대비하도록 현용교리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능력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다루기 때문에 미래 작전환경 변화에 근본적으로 대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른 하나는 미래 작전환경 변화에 대비한 ‘개념’을 발전시키고,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무기·편성 등 다 전투발전 분야와 병행하여 교리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이 미래 작전환경 변화에 근본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개념의 발전이 군사교리의 변화를 이끄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개념의 발전이 교리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우려가 교리발전을 재촉하지만, ‘교리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인가?’를 식별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리는 이미 과거 전쟁 및 전투에서 식별한 영속적인 원리와 원칙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전에 대비해 ‘교리적으로 정말 변화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쟁은 교리의 지속적인 쟁점이다.

우리의 군사교리를 인식하는 시각에서 <표 2-4>와 같이 미국과 한국의 개념과 교리발전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 육군은 ‘기본개념’, ‘운용개념’, ‘기능개념’으로 구분하여 세대별, 기능별 통합된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개념과 교리를 동시에 발전시키고 있다. 미군은 2015년부터 공지전투를 대체하여 ‘다영역전투’ (Multi-Domain Battle)를 발전시켜 2017년 10월에 다영역전투 개념서⁸⁰⁾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다영역전투 개념 중 현재 능력으로 수행 가능한 분야를 반영하여 최상위 교리문헌인 ‘FM 3-0 Operations’를 2017년에 동시에 발간하였다. 이러

79) 육군본부, 『야전교범 0-2, 교리』(2021), p. 2-10.

80) 원 제목은 Multi-Domain Battle : Evolution of Combined Arms for the 21st Century(2015~2040)이다.

한 과정을 거쳐 2019년에 다영역전투를 ‘다영역작전’ (Multi-Domain Operation)으로 변경하여 최종 완성하였다. 다영역작전(MDO)은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 및 전자기파의 전 영역에서 지속적이며 통합된 공격을 통해 적의 최첨단 방어체계를 파괴시키는 개념이다

〈표 2-4〉 한·미 개념과 군사교리 발전 비교

구 분	개념발전			군사교리
미 국	기본개념	운영개념	기능개념	FM3-0 Operations(2017)
한 국	기본개념	×	×	기준교범1 지상작전(2021)

반면 우리의 개념은 ‘기본개념’ 발전에 국한하고 있으며, 일부에서 기능개념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세부 개념발전이 미흡한 상태에 있다. 오히려 교리발전은 기존의 전술적 하위 수준의 교리에서 벗어나 작전적·전략적 수준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육군의 최상위 기준교범인 「지상작전」⁸¹⁾이 발간되었다. 지상작전은 한국군의 개념발전에서 미흡한 운용개념 및 기능개념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을 일부 포함하면서 교리의 영역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군사교리는 “군사작전 수행에 대한 근본 원리들의 지식체로써, 현재의 무기체계와 조직편성으로 싸우는 방법뿐만 아니라, 미래 작전환경 변화에 대비한 사고와 새롭게 싸우는 방법을 포함한다”로 개념을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사혁신의 요소로 중의 하나인 군사교리는 개념, 운용개념, 작전수행개념, 작전개념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4. 군사교리와 혁신 관계

가. 군사교리와 전쟁수행방식의 혁신

새로운 군사교리의 출현은 전쟁수행 패러다임의 대 전환을 가져올 수

81) 지상작전 서문에서 “육군의 부대구조 개편 및 신장된 능력, 전쟁 패러다임의 시대적 요구 등을 반영해 육군의 전 구성원이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맥락을 이해한 가운데 작전을 수행하도록 교범 내용의 수준을 격상하였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육군본부, 『기준교범 1, 지상작전』(2021), p. 서문 2.

있다. 새로운 군사교리의 출현이 전쟁수행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승리를 달성한 많은 사례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독일의 전격전 교리는 유럽에서 진지전 위주의 사고를 기동전 수행개념으로 변화시켰다. 프랑스는 당시에 개발된 전차, 항공기, 무전기 등을 방어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였지만, 독일은 구데리안(Guderian)장군이 전격전 교리를 적용하여 기동 마비전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하여 승리를 달성하였다.

미국 국방대학교의 설리반(Brain J. Sullivan) 교수는 1930~1970년間に 제 3세계 국가들이 발전시킨 ‘인민전쟁’ (people’s war)과 ‘게릴라 전쟁’ (guerrilla war)을 중요한 군사혁신으로 포함시켰다.⁸²⁾ 이들 국가 대부분이 유럽 선진국의 식민통치하에서 가난하고 지식 및 기술수준이 낮은 삶을 영유해 왔기 때문에 유럽의 현대화된 선진군대와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비대칭적’ (asymmetric)적인 전쟁수행방식을 고안하였다. 이러한 비대칭전의 수행개념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는 전쟁수행개념이다. 중국의 모택동은 한국전쟁에서 ‘인해전술’을 사용하여 UN군의 기도를 좌절시키는데 성공적이었고, 월맹의 지압(Giap)은 ‘치고 빠지기’ (hit & run) 전술을 매우 교묘하게 구사하여 세계 제일의 군사강국인 미국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의 ‘중대전술기지’는 미국 육군 전술 교범에도 반영될 정도로 세계가 극찬하는 군사교리에 해당한다. 채명신 장군이 고안해 낸 중대전술기지 교리는 정글전이 많았던 베트남전에서 게릴라전에 대응하여 새로운 전투수행방법을 창안하여 한국군이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었던 최고의 군사교리였다. 중대전술기지는 전면방어의 한 형태로써 적의 활동 중심지를 장악하여 적의 활동을 견제하고 책임지역 내로 침투를 봉쇄하며, 적 연대 규모의 공격에도 지탱할 수 있도록 준비된 진지이며 우군의 포병지원 거리 내에 설치된 중대급의 작전기지였다. 이는 게릴라 전술을 사용하는 베트공을 상대로 정글이라는 전장에서 특정한 전술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문제해결 노력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다. 특히 중대전술기지는 새로운 무기체계의 투입 없이 기존에 보유한 전투 장비, 물자들을 창의적으로 운용하는 군사교리를 정립한 것이 핵심으로 군사혁신의 관점에서 재조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맥그리거 녹스·윌리엄슨 머레이가

82) Brian R. Sullivan “What Distinguishes a RMA from MTR?” /NSS, 1996(미발표 논문), 권태영·노훈, 『21세기 군사혁신과 미래전』, p. 68에서 재인용.

정의한 군사혁신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특정한 적을 상대로, 특정한 전장에서, 특정한 작전적·전술적 과제를 목표로 진화적인 문제해결 노력으로 창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공지전투 교리는 현대전의 수행방식을 기존의 수세적 진지방어전에서 획기적인 공세적 기동공격전으로 변화시킨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지전투의 핵심은 적극방어와 중심전투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투지역을 확대하고, 전 전장에서 공중과 지상의 동시 통합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주도권(initiative), 중심(depth), 민첩성(agility), 동시통합성(synchronization), 템포(tempo) 등 공지전투에서 제시하는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공지전투는 과거 전쟁경험의 요소들을 통한 상대적 기동을 중시함에 따라 전략과 전술을 연계시켜 주는 작전술의 개념을 태동시키기도 하였다.⁸³⁾

러시아는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 개념인 ‘차세대전’ 교리를 정립하여 새로운 방식의 전쟁수행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무기체계를 전력화하고, 조직편성을 혁신하여 크림반도 군사작전에서 주권국가의 일부를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합병하는 역사상 유례없는 형태의 전쟁을 수행하였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군사교리의 등장은 전쟁수행방식을 창의적으로 변화시켜 군사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군사교리의 혁신적 발전만으로도 군사혁신을 달성할 수 있고, 군사교리가 무기체계, 조직편성의 변화를 추동하여 군사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나. 군사교리와 무기체계 혁신

제 1·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볼 때 과거부터 새로운 무기체계의 등장이 새로운 군사교리를 태동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관총, 전차 등을 최초로 개발한 국가는 영국이었지만, 이를 먼저 활용한 국가들(러시아, 일본, 독일 등)도 이미 개발된 무기체계를 활용한 새로운 군사교리를 발전시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오늘날의 무기체계 개발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초정밀·초연결·장사정·고위력의 무기체계 개발이 요구되고 있고, 이는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가가 적응성(adaptation)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미래에 ‘어떻게 싸울

83) 노양규, 「미군 작전술의 변화와 한국군 적용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년, p. 83.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군사교리를 먼저 발전시킨 이후에 이를 구현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미국은 월남전 이후 장기간에 걸친 연구 끝에 공지전투 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중심감시-중심통제-중심타격체계’를 발전시켰다. 중심감시·정찰체계로는 전술위성, 원격조종비행체(RPV), 원격표적획득체계(SOTAS), 전출처분석체계(ASAS) 등이 실용화되었고, 중심통제체계로서 전술화력통제체계(TACFIRE), C4I 등이 개발되어 배치되었으며, 중심타격체계로써 M1전차, AH-64공격헬기, 다련장로켓(MLRS), 지상발사 크루즈미사일(GLCM), 퍼싱 II 등을 전력화시켰다.⁸⁴⁾ 이와 같은 새로운 무기체계는 1991년 걸프전에서 그 효용성을 증명하였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어 미 육군은 주로 러시아와 중국의 A2AD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영역작전(Multi Domain Operation)⁸⁵⁾ 개념을 발전시킴으로써, 전쟁수행개념을 최근까지 주로 중동지역의 대테러전 중심에서 장차 대규모 작전(major operations)을 수행하는 개념으로 발전시켜 적용하고 있다. 미 육군은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미래사령부(AFC, Army Futures Command)⁸⁶⁾를 중심으로 ‘미 육군 현대화기획’ (FFME, Future Force Modernization Enterprise)에 따라 장거리 정밀화력, 차세대 전투차량, 미래 수직이착륙기, 육군 네트워크(Army Network), 공중 및 미사일 방어, 전투원 치명성의 6가지 최우선 과업(Big 6)을 추진 중이다. 이는 싸우는 개념 및 군사교리를 먼저 개발하고 요구되는 전력을 확충하는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과학기술 주도의 군사혁신 추진은 막대한 자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 할 때, 먼저 군사교리를 발전시킨 이후에 새로운 작전개념 구현에 적합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자

84) 권태영·노훈, 『21세기 군사혁신과 미래전』, p. 168.

85) 다영역작전(MDO)은 미국의 작전적·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중영역(지상·해상·공중·사이버·우주)과 경쟁공간에서 능력을 융합하고, 부대태세를 조정하여 다영역부대를 운용하여 적에게 작전적·전술적 딜레마를 부과하면서 적의 강점을 극복하는 작전으로 미 육군주도로 발전되었다. TRADOC, Pamphlet 524-3-1, *The US Army in Multi-Domain Operations 2020*, 2018, p. 서문.

86) 2019. 7. 31부로 창설된 미래사령부는 본부를 미 텍사스 오스틴시 UT System 빌딩내에 위치하여 산학연의 능력을 최대로 활용하여, 혁신적 해결책을 모색하여 미래 육군 건설을 주도하고 있으며, 예하에 편성된 미래개념센터(FCC : Futures & Concept Center)에서 위협 및 미래 작전환경 평가와 작전수행개념 발전과 부대구조를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더 설득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미래 위협에 대비한 군사교리의 발전은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국민의 지지 획득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는 효율적인 군사비 사용과 최적의 군사력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교리주도형 군사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미래에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운용개념과 군사교리의 등장인 새로운 군사기술의 소요와 새로운 무기체계를 창출하여 군사혁신의 성공을 이끌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다. 군사교리와 조직편성 혁신

군사교리의 발전은 작전운용방법이 변화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직운영의 효율화 측면에서 조직편성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독일의 전격전 교리의 발전은 기동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팬저(PANZER) 기갑부대를 편성하였는데, 당시 독일은 만슈타인 계획에 의해 3,200대의 전차와 3,900대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10개의 PANZER 기갑사단을 편성하여 기동전 수행이 가능한 조직을 준비하였다. 반면에 프랑스는 마지노선에 모든 전력을 고착시키는 진지전에 고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딜르 계획(Dele plan)에 따라 3,400대의 전차와 700대의 항공기로 13개의 요새사단을 편성하고 기동성이 없는 부대로 대비태세를 갖추다 보니 독일군의 공격에 한마디로 속수무책이었다. 즉, 군사교리가 조직편성의 기초가 되었으며, 그 결과는 전쟁의 성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⁸⁷⁾

1990년대 미국의 공지전투 개념은 기존 전술적 수준의 사단 중심 전장운동을 작전적 수준에서 주도권, 중심, 기민성, 동시통합성, 템포 등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군단 중심의 전장운영 조직으로 전환하였으며, 그 결과 걸프전에서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접어들면서 과거의 섬멸전보다는 마비전·효과중심작전(EBO)으로 전쟁수행방법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군 조직편성의 변화도 가져왔다. 기존의 화력중심의 부대구조에서 전구급부대부터 전술단위부대까지 정보수집이 가능한 부대를 별도로 편성하였고,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를 부대구조와 연결하여 발전시켰다. 또한 기동성

87) 권태영·노훈, 『21세기 군사혁신과 미래전』, p. 62.

확보 요구는 부대의 경량화와 전장기능별로 전문화되고 모듈화된 부대구조로 변화를 유도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동성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합동부대의 편성, 구성군간 공통적인 편성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대구조가 발전하여 왔다.

최근 들어 미국은 사이버전과 전자전을 통합하여 사이버·전자전 교리를 발전시키고 작전수행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2014년에 사이버 병과를 창설한 바 있고, 2019년에는 여단급 이상 제대에 사이버·전자전 참모조직으로 사이버·전자전활동(CEMA : Cyber Electro-Magnetic Activities)팀을 편성하였다.

현재도 미 육군은 다영역작전(MDO)을 새로운 작전개념으로 설정하여 2028년을 목표로 육군의 변혁을 추진중에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MDTF(multi-domain task force)를 편성하여 다영역작전 전투 실험부대로 운용중이며, 2019년에는 MDTF 예하에 I2CEWS대대⁸⁸⁾를 창설하여 장거리 표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융합하여 통합된 표적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감시 및 타격자산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효과적인 대 우주작전까지 수행하는 새로운 방식의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⁸⁹⁾

전투부대들이 군사교리에 맞춰 무기체계를 최상의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직편성을 최적화할 때 전투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군사교리의 등장이 조직편성을 바꿀 수 있으면 군사혁신이 더욱 제도화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제 3 절 연구문제 및 분석의 틀

본 연구의 목적은 군사교리와 군사혁신의 성공 관계를 설명하고, 나아가 한국군의 군사교리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기하는 질문은 첫째, 한국형 군사혁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둘째, 군사혁신과 군사교리의 개념은 무엇이며 상호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셋째,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은 군사혁신과정에서 군사교리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

88) I2CEWS대대는 Intelligence, Information Operations, Cyber & Electronic Warfare, Space & Signal의 약자로 기능별 1개 중대 및 1개의 직할반으로 구성된다.

89) "Hack, Jam, Sense & Shoot : Army Creates Multi-Domain Unit," *Breaking Defense*, 2019. 1.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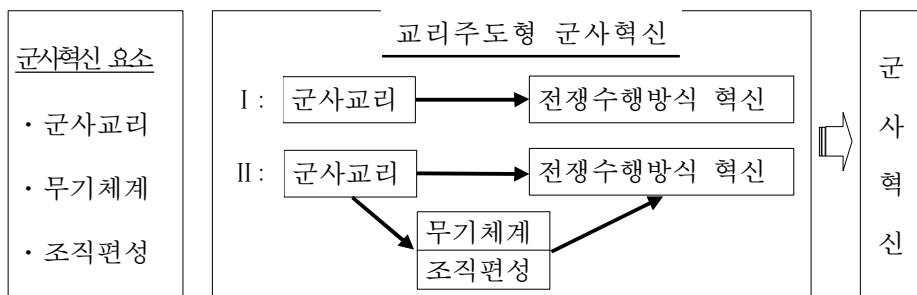
가? 넷째, 한국의 군사교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는가? 등이다. 이러한 연구 질문들은 사례분석 과정에서 군사혁신의 내용뿐만 아니라 군사혁신을 통해 각 나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하였는지 까지를 살펴볼 것이다.

“군사교리는 군사혁신의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라는 전제 하에 군사혁신의 성공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군사혁신의 요소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군사혁신 관련 이론의 검토 결과 군사혁신의 요소는 ① 무기체계, ② 군사교리, ③ 조직편성의 3가지 요소로 한정하였으며, 이중 군사교리의 역할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식별하였다.

군사혁신의 종류는 크게 기술주도형과 교리주도형 군사혁신으로 구분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교리주도형 군사혁신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리주도형 군사혁신의 관점에서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교리주도형 군사혁신 사례는 ‘Ⅰ : 군사교리의 발전 자체만으로 전쟁수행의 방식을 혁신’한 경우와 ‘Ⅱ : 군사교리가 무기체계의 혁신과 조직편성의 변화를 견인하여 전쟁수행방식을 혁신’시킨 2가지 사례를 깊이있게 분석할 것이다. 그리하여 군사교리는 <그림 2-2> 분석의 틀과 같이 군사교리 발전 자체만으로 군사혁신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거나, 군사교리가 무기체계와 조직편성의 혁신을 견인함으로써 군사혁신을 성공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것이다.

< 그림 2-2 > 분석의 틀



본 연구는 다중사례연구 중 복합분석단위를 적용하여 한국군의 베트남 전시 중대전술기지, 미군의 걸프전과 공지전투, 러시아의 크림반도 군사

작전시 하이브리드전 군사교리의 분석을 통해 군사혁신의 성공 요인을 설명할 것이다. 동시에 각 국가와 군대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를 달성하고 군사혁신을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같이 규명할 것이다.

아울러 각 국가들이 군사혁신의 중요한 성공 요인인 군사교리를 탄생시킨 이유와 배경, 발전과정, 내용들을 심도깊게 분석하고, 나아가 군사교리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떠한 방법으로 발전시켜야 하는지 실행 가능한 발전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군의 척박한 군사교리의 현실에서 군사교리가 군사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교리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군사교리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3 장 베트남전과 군사혁신

제 1 절 한국의 베트남전 수행

1. 베트남전 파병 배경

베트남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된 외세의 침입과 지배에 대항하여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저항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인도차이나 반도가 서구 열강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것은 1858년 가톨릭교도 탄압을 방지한다는 구실로 프랑스가 베트남을 침공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프랑스는 40여년에 걸친 정복 활동으로 1885년 6월 5일 제 2차 텐진조약에 의해 베트남을 식민지로 합병하면서 3개 지역⁹⁰⁾으로 분할하여 통치하였으며, 1893년 캄보디아와 라오스까지 통합하여 인도차이나 연방을 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저항세력으로서 1930년 2월 영국령 홍콩에서 ‘호찌민’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이 조직되었다. 그 후 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프랑스의 통치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1940년 9월 일본이 인도차이나반도를 점령하자 이에 맞서 1941년 9월 19일 중국 유주에서 ‘항불·항일 통일전선(Viet Minh)’이 결성되었고, 이 세력이 계속 팽창하여 1945년 5월경에는 북부 베트남의 6개 성을 장악하게 되었다.

태평양 전쟁이 일본의 항복으로 막을 내리자 베트남의 ‘바오다이’ 황제가 퇴위하고 1945년 9월 2일 베트민에 의한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선포하고 남·북부의 행정조직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전승 연합국의 자격으로 프랑스군이 다시 상륙하여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전후처리를 위해 설정된 16도선 이남에서 계속 영향력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1946년 2월 16도선 이북에서 전후처리를 끝낸 중국군이 철수하자 프랑스는 중국의 역할까지 다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민에 의한 ‘항불투쟁(抗佛鬪爭)’이 재연되었으며, 이로부터 베트남은 혼란 상태에 빠지면서 새로운 전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베트남 전쟁은 1949년부터 1975년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제 1차

90) 프랑스는 베트남 남부지역을 ‘코친 차이나(Cochin China)’, 중부지역을 ‘안남(Annam)’, 북부는 ‘통킹(Tonkin)’으로 명명하여 보호령으로 삼았다. 최용호, 『한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p. 31~32.

베트남전은 ‘항불전쟁(抗佛戰爭)’ 시기로 1949년 12월 19일부터 1954년 5월 7일까지 프랑스가 전통적인 식민통치권을 주장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사적인 개입을 본격화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전쟁은 호찌민군이 ‘디엔비엔푸 전투(1954. 3. 13 ~ 5. 7)’에서 승리를 달성함으로써, 프랑스는 1954년 7월 20일 제네바협정을 통해 베트남과 동남아시아에서 철수하게 되었다.⁹¹⁾

제 2차 베트남전은 ‘항미전쟁(抗美戰爭)’ 시기(1964. 8. 2 ~ 1973. 1. 27)로 제네바협정이 조인되고 프랑스 세력이 물러나자, 미국이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도미노이론(Domino Theory)을 내세워 공산세력 봉쇄를 명분으로 개입하면서 치러진 전쟁이다. 미국은 프랑스와 베트남 사이에서 최초 약 10년간은 비교적 간접적인 개입으로 친미 토착세력을 구축하려 하였으나, 이것이 실패로 끝나자 ‘통킹만 사건’⁹²⁾ 이래 약 9년간에 걸쳐 직접적인 군사력을 투입하였다. 미국은 과거 양대 진영에서 다원화 추세로 세계질서가 변화되자 일차적인 방위책임에서 탈피하려고 하였고, 이러한 시점에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이 실현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미국 내의 반전 여론이 비등해지고 반공전선의 색채가 퇴색되어 감에 따라 미국은 명예로운 철군을 모색하여 1973년 1월 27일 ‘파리평화회담’에 따라 전쟁이 종결되었다.

제 3차 베트남전은 미군 철수 이후 1974년 12월 31일부터 1975년 4월 30일까지 남베트남이 패망에 이르는 베트남 자국의 통일전쟁으로, 자유월남은 국내 정치 상황의 혼란과 군의 사기저하, 리더십과 전략의 부재 등으로 말미암아 조직적인 저항조차 제대로 못해 본 채 공산화되었다.⁹³⁾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은 제 2차 베트남전 시기에 해당된다. 1961년 군사 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미국과 안보동맹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과 미국의 원조를 최대한 얻어내어 자립경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은 한·일 국교 정상화와

91) 전쟁 결과 제네바평화협정(1954. 7. 20)의 체결되어 17도선의 북쪽은 호찌민이, 남쪽은 바오다이 정부가 남·북 분할통치가 시작되었고 대립구도가 형성되었다.

92) ‘통킹만’은 베트남 북부와 중국령 하이난 섬 사이에 위치한 바다로, 1964년 8월 2일 통킹만의 공해상에서 순찰중이던 미 구축함 매독스(Maddox)호가 북베트남 어뢰정의 공격을 받은 사건이다. ‘통킹만에서 북베트남 어뢰정이 미국의 함정을 공격했다’는 사실에 대해 ‘북베트남 어뢰정의 공격은 없었으며, 미군 레이더 판독병의 실수였다’는 주장도 있다. 최용호, 『한권으로 읽는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pp. 98~99.

93) 합동군사대학교, 『세계전쟁사(중)』(2012), pp. 8-46-1~2.

베트남 파병 정책을 통하여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하였다.⁹⁴⁾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제안은 5·16 직후 임명된 정일권 주미 대사가 한국정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면담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⁹⁵⁾ 5·16 직후부터 군사정부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정권의 최대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1961년 11월 4일 미국을 방문한 박정희 의장은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의 첫 번째 만남에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의사를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박정희 의장의 적극적인 파병 제안은 미국의 원조를 받는 입장에서 미국에 반대급부로 제시할 마땅한 카드가 없었기 때문이었으며, 베트남 파병 제의를 통해 경제와 안보라는 두 가지 현안을 동시에 해결하려 하였다.⁹⁶⁾ 그러나 1960년대 초까지 미국은 한국군을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었고, 한국군 파병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전투병력을 제외한 군사고문단이나 남베트남군의 훈련을 위한 교관 등은 필요하며, 공군이나 야전병원, 태권도 교관단 등의 활용 가능성은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미국의 부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군 전투병력 파병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미국에 국한하지 않고 남베트남 정부와도 직접 접촉을 시도하는 등 파병을 위해 노력하였다.

1962년 2월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혁명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태국, 말레이시아, 남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4개국을 친선 방문하게 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을 통하여 응오딘지엠 남베트남 대통령에게 한국군 파병을 제안하도록 하였다.⁹⁷⁾ 남베트남 지엠 대통령은 김종필과의 면담을 통해 군사사절단 파병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1962년 5월 11일 15명의 군사사절단을 베트남에 파견하였다. 군사사절단의 방문 이후에도 박정희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베트남 정부와 접촉을 계속하였으며, 베트남 파병이 결정된 이후 한국 정부는 남베트남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파병요청서’를 접수함으로써 이는 한국군 파병의 명분을 구축하는데

94) 임동원, “한국의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 1권 1호(서울 : 세종연구소, 1995), pp. 29~30.

95) 정일권, 『정일권 회고록』(서울 : 광명출판사, 1996), pp. 462~467.

96) 이동원, 『대통령을 그리며』(서울 : 고려원, 1993), p. 110.

97) 김진석, 『베트남에 오른 햇불』(서울 : 신아각, 1970), p. 8.

크게 기여하였다.

1964년 존슨 대통령은 미국의 새로운 베트남 정책이 SEATO⁹⁸⁾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자 한국을 포함한 자유 우방 25개국에 ‘베트남 지원’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한을 보냈고, 1964년 7월 15일 남베트남 정부로부터 한국군 파병을 요청하는 공한이 도착하였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미국의 지원으로 안보와 경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박정희 정부가 미국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반대급부로 활용한 전략이었다. 물론 ‘6·25 전쟁 시 도와준 자유 우방의 지원에 보답한다’는 국제적 신의의 차원과 ‘동남아시아의 공산주의 팽창저지에 동참해 세계 평화와 한국의 안보에 기여한다’는 제 2전선론 등의 명분이 제시되었으며, 근본적인 배경은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박정희 정부의 전략이었다.⁹⁹⁾

2. 베트남전 파병 경과

미국은 1964년 4월 23일 우방국들에게 ‘자유세계원조프로그램’ (The Free World Assistance Program)을 제창하면서,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 국가들에게 ‘지역 안보에 필수적인 베트남의 도발을 격퇴하는 것과 회원국들의 조약의무 이행’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믿었던 영국, 프랑스, 파키스탄 등이 남베트남은 SEATO 가맹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국의 베트남 정책과 군사개입에 반대하였다. 이처럼 미국의 새로운 베트남 정책이 SEATO 국가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자, 존슨 대통령은 1964년 5월 9일 한국을 포함한 자유 우방 25개국에 베트남 지원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한을 보냈다.¹⁰⁰⁾

98) 동남아시아조약기구(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는 1954년 5월 7일 베트남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하자, 미국은 동남아시아에서 프랑스를 대신해 공산주의의 팽창에 대처할 국제기구를 창설하기로 하였다. 1954년 9월 8일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타일랜드, 파키스탄 등 8개국 외무장관이 참가한 회의를 열어 ‘동남아시아집단방위조약 및 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기구가 결성되었다. 그러나 SEATO에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일부 대상 국가들이 참석하지 않아 출발부터 문제가 있었다. 최용호, 『한권으로 읽는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p. 128.

99) 최용호,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의 작전 및 민사심리전 수행방법과 결과」,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년, pp. 31~32.

100) 미국의 공한을 접수한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 서독, 일본,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뉴질랜드, 필리핀, 타일랜드, 한국, 타이완, 파키스탄, 그리스, 터키, 브라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스웨덴 등 25개국이었다.

미국은 한국에 이동외과병원 파병을 요청하였고, 국내적으로 파병 준비를 하고 있던 한국 정부는 건국 이후 최초의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7월 31일 만장일치로 통과함으로써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이 이루어졌다. 제 1차 파병은 비전투부대인 이동외과병원(130명)과 태권도 교관단(10명) 등 140명이 1964년 9월 11일 부산항을 출발하여 9월 22일 사이공에 도착하였다. 이동외과병원은 남베트남 육군 정양병원이 위치한 봉따우(Vung Tau)에 도착하여 의료지원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태권도 교관단은 남베트남 군사교육기관에서 남베트남 군인들을 지도하였다.

베트남전이 확대되자 미국은 전쟁의 명분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우방국의 지원이 필요하였고, 남베트남의 후방지역에서 전쟁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던 남베트남군을 전선지역에 투입함으로써, 후방지원 병력이 추가로 필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1964년 12월 18일 브라운 주한 미 대사를 통하여 남베트남 후방지원에 필요한 비전투부대 파병을 요청하는 존슨 대통령의 친서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미국의 비전투부대 파병을 요청받은 한국 정부는 준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2,000명 규모의 ‘한국군군사원조단’의 파병안을 마련하여 주한미군사령관과 합의하였다. 이어서 1965년 1월 2일 남베트남 정부로부터 한국군의 2차 파병을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후, 1월 26일 국회 동의를 얻어 ‘건설지원단’을 편성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뜻에서 ‘비둘기부대’로 명명하였다. 비둘기부대는 파병 준비를 거쳐 3월 10일 인천항에서 미 해군 수송함을 이용하여 3월 16일 사이공에 도착한 후, 사이공 동북방 22km지점에 위치한 지안(Di An) 지역에 주둔하면서 사이공 외곽 도로 건설 등 각종 지원 임무를 수행하였다.¹⁰¹⁾

한국군의 2차 파병이 있었던 1965년에 접어들면서 베트남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미국의 강력한 공중공격에도 불구하고 북베트남 정규군이 호찌민 루트를 이용하여 남파가 지속되면서 베트남 남부의 전 지역에서 치열한 지상전투가 지속되고 있었다. 미군은 본토의 예비병력과 해외 주둔 미군의 일부를 베트남전에 투입하였으나 병력의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에 1개 사단 규모의 전투부대 파병을 요청하였다. 한국 정부는 파병을 위한 조건¹⁰²⁾을 제시하였고, 1965년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101) 최용호,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제 1권(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p. 14.

102) 이동원 외무부 장관은 브라운 주한 미 대사와 협상을 통해 “① 파병병력의 상한선은 5만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부분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1965년 6월 14일 남베트남 정부로부터 전투병력 파병을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하였고, 8월 13일에 국회 의결을 거쳐 1개 사단 규모의 전투부대 파병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1965년 9월 25일 ‘주월한국군사령부’를 창설하여 채명신 소장을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수도사단(맹호부대)과 제 2해병여단(청룡부대)을 파병부대로 개편하였다. 제 2해병여단이 10월 9일까지 캄란(Cam Ranh)에 상륙한 이후, 10월 20일에 사이공에 ‘주월한국군사령부’를 개소하였다. 이후 수도사단(-1)은 11월 1일까지 꾸년(Quy Nhon)에 상륙함으로써,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본격적인 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다.¹⁰³⁾

3차로 남베트남에 파병된 맹호부대와 청룡부대가 눈부신 활약을 하게 되자 미군은 물론 남베트남 정부도 한국군의 위상을 새롭게 인식하였다. 당시 전투병력의 부족 현상을 겪고 있던 미국은 베트남의 작전환경에서 한국군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한국군의 증파를 요청하였다. 주월한국군사령부 입장에서도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을 위해 군단급 규모의 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으며, 한국 정부도 5만 명까지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준비에 착수하였다. 한국 정부는 1966년 2월 22일 남베트남 정부로부터 1개 전투사단의 추가 파병을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받아 3월 20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수도사단 26연대와 9사단의 파병을 결정하였다. 파병준비를 마친 수도사단 26연대는 4월 15일 꾸년에 상륙하였고, 9사단(백마부대)은 10월 8일까지 닌호아(Ninh Hoa) 지역에 상륙함으로써 4차 파병이 이루어졌다.

한국군은 군단급 규모가 파병됨에 따라 이들의 전투근무지원을 위해 수도사단 예하의 군수사령부를 개편하여 제 100군수사령부(십자성부대)를 창설하였고, 해상 수송지원을 위해 비둘기부대 예하의 해군수송분대를 해군수송전대(백구부대)로 개편하고, 근접항공지원 및 공중수송지원단을 모체로 공군지원단(은마부대)를 창설하여 각각 주월한국군사령부 예하부대

명 이내로 한다. ② 한국군의 현대화를 지원한다. ③ 북한의 침공시 미국이 즉각 출병할 수 있도록 한·미방위조약을 개정한다. ④ 파병에 소요되는 경비를 미국이 부담한다. ⑤ 남베트남에서 사용할 군수품 공급 등 한국의 남베트남 시장 진출을 보장한다 “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최용호,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의 민사심리전 수행방법과 결과」,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년, p. 35.

103) 최용호,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제 1권, p. 15.

로 지휘체계를 확립하였다. 이에 따라 주월한국군은 군단급 규모로 확장되어 작전지휘권을 보유하고 독자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제 4차 파병 이후에도 미국의 요청으로 해병대의 추가 증파 논의가 있었으나, 1968년 1·21 사태와 1월 23일 동해에서 미 정보수집함 푸에블로(Pueblo)호 나포 사건 등과 같은 북한의 도발이 증가되면서 추가 파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군은 1968년 1월 말 북베트남군의 ‘뗏 공세’로 고전하면서 평화협상을 제의하였고, 베트남 평화협상에 따라 한국군은 1971년 12월 1일부터 1972년 4월 13일까지 제 2해병여단과 100군수사령부 예하 지원단 및 해군 수송전대 일부가 1단계로 철수하였다. 1973년 1월 23일 베트남과 평화협정이 조인됨에 따라 한국군은 1973년 1월 30일부터 3월 23일까지 최종 철군이 완료되었다. 한국군은 1964년 9월 23일 이동의 파병원과 태권도 교관단이 파병된 이후 후발대가 1973년 3월 23일 철수하기까지 8년 6개월 동안 연인원 32만여 명이 참전하였으며, 5,000여 명의 전사자가 발생하였다.¹⁰⁴⁾

3. 한국군의 작전개념

한국군의 작전개념은 독자적인 작전통제권 행사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파병 당시 한국군은 “한국군 전체의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에 파병되는 한국군은 주월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¹⁰⁵⁾는 생각들이 있었다. 미군은 ‘지휘의 통일의 원칙’ (principle of unity of command)에 따라 베트남에 파병된 연합군 역시 단일 지휘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군은 파병을 위한 최초 협상단계에서부터 미군과 협상을 통해 독자적인 작전권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한국군의 파병은 ‘미국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월남을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전쟁에 참가하는 것이다’라는 명분을 내세워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작전권을 집요하게 요구하여 주월미군사령관인 웨스트 모랜드 장군의 양보로 제한적이지만 독자적인 작전권을 확보하였다.¹⁰⁶⁾

104) 최용호,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제 1권, p. 44.

105) 최용호(증언록, 2001), pp. 35~48, 파월 한국군 제 1·2차 선발대장 이훈섭 예)준장의 증언

106) 채명신, “미군과 작전지휘권 협상 및 연합작전”, 『베트남 전쟁 연구총서』 제 1권(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 60.

1965년 10월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 당시 미군의 작전개념은 ‘수색 및 격멸’(Search & Destroy) 개념에 입각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투입하는 방식의 작전이었다. 미군은 게릴라들의 은거가 예상되는 지역을 탐색하여 이들을 찾아낸 후, 강력한 군사력으로 격멸하는 정규전 방식의 작전을 수행하였다. 6·25 전쟁 시 게릴라전 수행 경험이 있었던 채명신 장군은 게릴라전의 속성을 감안할 때 강력한 군사력을 운용하는 것만으로는 베트남의 게릴라전을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한국군의 작전개념은 ‘분리-섬멸-지역확대’ 순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었다.¹⁰⁷⁾ ‘분리’ 작전은 ‘번져가는 기름 방울식’의 공산 침략을 역 이용하여 ‘물과 물고기’(水魚之) 관계인 적과 주민을 우선 분리시키고, 그 상호관계를 차단함으로써 적을 무력화하는 것이었다. 섬멸작전은 고립화 내지 무력화된 적을 아군의 유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우세한 병력과 화력을 집중하여 신속한 기동으로 포위, 포착, 완전섬멸하는 것이었다. 마지막 지역확대는 월남군 지방군, 민병대 및 혁명 개발단(RF, PF, RD)과의 협조 및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을 평정하고 부단한 탐색·포착·섬멸작전으로 지역 안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평정한 지역을 남베트남 지방정부 기관에 인계하고 평정지역을 축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¹⁰⁸⁾

한국군의 독자적인 ‘분리-섬멸-지역확대’의 작전개념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술이 중대전술기지였다. 월남전에서 한국군이 작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민들과 베트공을 분리시킨 후 그들이 주민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미군은 군대가 보호할 수 있는 곳에 분산된 주민들을 통합 수용한다는 ‘전략촌(Strategic Hamlet)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주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실패하였다.¹⁰⁹⁾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군의 작전은 주민들이 거주지역 외곽에 전술기지(Tactical Base)를 설치하고, 이를 거점으로 수색정찰과 매복작전을 통하여 주민과 베트공을 차단하면서 점차 평정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개념을 정립하였다. 한국군은 광범위한 책임지역에서 핵심지역을 선정하여 전술기지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가용병력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중

107) 최용호는 한국군의 작전개념을 ‘분리-차단-격멸’의 3단계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전술적 수준에서 분석한 것으로 보여진다. 최용호,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의 작전 및 민사심리전 수행방법과 결과』, pp. 63~64.

108)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에서의 한국군 전술』(서울 : 육군인쇄공창, 1969), pp. 7~8.

109) 합동군사대학교, 『세계전쟁사(중)』(2012), p. 8-46-23.

대단위로 전술기지를 편성하였다.

중대전술기지는 적 연대 규모의 공격을 48시간 이상 지탱이 가능하도록 아군 포병의 지원거리 내에에서 화력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며, 기지 주위에 철조망지대와 지뢰지대를 설치하고, 내부에는 유개화된 요새진지를 구축하였으며, 필요한 탄약과 보급품을 비축하였다.

중대전술기지의 임무는 정찰과 매복작전을 통해 적을 포착, 섬멸하고 대민지원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내에 있는 적의 근거지를 분쇄하며, 적들이 주민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이미 침투한 적들은 수색작전을 통해 색출한 후 소탕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군의 작전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과 주민을 분리하는 단계부터 적의 섬멸과 평정작전으로 지역을 확대하는 전 단계에 걸쳐 지역 주민의 협조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민사심리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베트남전이 게릴라전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채명신 장군은 “100명의 베트공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1명의 양민을 보호하라”¹¹⁰⁾는 기본정신 아래 전 장병이 민사심리전은 요원이 되어 주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개념을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었다.

4. 중대전술기지 전투사례

한국군의 작전개념을 적용한 대표적인 중대전술기지 전투사례는 독코(Duc Co) 전투와 짜빈동(Tra Binh Dong) 전투를 들 수 있다. 미군은 분산된 중대전술기지가 적으로부터 각개격파될 수 있다며 많은 우려를 나타냈었지만, 이 전투에서의 승리로 중대전술기지의 유효성을 입증하면서 미군 뿐만아니라 많은 군사전문가들에게 중대전술기지가 게릴라전 상황에서 효과적인 개념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가. 독코(Duc Co) 전투

독코 전투는 1966년 8월 9일부터 10일까지 베트남의 지아라이성(Tinh Gia Lai) 독코(Duc Co) 지역에서 수도사단 기갑연대 3대대 9중대와 북베트남 제 308사단 88연대 1·2대대(+)간에 발생하였던 전투로써, 한국군 중대전술기지 전술의 유효성을 입증한 당시 최대 규모의 승전 사례이다.¹¹¹⁾

110) 채명신, 『베트남 전쟁과 나』 (서울 : 팔복원, 2006), p. 186.

111) 최용호, 『한권으로 읽는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p. 257.

1) 전투배경

1966년 8월 수도사단이 쩀년 지역에서 평정작전을 확대해 나가고 있을 때, 캄보디아 국경선 일대의 산악 정글에는 호찌민 통로¹¹²⁾를 따라 남하한 북베트남 정규군들이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진지를 편성하고 있었다. 미군은 북베트남 정규군을 캄보디아 국경선 일대에서 포착 섬멸함으로써 북베트남군의 개입을 차단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군은 ‘폴 리비어(Paul

〈그림 3-1〉 베트남 쩀년 및 독코 일대



Revere) 작전’¹¹³⁾을 전개해 대규모 병력을 캄보디아 국경선에 투입시키기 시작하였다. 독코 지역은 캄보디아 국경선에 인접한 조그만 촌락으로 대부분 산악 정글로 이루어져 관측과 사계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중부지역의 베트공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곳으로 북베트남 정규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미군은 험준한 지형과 정글 지역에서 요충지 장악이 어렵고 병력 부족에 시달리자 한국군 1개 대대를 독코 지역으로 증원을 요청하였다.

2) 전투경과

미국의 요청에 따라 수도사단 예하 기갑연대 3대대가 미 25사단 3여단에 배속되었고, 도착과 동시에 3대대는 중대전술기지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미 3여단의 작전개념은 ‘강력한 전투부대를 구성해 요충지를 점령하고 방어하면서 지속적인 수색정찰로 북베트남의 주력을 찾아 격멸’하는 것으로, 3대대도 미군의 개념에 따를 것을 강요하였다. 하지만 3대대장 최병수 중령은 중대전술기지 전술을 적용하여 중대 기지가 적 연대급

112) 호찌민 통로는 미군의 공격을 피해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국경선 산악지역에 설치된 북베트남의 병력 및 보급수송로를 말한다. 북베트남은 호찌민 통로를 이용해 다량의 물자와 장비를 베트공에 제공하는 한편 1964년부터 대규모 정규군을 남파시키고 있었다.

113) Paul Revere는 미국의 은(銀) 세공자이자 애국자로, 독립전쟁 시기인 1775년 4월 18일 밤 영국군의 공격 정보를 입수한 후 영국군의 경비를 뚫고 말을 달려 메사추세츠 식민지 사람들에게 영국군의 공격을 알려 대비하게 하였다.

부대의 공격에도 48시간 이상 지탱이 가능하도록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고 보급품과 탄약을 비축하였다. 미 3여단장은 미군의 작전개념에 따를 것을 요구하면서, 3대대의 진지구축을 위한 보급과 지원을 통제하기도 하였으나, 3대대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보급품을 확보하고 전투를 준비하였다.

9중대 전술기지에는 중화기중대로부터 배속받은 경기관총 2개 소대와 81mm박격포 1개반, 그리고 미군으로부터 배속받은 전차 1개소대가 함께 배치되었다. 9중대는 주간에는 2개 소대 규모로 국경선 지역을 수색하고 야간에는 중대전술기지에서 방어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작전을 반복하였으나, 적과의 조우는 거의 없었다. 한편 중대 기지에 잔류한 병력은 주변에 무성한 나무를 베어 유개호를 만드는 등 병커를 견고히 구축하면서, 각개병사에게 사격구역을 배당하는 등 화력계획을 보강하였다.

8월 9일 야간에는 2개 소대 규모를 기지 주변에 매복작전을 실시하는 가운데, 신·구임중대장은 합동근무를 완료하고 10일 아침 출발하는 이임중대장의 송별의 자리로 인해 긴장이 다소 이완된 상황이었다. 22:40경 2소대 전방에 나가 있는 화기소대장으로부터 “청음초 앞에서 조명지뢰가 터졌다”, “전방 독립수가 있는 방향에서 땅을 파는 소리가 들린다”, “호를 파는 소리가 들린다”는 등의 보고가 접수되었으나 별다른 조치 없었다. 이후 미군 전차소대장에게 “전차에 장착된 탐조등으로 소리나는 방향으로 비춰보라”고 지시를 하고 목표지점을 비추자 적이 집중 공격을 개시하였다.

대규모의 적 부대가 공격을 가해오면서 적의 포탄이 중대기지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9중대는 적의 공세 초기에 지휘체계가 마비되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¹¹⁴⁾ 그러나 중대는 평소 훈련하였던 데로 즉각 진지에 배치되었고 초기 40분 동안의 아군 화력을 적에게 집중하여 사태를 수습하였다. 대대는 직접지원 포병과 미 3여단의 지원 포병을 요청하여 9중대 정면에 집중적인 화력을 운용하였다. 특히, 미군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3대대와 9중대는 충분한 양의 탄약을 비축하고 있었으며, 북베트남군은 5차례의 제파식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그때마다 지원 포병과 9중대의 화력으로 저지하였다. 8월 10일 04:00에는 적의 최후 돌격으로 2소대 진지 일부가 피탈되기도 하였으나, 근접지원 포병 화력의 효과적인 운용으

114) 이 전투에서 발생한 피해의 90%가 교전 개시 후 10여 분간의 적 박격포 사격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육군본부, 『과월 전사』 제 2집(1967), p. 337.

로 적을 격퇴시켰다.

전투결과 현장에서 확인된 적은 사망자 184명, 추정 사상 150, 포로는 6명이었고, 개인화기 62정 등 각종 무기와 탄약을 노획하였다. 그러나 적들의 피해는 확인된 것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에, 9중대는 신임중대장 등 7명이 전사하고, 4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¹¹⁵⁾

3) 분석 및 평가

дук코 전투는 9중대가 적 2개 대대(+) 규모의 적의 공격을 격퇴하고 적에게 치명타를 입혔다. 9중대의 성공 요인은 중대전술기지 전술에 따라 사전에 전개한 전술기지를 구축하고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충분히 비축해 두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초기에 지휘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철저한 경계작전과 사전에 화력계획을 수립하고 전 중대원에게 화력유도 훈련을 숙달시켜 효과적인 화력운용으로 적의 공격을 격퇴할 수 있었다.

9중대의 승리는 한국군의 중대전술기지 전술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미군들이 한국군 작전개념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한·미 연합작전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군도 중대전술기지를 이름만 바꾸어 ‘화력기지’(Fire Base)라고 명명해 적극적인 운용을 검토하게 되었다.

나. 짜빈동(Tra Binh Dong) 전투

짜빈동 전투는 1967년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베트남의 팡응나이성(Tinh Quang Ngai) 선띤(Son Tinh) 토남(Tho Nam) 섬띤(Xom Don) 마을에서 제 2해병여단 11중대와 북베트남 제 2사단 1연대 및 지방 베트남공부대 간에 발생하였던 전투로써, 한국군 중대급 규모 부대의 최대 승전 사례이자 중대전술기지 전술의 유효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이다.¹¹⁶⁾

1) 전투배경

제 2해병여단은 1966년 9월 23일 주둔지 푸이호아 지역으로부터 쭈라이 지역으로 이동하여 작전에 돌입하였다. 쭈라이 지역은 베트남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북베트남 정규군과 연결이 용이한 지역이었다. 또한 1967년 1월은 북베트남 정규군 1개 사단이 8월 수도사단이 꾸년 지역에서 평정작전을 확대해 나가고 있을 때, 쭈라이 일대에 침투하여 대기하고 있

115) 육군본부, 『파월 전사』 제 2집, p. 347.

116) 최용호, 『한권으로 읽는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p. 293.

었다.

〈그림 3-2〉 짜빈동 일대의 지형

2해병여단은 ‘투망작전’ (1967.

1. 5 ~ 15) 기간중 11중대 기지에 근접한 짜빈박(Tra Binh Bac) 일대에서 3대대 지휘부가 적의 기습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또한 미군의 수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강구전투’ (1967. 1. 31 ~ 2. 3)¹¹⁷⁾에서 베트남 점령지역에 착륙하던 1개 소대가 전멸된 사례도 있었다.

제 11중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짜빈동 마을은 〈그림 3-2〉와 같이 표고 30m 정도의 구릉으로 중대 기지 동쪽에는 1번 도로와 철로가 지나고 있었으며, 남쪽에는 527번 지방도로가 통과하였다. 11중대는 “적 연대급 부대의 공격에도 외부지원 없이 48시간 이상 지탱할 수 있도록 진지를 보완하라”는 여단장의 지시에 따라 기지의 방어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지공사에 착수하였다. 중대는 화기진지를 유개화하고, 기존에 구축하였던 개인호와 교통호를 보강하고, 조명지뢰와 대인지뢰를 추가 매설하는 등 방어력을 대폭 보강하였다.

2) 전투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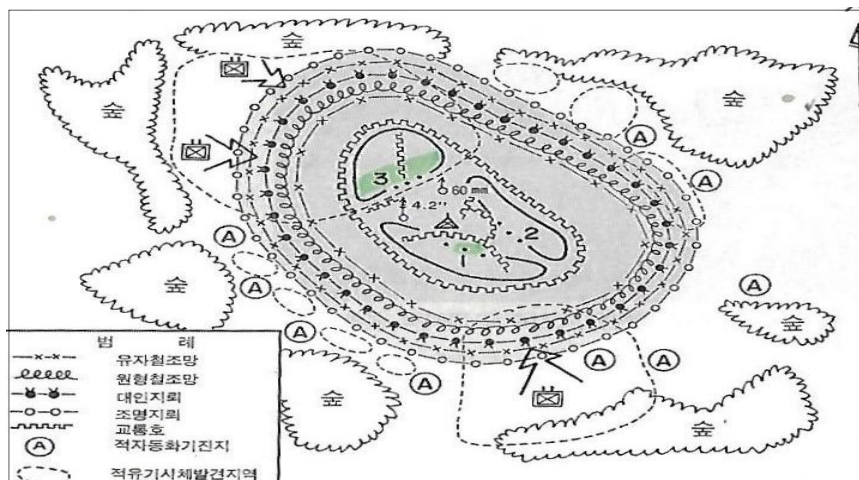
1967년 2월 14일 22:00경부터 짙은 안개와 부슬비가 내려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운 시도조건에서, 23:30경 적 침투부대가 3소대 지역 기지 외곽 철조망에 파괴통을 폭파시켜 철조망을 개척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중대는 즉각 81mm 조명탄을 띄워 1개 소대 규모의 적이 도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집중사격을 가하자 적은 산발적인 대응과 함께 도주하고 말았다. 적



117) 강구전투에서 포위된 2중대 3소대 위생하사관 지덕칠 하사는 전사한 분대장을 대신해 분대를 지휘해 베트남공의 포위망을 벗어나는 투혼을 발휘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신은 중상을 입었지만 부상자를 먼저 후송하는 등 살신성인의 자세로 분대를 지휘하다 전사하였다. 이 같은 故 지덕칠 중사의 고귀한 희생은 베트남전에서 故 이인호 소령과 함께 해병대 정신의 귀감이 되었다.

들이 도주하자, 중대장은 그들의 2차 공격에 대비해 1/2병력을 전투배치하고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상급부대의 화력지원태세 등을 재점검하였다.

〈그림 3-3〉 짜빈동 중대전술기지 병력배치와 적 공격 방향



출처 : 위태선, “짜빈동 전투의 고찰”, 『軍史』 13호(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6), p. 60.

다음날 새벽 04:10경 적은 3소대 전방으로 다시 은밀히 2차 공격을 개시하였다. 중대장은 전원 전투배치한 상태로 적을 최대한 지근거리까지 유인하여 기습사격을 가하였다. 11중대가 조명탄을 띄우자 중대기지를 포위하고 있던 적은 11중대 기지를 향해 집중적인 포격을 가하였고, 11중대 역시 대응사격을 하면서 포격전이 지속되었다. 아군의 집중적인 포격 속에서도 적의 주력은 3소대 정면의 외곽철조망을 파괴통으로 폭파하고 3소대 진지를 돌파하였고, 이어서 1소대 지역의 일부 진지도 돌파되었다. 이때 여단에서는 진내사격을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11중대가 역습으로 돌파한 적을 격퇴시켰다. 해병대 장병들의 분투로 진지로 돌파한 적들을 07:20경 모두 사살하였고, 기지 외곽에서 저항하던 적들도 전의를 상실하고 부상자를 부축해 도주하기 시작하였으며, 여단에서는 지원화력으로 끝까지 도주하는 적에게 화력을 집중하였다.

전투 후 현장에서 확인결과 적은 제 1연대 90대대장 등 243명 사망, 추정사살 60명, 포로 2명 등이었으며, 이외에도 상당수의 장비를 노획하였으며, 반면에 11중대는 전사 15명과 33명이 부상하는 피해를 입었다.

3) 분석 및 평가

짜빈동 전투는 11중대가 1개 연대 규모의 북베트남 정규군의 공격을 8시간 30분의 격전 끝에 막아내며, 중대전술기지 방어에 성공함으로써 한국군의 막강한 전투력을 과시하고 국위를 선양하였다. 앞서 독코 지역에서 한국군 중대전술기지의 유효성을 입증한 바 있었고, 짜빈동 전투로 그 실효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¹¹⁸⁾ 이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중대전술기지 전투가 성공을 거두자, 주월미군사령부는 한국군의 중대전술기지 전술에 찬사를 보내면서, 미군은 중대전술기지를 ‘화력기지’ (fire base)로 명명하고 미군의 전술로 도입하는 한편 전술적 운용을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하기도 하였다.

11중대가 짜빈동 전투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중대전술기지 전술에 따라 적의 공격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고 중대전술기지의 방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지원화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등 적절한 상황조치와 전투지휘 때문에 가능하였다.

제 2 절 군사교리와 전투수행방식의 혁신 : 중대전술기지

1. 중대전술기지의 개념

중대전술기지는 주월한국군사령부의 기본 작전개념인 ‘분리-섬멸-지역확대’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술개념이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지역 내의 베트공의 활동을 봉쇄하고 적을 포착 섬멸하는 동시에 지역의 안전과 남베트남 정부의 평정 사업을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정부 통제를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중대전술기지는 전면방어의 한 형태로서 작전지역 내 중요지역을 장악하여 적의 활동을 견제하고 책임지역 내로 침투를 봉쇄하며, 적 연대 규모의 공격에도 지탱할 수 있도록 우군의 포병지원 거리 내에 준비된 중대급 작전기지였다. 주월한국군의 모든 기지는 적 연대급 부대의 공격에도 48시간 이상 지탱이 가능하도록 강력한 전면방어 진지로 편성하였다.

118) 이때 한국군이 보유한 M1 소총은 적의 AK소총보다 성능이 뒤떨어진다는 것이 실증되어, 파월 한국군의 장비현대화를 미국측에 강력히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위태선, “짜빈동 전투의 고찰”, p. 53.

중대전술기지는 광범위한 책임지역을 제한된 병력으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부대 시설과 최소한의 중요지형지물을 실 병력으로 방어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책임지역은 주로 매복, 수색정찰, 감시 수단 및 화력에 의하여 통제되며 침투를 기도하거나 지역 내에서 활동 중인 적은 신속한 기동으로 소탕하는 것이었다. 작전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책임지역의 확보 책임은 중대 또는 증강된 소대급까지 분권화된 작전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모든 중대전술기지에는 <표 3-1>과 같은 4가지 임무가 부여되었으며, 각 전술기지는 ① 공세 작전기지 제공, ② 수색정찰 및 매복작전기지, ③ 정보수집 활동 기지, ④ 민사심리전 활동 기지, ⑤ 적의 주력을 유인 섬멸하기 위한 기지 등 5가지의 목적을 위하여 운용되었다.¹¹⁹⁾

<표 3-1> 중대전술기지의 임무

- 강력한 전면방어 진지를 편성하여 적의 연대 규모 공격에 48시간 이상 지탱한다.
- 책임지역 내의 적의 침투 및 활동을 분쇄하기 위하여 수색정찰 및 매복작전으로 적을 포착하여 소탕한다.
- 책임지역 주민에 대한 심리전 및 대민지원 활동을 수행한다.
- 주민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민간정보망을 구성하고 운용한다.

출처 :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에서의 한국군 전술』, p. 110.

2. 중대전술기지 편성 및 운용

가. 중대전술기지 편성

중대전술기지는 베트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감제고지 보다는 인구 조밀지역, 생산시설, 교통의 중심지, 중요 교량, 병참선 및 중요 군사·공공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곳에 선정하였다. 즉 고지 자체의 점령은 피·아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었으며, 베트남 작전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표 3-2>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전술기지를 선정하였다.

119)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에서의 한국군 전술』, pp. 109~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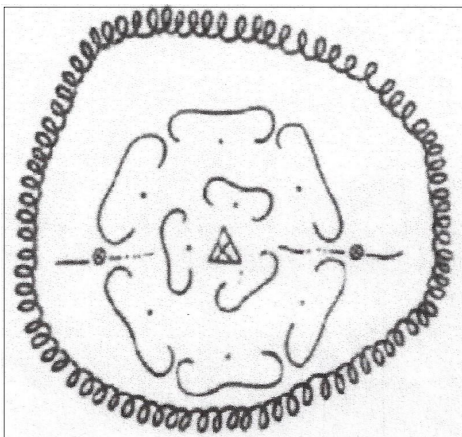
〈표 3-2〉 중대전술기지 위치 선정시 고려사항

- 관측 및 사계, 장애물, 접근로, 중요지형지물 등 전면방어에 유리한 지형
- 충분한 진지 편성 공간 · 포병 지원 거리
- 부대 시설, 주민, 물자 및 자원 등에 이르는 적의 침투와 적의 활동을 봉쇄하기 위한 수색 및 매복과 관측의 용이성
- 인접부대 책임지역에 이르는 침투로를 봉쇄하기 위한 수색 및 매복의 용이성
- 심리전, 대민활동 및 민간 정보망 운용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마을과 근접하되 자체방어시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소한 500m 이상 이격
- 양호한 도로망 및 헬기 착륙장 설치 공간

출처 :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에서의 한국군 전술』, p. 110.

중대전술기지는 적의 활동 중심지를 장악하여 적이 어떠한 방향으로 공격해 오더라도 이를 격퇴할 수 있도록 전면방어 개념으로 편성하였다. 진지는 내곽과 외곽의 이중방어선으로 편성하여 적의 위협이 증가되면 철수하여 중대본부와 같이 내곽진지를 편성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부대배치는 <그림 3-4>와 같으며, 기지의 직경은 중대방어 정면을 고려하여 150m 내외로 하였다. 공용화기진지, 탄약고, 통신, 지휘시설 등은 가능한 한 지상 노출을 피하여 위장하고 적 포격 및 아군 포병의 진내사격에도 버틸수 있는 강도를 유지하였다.

〈그림 3-4〉 중대전술기지 부대 배치와 전경



출처 :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에서 한국군 전술』, p. 111.

중대의 외곽소대는 3개 분대를 전방에 배치하고, 소대장은 소대 정면을 감제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면서 경기관총은 최후저지사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에, M-790 유탄발사기는 사각지대까지 사격이 가능한 지점에 배치하였다.

내곽소대는 방어 중심을 증대하고 외곽에 배치된 소대를 지원하기 용이한 곳에 주진지와 보조진지를 지정해 주었다. 내곽소대는 수색정찰 및 매복, 청음초, 그리고 방어진역 내의 순찰 등으로 경계임무를 수행하였다. 적의 압력이 증가되면 내곽진지에 배치되어 사격으로 전방소대를 지원하며, 적이 진지에 침투시는 이를 저지하며 소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역습에 참가하여 침투한 적을 격멸하였다. 화기소대는 사격지원을 위하여 내곽진지에서 중대장의 지휘하에 대대 화력계획과 협조되도록 하였다.

지휘소 및 관측소는 적의 접근로를 가장 잘 관측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 24시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대장은 통상 기지 내에 하나 이상의 관측소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기복 지형, 바위 등 자연물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별도로 제작하여 설치하였으며, 관측소에는 지원사격을 요청하고 조정할 수 있는 요원을 배치하였다.

장애물은 적의 지상 이동을 지연, 분산, 저지시키기 위하여 기지 편성, 화력계획 등과 밀접히 협조되도록 하면서, 예하부대를 신속히 이동시키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기지 전방에서 돌파를 제한하고 방자에게 유리한 지역으로 적을 유도하도록 계획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중대전술기지는 공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진지를 구축하였으며, 공사 우선순위는 <표 3-3>과 같았다.

<표 3-3> 중대전술기지 공사 우선순위

- | | | | |
|----------------------|-----------|------------|-------------|
| ① 공용화기 임시거치 | ② 사계청소 | ③ 공용화기 진지 | ④ 개인호(2인용호) |
| ⑤ 임시 숙영 준비 | ⑥ 방어용 철조망 | ⑦ 위장 | ⑧ 전술 철조망 |
| ⑨ 기타 장애물(크레모아, 조명지뢰) | ⑩ 교통호 | ⑪ 기타 부수 시설 | |

출처 :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에서의 한국군 전술』, p. 114.

산병호는 개인용 또는 2인용 무개호나 엄체호로부터 5~10m 간격으로 구축하며, 공용화기는 엄체호로부터 20~30m 간격으로 이격시켜 탄약 및 지휘통신 시설과 함께 지상노출을 피하고 적의 포격 및 아군의 진내사격

에도 지탱할 수 있도록 견고한 유개호로 구축하였다. 각 진지에는 실탄을 보관할 수 있는 구덩이를 준비하고, 공용화기 주사격방향과 최후저지선, 수색 경로 등을 고려하여 사계청소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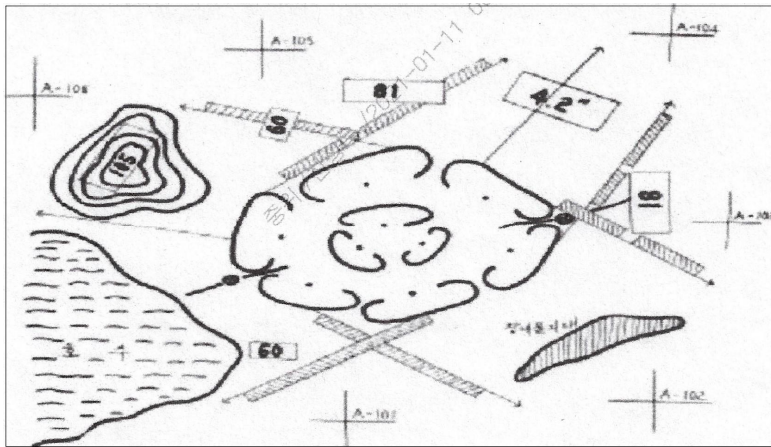
교통호는 갈지자형(之)으로 하여 내곽과 외곽진지의 교통호를 종적으로 연결시켰다. 개인호 및 공용화기 진지는 분대장을 통해서만 내곽으로 갈 수 있도록 연결하고, 매복 활동을 포함한 기지 밖에서의 활동을 위해서 내부와 외부를 통하는 비밀통로를 2개 이상 준비하였다. 취침호는 분대 또는 반개 분대 단위로 개인호 가까이에 위치하며, 분대 취침호의 간격은 1발의 포탄에 2개 이상이 동시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시켜 유개호로 구축하였다. 또한 중대전술기지 내에는 2개 이상의 헬기 착륙장을 방어철조망 내에 설치하였다.

철조망 중 전술철조망은 기관총의 최저표적사격이나 자동소총으로 엄호 되도록 하며, 방호철조망은 주·야간 관측이 가능하도록 부대에 근접하여 설치하되 적의 수류탄 투척으로부터 외곽진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40m 이상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하였다. 보조철조망은 적에게 최후저지사격이 계획된 위치를 기만하고 적을 집중사격지역으로 유도하도록 하였다. 이때 각종 철조망은 이중·삼중으로 설치하여 횡적인 이동을 못하도록 전술철조망과 방호철조망 간에 종적 설치도 고려하였다. 동시에 지형 및 적정을 고려하여 조명지뢰, 대인지뢰, 크레모아, 수류탄 등 기타 폭발물을 이용한 류비츄랩 등을 적의 예상접근로에 불규칙적으로 설치하였다.

나. 중대전술기지 운용

중대전술기지는 전면방어 개념하에 계획과 실시에 있어서 고도의 융통성이 요구되었으며, 소수의 베트공 부대로부터 연대급의 대부대 공격까지도 대비한 진지를 편성하여 포병, 항공, 함포, 헬기 및 지원화력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분대장급 이상은 포병을 포함한 모든 지원화력의 요청능력을 구비하였다. 적의 계속적인 공격으로 외곽기지가 돌파되면, 중대장은 상급부대의 증원 요청과 동시에 내곽에 배치된 소대를 역습에 가담시켜 전방소대의 돌파를 저지하거나 적을 격퇴하였다. 일단 적이 격퇴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의 제파식 공격에 대비하여 전과확대를 위한 기지 외곽으로의 추격작전은 상급부대의 지시에 의거 신중하게 판단하여 실시하였다.

<그림 3-5> 중대전술기지 화력계획



출처 :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에서 한국군 전술』, p. 119.

중대전술기지 운용에서 적을 격멸하기 위한 주요수단은 화력운용에 있었다. 화력계획은 <그림 3-5>와 같이 어떠한 방향에 대해서도 신속히 집중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화력운용을 계획하였다. 중대장은 중대 기지 전면에 탄막을 계획하고 지원 가능한 포병과 중대 자체의 박격포 및 공용화기를 협조시켰다. 각종 화기는 적의 예상접근로 및 통로, 매복지점, 예상집결지, 화기진지, 예상관측소, 최후저지선 뿐만아니라 진내에도 화력을 계획하였다.

주요 화기 중 경기관총은 중요 예상접근로를 통제할 수 있도록 최후저지선과 최저표적사, 측사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57mm 무반동총은 돌현 표적의 출현 가능성이 높은 주요 접근로를 엄호하도록 정 단위로 운용하였다. 60mm 박격포는 분대 단위로 운용하며, 대대 81mm 박격포도 중대기지에 1개 반씩 배속하여 어떠한 방향이든지 사격이 가능하도록 상이한 사격구역과 진지를 준비하였다. 4.2인치 박격포는 최소사거리(840m) 관계로 기지내 운용이 불가하여 인접부대에 협조하여 운용하였다. 106mm 무반동총은 적 부대와 공용화기에 대한 사격과 기지 전방의 접근로 통제를 위해 전방 소대지역에서 정 단위로 운용하였다. 105mm 곡사포는 포대 단위로 분할하여 중대를 지원하였다. 야간조명은 박격포, 포병, 항공기에 의한 효과적인 조명지원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고, 적을 교란하고 적의 활동을 제

한하기 위하여 주·야간 동일하게 요란사격을 계획하여 실시하였다.

경계작전은 야간에 기지병력의 1/3 또는 그 이상을 기지 밖에서 공세적으로 운용하였다. 중대전술기지의 경우 소총 1개 소대 이상의 병력이 수색정찰 및 주·야간 매복을 포함한 경계부대로 운용하였다. 주간에는 병력 절약을 위하여 관측소를 운용하고, 야간에는 각 분대당 1개 이상의 초소를 운용하였다. 또한 외부 경계부대의 활동지역, 매복지점, 이동로, 시간계획, 화력지원계획 등을 외곽선 방어부대와 긴밀히 협조하였다.

각종 보급품은 분대 단위 이하로 개인에까지 분배하여 기지 내에 분산 저장하였다. 식량과 탄약은 5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을 확보하여 적의 연대급 공격에도 48시간 이상 방어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확보하였다.

3. 중대전술기지 성과와 성공 요인

베트남전은 수행부대 규모면에서는 분대급으로부터 군단급 규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작전이 수행되었다. 베트남 파병기간 동안에 한국군 전술책임구역 내 적 활동은 <표 3-4>에서와 같이 7,466건이었으며 이 중 정규전 공격은 1,921건으로 약 26%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은 게릴라전 형태의 활동이었다. 미군은 대대급 이상 부대의 정규전에 중점을 두고 작전을 수행하였지만, 한국군은 게릴라전 위주로 수행되는 베트남전의 특징에 따라 대부대 작전보다는 중대급 이하의 소부대작전이 99.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즉 베트남전에 파병된 한국군의 작전은 중대전술기지 전술을 적용한 중대급 이하 소부대 전투에 중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표 3-4> 한국군 전술책임지역 내 적 활동

구 분	계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계	7,466	74	670	1,562	1,403	1,012	960	941	844
공 격	1,921	16	200	220	241	97	394	450	303
매 복	483	13	65	36	48	26	73	131	91
교 란	1,248	13	100	605	344	186	-	-	-
테 러	1,351	-	1	119	202	219	316	251	243
태 업	634	2	32	120	105	38	121	93	123
선 전	1,084	11	139	275	305	251	-	-	103
대공사격	741	19	133	187	158	151	56	16	21

출처 :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 종합연구』(서울 : 주월사 정리단, 1974), p. 311.

베트남전 기간 동안 한국군은 총 577,477회의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중 대대급이상 부대가 수행한 작전은 <표 3-5>와 같이 주월한국군사령부 차원에서 수행한 군단급 작전 4회를 포함하여 총 1,175회의 작전이 수행되었다.

<표 3-5> 베트남전 대대급 이상 작전 현황

구 분	계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계	1,175	15	63	95	170	216	301	257	58
군단	4	-	-	2	-	-	1	1	-
사·여단	30	-	3	9	7	2	4	4	1
연대	186	2	24	31	48	37	21	15	8
대대	955	13	36	53	115	177	275	237	49

출처 :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 종합연구』, p. 391.

대대급 이상 대부대 작전은 특정지역 또는 지점을 목표로 선정한 후 미군으로부터 지원받은 헬기를 이용해 목표에 직접 착륙하는 수직포위 형태로 수행되었으며, 포병 및 항공기에 의한 공중화력 지원이 필수적이었다. 대부대작전은 대부분 주간에 수행되었고, 사전 지형정찰, 연합작전을 위한 부대간의 사전 협조 등으로 아군의 작전기도가 조기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기습을 달성할 수 없었다. 적은 아군의 기도를 파악하고 작전지역을 사전에 이탈하거나 동굴진지 등을 이용해 잠입해 버림으로써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군은 대부대 작전일수록 작전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술을 구사해야만 하였다.

주월한국군은 대대급 이상 규모의 작전과 병행하여 <표 3-6>과 같이 576,000여 회에 이르는 중대급 이하 소부대작전을 주로 수행하였다.

<표 3-6> 베트남전 중대급 이하 소부대 작전 현황

구분	계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계	576,302	2,206	38,724	73,448	97,007	88,942	102,248	130,294	40,381	3,054
수도	174,586	1,016	23,166	32,471	26,006	28,273	22,289	24,004	16,157	1,204
9사	211,236	-	3,991	28,564	41,959	38,522	35,583	41,887	19,080	1,650
해병	151,347	1,005	10,353	8,447	18,358	13,833	35,907	61,095	2,259	-
군수	25,511	95	1,181	2,690	6,331	4,517	6,950	2,289	1,366	92
건설	13,622	-	31	1,276	4,353	3,797	1,519	1,019	1,519	108

출처 :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 종합연구』, p. 391.

한국군의 중대급이하 작전은 대부대작전과 같이 헬기 및 화력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주둔지 및 기지로부터 비교적 근 거리에 위치한 지역 및 지점을 목표로 선정해 주간에는 수색정찰 위주로 야간에는 매복전투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중대급 이하 작전은 대부대 작전과 달리 은밀한 행동으로 기습달성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중대전술기지 주변 및 요충지에 대한 매복으로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중대전술기지전술을 적용한 한국군의 매복전투는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작전으로 인식되어 통상 중대전술기지를 중심으로 매일 밤 2~3개소의 매복진지를 운용하였다. 따라서 매복전투는 한국군의 가장 핵심적인 작전활동이었으며 이 매복작전의 거점이 중대전술기지였다.

베트남에서 한국군의 작전성과는 게릴라의 습격에 취약한 철도 개통구간에서도 증명될 수 있었다. 채명신 장군은 베트남의 철로 총 482km 중 400km가 한국군 담당지역에서 운행되었던 사실만으로도 완전한 평정을 달성한 상징¹²⁰⁾이라고 언급하였다. 베트남 마을 촌장 밤레오는 “이 마을에서 남베트남군들이 전투를 할 때는 베트공들이 마을을 완전히 점령해 버렸다. 그런데 한국군이 온 다음에 이 마을에서는 베트공이 밀려났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또한 마을에서 1967년 선거 참여율이 100%에 가깝다고 하였다.¹²¹⁾ 이 시기에 대만의 장개석 총통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하여 한국군이 베트남전에서 발전시킨 독자적인 전술교리의 전수를 요청하였고, 1968년 전술교리 전수를 위한 교수단을 대만에 파견하기도 하였다.¹²²⁾

이처럼 한국군의 중대전술기지 전술이 빛나는 성과를 달성한 요인은 먼저, 중대전술기지는 소부대 단위의 작전을 통해 융통성 있는 작전수행이 가능하였다. 소부대 단위로 부대를 운용함으로써 적의 기습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줄일 수 있었고, 특히 융통성 있는 화력운용은 중대 단위의 약한 전투력을 화력으로 보강해 주었다. 둘째, 중대전술기지는 주민과 가까이에서 베트공의 접근을 차단하고, 주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대

120) 최용호,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제 1권, p. 84.

121) 최용호,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제 1권, pp. 152~153.

122) 한국군의 교리 전수를 위한 교수단장에 최영구 준장(초대 주월 맹호사단 참모장), 야간침투작전 강의에 박경석 대령(초대 주월맹호사단 재구 대대장), 중대전술기지 강의에 최병수 중령(초대 주월맹호사단 기갑연대 3대대장)을 대만에 파견하였다. 박경석, “베트남전쟁시 한국군의 전술교리와 작전”, p. 239.

민지원을 실시하여 주민의 지지를 획득하였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을 안정화하고 대민 우호증진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셋째, 중대전술기지는 주민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보호하였고, 대민작전 수행여건을 조성하였다. 이것은 채명신 장군이 대게릴라전에서 대민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중대전술기지는 지속적으로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제 3 절 군사혁신 관점의 평가

1. 베트남전 수행시기 국방목표 : 장비 현대화

베트남 1차 파병된 1964년의 한반도는 북한의 김일성이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공공연히 주장하면서, 북한의 남침위협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던 때였다. 당시 한국군은 1955년까지 미국의 육·해·공군 예산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받아 군사력을 유지하였다. 그 이후 미국이 군사원조를 해외원조자금에서 지원토록 하는 정책전환에 따라 각 군 예산으로부터 대외원조자금으로 출처가 변했지만, 한국군은 1950년대에 2억에서 3억불 수준의 지원이 1964년도에는 1억 4,000만불로 삭감된 미국의 지원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다.¹²³⁾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유엔군에 있었으며, 군 병력은 1954년 한·미간에 합의된 한·미합의사록에 의해 1955년 초까지 72만명을 유지하였고, 1959년까지는 63만명, 1960년에는 72만명 선을 유지하고 있었다.¹²⁴⁾

1960년 기준 한국의 국방비는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당면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민총생산(GNP, 24,669억원)의 6%, 정부재정의 41.8%에 해당하는 예산을 할당하였다. 이와 같은 막대한 정부재정을 사용하면서도 인력유지비(77.2%)와 부대유지비(17.2%)가 전체 국방비의 94.4%를 차지하였고, 전력증강 투자비는 2.3%에 불과한 실정이었으므로 장비 현대화 역시 미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¹²⁵⁾

123)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국방사(1961. 5~1971. 12)』 (1990), pp. 280~281.

124) 국방부, 『국방조직 변천사』 (1992), p. 47.

125)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국방사(1959. 6~1961. 5)』 (1987), p. 436.

박정희 정부는 전투부대의 베트남 파병을 본격화한 1960년대 중반부터 ‘군의 현대화’를 추진하였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후 한국군은 북한의 끊임없는 침략 위협에 대비하여 군사력 증강을 위한 장비 현대화, 정병주의(精兵主義) 구현, 군기확립, 군수지원 강화 등을 국방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¹²⁶⁾ 하지만 장비 현대화와 군사력의 증강, 노후된 장비의 현대화를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은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보장을 받기를 원했으며, 파병을 조건으로 그동안 감소되었던 군사원조의 증액과 장비 현대화를 추구하였다. 장비 현대화는 당시 한국군의 국방목표로써 가장 시급한 상황이었으나 예산상의 제한으로 인해 국가적인 난제였다.

당시 한국군은 무기체계, 조직편성, 군사교리와 같은 요소들을 통합하여 전투수행능력과 전투효과를 창출하는 체계적인 군사력 건설을 추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열악한 한국군의 현실에서 베트남 파병은 현대화된 장비로 무장하여 참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참전을 통하여 장비 현대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베트남전에서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이 어려운 여건에서 새로운 전쟁수행방식의 창안은 한국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2. 독창적인 군사교리 발전 : 중대전술기지

베트남 파병의 조건으로 한·미가 체결한 『브라운 각서』(1965)는 논의 수준에 머물렀던 군사교리 연구를 현실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 한국군은 북한의 침투에 대응한 ‘대간첩작전’ 교리 연구에 주목하고 있었으나,¹²⁷⁾ 파병에 따라 베트남전에서 적용할 ‘독자적 교리 연구’가 군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각서 체결 이후 정부가 군 현대화를 추진함에 따라 육군은 교리 연구의 방법으로 ‘교리발전 기구의 통합’과 ‘주월한국군과 연계한 교리 연구’를 추진하였다.¹²⁸⁾ 이를 위하여 1967년 중순 ‘육군전투발전사령부’를 창설하여 전투발전체계 일원화, 전투발전 자료 종합, 교리발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특히 같은 해 9월에는 주월한국군과 연계한 교리 연구를 목적으로 주월한국군사령부에

126)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국방사(1959. 6~1961. 5)』, p. 69.

127) 김홍한, “군사교범 발간제도의 개선책”, 『군사평론』 39(육군대학, 1963), p. 2.

128) 이효경, “육군 교리발전 체계의 개선”, 『군사평론』 50(육군대학, 1964), pp. 31~51.

‘전투발전부’를 설치함¹²⁹⁾으로써, 한국군은 주월한국군과 연계한 독자적인 교리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군의 교리 연구는 채명신 장군의 주월한국군사령부 주도하에 진행되었으며, 내용면에서는 채명신 장군의 게릴라전 수행 경험뿐만 아니라 미군과 연계한 교리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주월한국군사령부의 교리연구는 채명신 장군의 경험과 소신이 크게 작용하였다. 채명신 장군은 월남 도착과 함께 첫 작전회의에서 ‘한국군 독자적 전술교리의 발굴’을 강조하였다.¹³⁰⁾ 채명신 장군은 1948년 4월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제주 4·3사건을 진압중인 제 9연대의 소대장으로 부임하면서 소규모 유격전 및 게릴라전을 수행하였다. 6·25전쟁시에는 송악산 전투시 중대장, 태백산지구 전투 시 대게릴라전을 수행하였고, 유격대인 백골병단장으로서 북한군으로 위장하여 후방에 침투하여 적진을 교란하는 게릴라전을 수행하였다. 즉 북한의 비정규전부대, 게릴라들을 토벌하였던 대게릴라전과 6·25 전쟁 시 게릴라전을 수행한 경험으로부터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겪는 근본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미군의 대응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¹³¹⁾

채명신 장군은 베트남전 6·25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작전환경과 베트남의 전략·전술을 치밀하게 연구하여 미군과는 다른 새로운 대게릴라전 개념을 발전시켰다. 주월한국군사령부는 주월한국군이 수행해야 할 임무와 작전이 새로운 형태의 작전임을 명확히 하고, 전투부대 파병 초기부터 독자적인 교리 연구에 전념하면서 예하부대에 ‘전투와 연계한 교리 연구에 노력할 것’¹³²⁾을 강조하였다.

또한, 주월한국군은 작전부대를 활용하여 미군과 연계한 교리 연구를 시도하여 한국군의 상황에 맞는 교리를 발전시켰다. 파병부대의 중령급 이상 지휘관의 대부분은 ‘교리 연구와 관련된 직위’에 근무한 경험이 있고, ‘미군의 교리를 직접 배운’ 미국 유학장교들을 다수 선발하였다.¹³³⁾ 그 중 육군대학 교관 출신들은 그동안 강의 내용이 모두 미군의

129) 육군본부, 『육군조직 발전사』(1997), p. 195.

130) 박경석, “베트남전쟁시 한국군의 전술교리와 작전”, p. 169.

131) 채명신, 『베트남 전쟁과 나』, pp. 29~33.

132)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 종합 연구』, p. 59.

133) 파병부대 지휘관 중 채명신 소장, 김정운 대령(1연대장), 신현수 대령(기갑연대장), 김용진·박경석·박한영·배정도·이필조·최병수 중령(대대장)은 모두 6·25 전쟁을 경험하고

교리였기 때문에 한국군의 상황에 맞는 교리 발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고, 미국 유학장교들 또한 미군의 비정규전 교리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한국군 교리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군에 필요한 교리를 연구할 수 있었다. 채명신 장군 또한 미국 육군지휘참모대학에서 유학한 경험으로 미군 교리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미군 교리가 한국군의 체질과 관습, 정신적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표 3-7〉 미군의 비정규전 교리와 주월한국군 교리 비교

구분	미군의 비정규전(1963)	주월 한국군 교리(1967)
경찰형 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통제를 위한 중요지점 거점 설치 민간 폭동진압, 동조자 제거를 위한 경찰활동(검문, 감시, 체포, 심문, 공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정지역 중심에 중대전술기지 설치 베트공 색출을 위한 경찰 활동 -감시, 검문, 체포, 심문, 가족·친지 포섭 경찰·기관·민병대와 협조한 베트공 색출
군사 작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찰을 통한 첩보수집, 적 접촉유지 대규모 군사작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색·매복을 통한 베트공 소탕 베트공 근거지 항공기, 포병 공격 현지인을 활용한 베트공 근거지 탐지 베트공 근거지 정찰, 도주로 차단 및 격멸
민사 작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개선을 통한 동조자 색출, 제거 심리전과 대민자원을 통한 첩보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親韓 우호의식 고취 활동 -태권도, 학교, 대민지원 지역민 적대의식 고취 위한 선전활동 -라디오, TV, 전단, 확성기 등 평정지역, 동조지역에 대한 심리전

출처 : 육군대학, 『작전요무령』(1963), pp. 172~193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에서의 한국군 전술』, pp. 12~38, 93~134.

주월한국군의 대개릴라전 교리는 많은 부분 미군의 비정규전 교리를 참고하여 한국군의 특성에 맞도록 발전시켰다. 그 특징은 첫째 소규모로 중대전술기지를 점령하고 거점을 중심으로 인근 마을의 베트공을 색출하는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는 대대급 이상이 작전을 수행하는 미군과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미군의 대반란전 교리가 제시한 경찰형 임무수행 방법과 유사하다. 둘째, 한국군은 베트공에 대한 첩보수집과 현지인의 우호의식 고취를 위한 민사심리전을 수행하였다. 한국군은 학교를 설치하거나

미 보병학교를 이수하였다. 당시 한국군은 미군 교리를 번역하여 육군대학 등에서 교육하였는데, 특히 대대장 6명은 육군대학 교관으로서 한국군 장교들에게 미군 교리를 교육하였다. 채명신, 『베트남 전쟁과 나』, pp. 100~105.

태권도를 지도하고, 농사를 위한 대민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평정지역의 주민뿐만 아니라 적 동조지역의 주민 및 군인들을 대상으로도 심리전을 실시하였다. 동시에 주민과 접촉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베트남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셋째, 한국군은 베트공 색출을 위해 주간에 마을 주변을 수색하고 야간에 마을 일대에서 매복작전을 실시하여 베트공의 민간인 지역 출입을 차단하였다.

이렇듯 중대전술기지 전술은 현대적 의미에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독창적인 군사교리였다. 중대전술기지는 채명신 장군이 6·25전쟁 참전 경험과 모택동의 게릴라전뿐만 아니라, 미군의 비정규전 교리까지 연구하여 한국군의 특성과 베트남의 전장실상에 부합되도록 발전시킨 군사교리였다.

중대전술기지 전술은 중공의 모택동 혁명이론을 교리로 삼고, 그의 게릴라전법을 사용하는 베트공의 근거지를 소탕하는데 역점을 둔 것이었다. 이는 공격과 방어 및 민사심리전의 핵이 되는 기본단위 기지로서 주월한국군의 자주적 전술개념으로 정착되었다. 중대전술기지는 베트공과 주민을 분리시켜 게릴라의 온상을 파괴하는 한편 베트공의 활동 범위를 축소시킨 후, 고립되고 약화된 적을 먼저 공격하되 상대적으로 우세한 병력과 화력을 투입하여 격멸하는 개념이었다.¹³⁴⁾

3. 전쟁수행방식의 혁신

중대전술기지는 베트남전쟁의 정규전과 비정규전 모두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군의 독특한 작전개념¹³⁵⁾으로써 대게릴라전의 수행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었다. 중대전술기지는 전면방어와 함께 이를 거점으로 한 매복 및 수색작전을 통하여 야간을 지배함으로써 양민과 게릴라를 분리시키고 민사심리전을 통하여 작전의 성공 여건을 보장하였다. 그리고, 적을 약화시켜 압도적으로 우세한 병력, 화력 및 기동으로 적을 완전 포위, 섬멸하고 점차적으로 평정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한국군의 독창적인 전쟁수행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 대륙을 석권할 수 있었던 모택동의 게릴라전법이 베트남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믿어왔던 적들은 한국군의 참전으로 인하여 그들의 전략·전술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크게 당황

134) 박경석, “베트남전쟁시 한국군의 전술교리와 작전”, p. 172.

135) 심호섭, “주월한국군의 중대전술기지 운용이 지닌 이상과 현실-두코 전투(1966)를 중심으로-”, 『軍史』 제 120호(2021), p. 122.

하였다.¹³⁶⁾

미군은 중대 단위 규모의 기지로써는 적의 공격을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격으로 전환 시 집중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었다. 미군은 대량 지원과 한국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조직과 장비를 갖춘 부대를 전제로 비교해 볼 때 1개 중대가 적의 공격을 48시간 이상 버틴다는 논리는 생각조차 못 할 일이었다. 미군은 대대 단위 기지 편성을 권유하였지만 채명신 장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군의 군사전문가들조차 베트남의 험준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배치된 중대 단위 기지가 베트공에 의해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단하고 있었다. 미군의 대대 단위 또는 연대 단위 기지마저도 종종 베트공의 야간 기습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모든 전술책임지역 내에 중대전술기지가 베트공의 기습을 받고 있었으나 한번도 참담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지 않은 승전보가 사이공의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었다.

채명신 장군은 세계 어느 군사교리에도 없는 개념을 적용하여 독창적인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중대전술기지의 효용성은 첫째, 주민과 적을 분리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 물과 고기를 분리시키는 개념처럼 중대전술기지는 각 전술지역에 중대 단위로 분산시킴으로써 대민접촉이 빈번해져 정보수집이 용이하였다. 따라서 작전시 정확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많은 전과를 올리는 한편 평정지역의 확장에도 유리하였다. 둘째, 베트남인들이 한국군을 이해하도록 하여 미군과는 달리 ‘따이한’이라는 애칭으로 불려지면서 심리전 수행에 도움을 주었다. 한국군은 정치적인 전쟁의 성격을 이해하고, 적의 섬멸보다는 귀순을 유도하여 훗날 상호 원한관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도하에 작전에 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적이 일단 공격을 가해오면 강력한 응징으로 적의 기도를 분쇄하였다. 셋째, 중대전술기지는 아군의 피해를 결정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적의 입장에서는 공격할 결정적인 목표 선정을 어렵게 하였고, 중대별로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군에 대한 공격에 필요 이상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였다.

당시 주월한국군사령부는 한국에서와같이 미군의 지휘를 받은 군대가 아니라 한국군의 자주적 위상을 높이며 긍지를 갖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후에는 각개전투에서 분대, 소대, 중대전투 그리고 특수작전에 이르

136) 육군본부, 『월남전의 전례, 전훈 종합집』 제 1집(1970), p. 1.

기까지 미국식 교리에 의존하지 않고 새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계기가 중대전술기지 개념으로부터 태동하였다.¹³⁷⁾

베트남전시 한국군의 중대전술기지는 열악한 장비와 조직편성의 한계 속에서도 독창적인 군사교리를 발전시켜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전쟁은 무기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어려운 한국군의 상황에서 새로운 무기체계의 도입보다는 새로운 군사교리의 발전을 통하여 무기체계와 조직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새로운 게릴라전 수행방식을 창출하여 베트남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군사혁신의 관점에서 볼 때 무기체계, 군사교리, 조직편성 중 중대전술기지라는 군사교리가 주도하여 베트남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당시 한국군은 변변한 무기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미군의 지원에 의존하였고, 조직편성은 새로운 편성을 만들기보다는 주월한국군사령부가 중대전술기지 전술에 따라 중대 단위로 분산 운용하였다. 한국군의 중대전술기지는 베트남전을 수행하는 새로운 게릴라전 수행방식을 창출하여 성공적으로 전쟁을 수행하였다.

중대전술기지는 군사교리의 발전이며 군사혁신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 국방대학교의 설리반(Brain J. Sullivan) 교수는 1930~1970년間に 제 3세계 국가들이 발전시킨 ‘인민전쟁’ (people’s war)과 ‘게릴라 전쟁’ (guerrilla war)을 후진군대가 선진군대와 대적하여 ‘비대칭적’ 전쟁수행방식을 고안한 군사혁신으로 포함시켰다.¹³⁸⁾ 중대전술기지는 단순히 최대한의 성과를 얻기 위한 전술로 운용된 것만은 아니었다. 여기에는 파병을 통한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려는 정부의 목표에 따라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면서 참전의 명분과 실리를 모두 확보하기 위한 주월한국군의 이면적인 목표가 있었다.¹³⁹⁾ 당시 국방목표인 장비현대화는 오늘날 군사혁신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새로운 무기체계의 도입이 어려운 여건에서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전쟁수행방식을 창안하여 성공적으로 베트남전을 수행하였다. 특히, 한국군은 분·소대 단위의 매복과 수색정찰 등

137) 박경석, “베트남전쟁시 한국군의 전술교리와 작전”, pp. 176~177.

138) Brian R. Sullivan “What Distinguishes a RMA from MTR?” /NSS, 1996(미발표 논문), 권태영·노훈, 『21세기 군사혁신과 미래전』, p. 68에서 재인용.

139) 심호섭, “주월한국군의 중대전술기지 운용이 지닌 이상과 현실”, p. 123.

소부대 전투능력 속달로 귀국 후 155마일에 걸친 DMZ작전과 철책선 경계 등의 방어능력 향상에도 기여하였다.¹⁴⁰⁾

군사혁신은 ‘상대방이 기존의 수단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다른 차원의 군사력을 창출해 내는 것’으로, ‘군사적 효과성에 대한 변화의 급격한 규모’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베트남전에서 중대전술기지는 전쟁수행방식의 혁신을 가져온 것으로 군사혁신의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

중대전술기지는 새로운 무기체계의 개발 없이 군사교리의 발전만으로 혁신적인 전쟁수행방식을 만들어냄으로써 군사교리가 군사혁신의 성공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960년대 한국군이 국방예산이 부족한 상황하에서 중대전술기지라는 독창적인 군사교리를 발전시켜 베트남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는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군에게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기술혁신 관점의 군사혁신은 첨단무기체계의 개발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수반할 수밖에 없지만, 군사교리가 주도하는 군사혁신은 예산과 노력의 낭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새로운 전쟁수행방식을 창출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40) 채명신 외 공저,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서문.

제 4 장 걸프전과 군사혁신

제 1 절 미국의 걸프전 수행

1. 전쟁의 배경

걸프전 당시의 중동지역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3대륙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세계열강들의 세력 진출의 각축장이었다. 미국에게는 소련의 남진정책을 봉쇄하고 인도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거점이었고, 소련은 남부 국경의 보호와 인도양 및 아프리카로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여겨졌으며, 영국과 프랑스 또한 해상수송로 확보 및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으로 진출의 발판이 되는 곳이었다. 중동지역은 세계 석유자원의 70%가 매장되어 있는 석유자원의 보고로서 원유의 안정적 공급문제는 세계 경제의 주요한 영향요소로 작용하여 열강의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¹⁴¹⁾

중동지역은 역사적으로 식민지 지배의 아픈 경험과 분할 지배 및 임의의 국경선 책정으로 국경분쟁의 요인이 내포되는 등 서구 열강에 대한 아랍민족의 저항의식이 잠재되어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상이한 정치체제로 국가간의 갈등이 상존하고 정치적 후진성¹⁴²⁾을 갖고 있었으며, 사회적으로는 종교적·인종적 반목과 갈등으로 인해 첨예한 대립과 사회문화적 동질성이 결여되어 국민적 통합 달성이 곤란하였다. 당시 국제질서는 소련의 개혁·개방, 동구권의 민주화 등으로 인한 탈 이데올로기로 자국의 실리추구와 세계질서가 다극화, 다원화되고 있었다.¹⁴³⁾ 특히 중동지역은 시리아와 이집트의 화해, 사우디아라비아의 군비증강과 외교 다변화로 지역 내 영향력이 증대되고, 이라크의 지역 내 군사대국화로 이스라엘과 관계가 악화되는 등 지역 내 역학관계가 변화되고 있었다.¹⁴⁴⁾

141) 육군본부, 『걸프전 분석』(육군본부, 1991), p. 11.

142)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정체제, 이라크와 시리아는 사회주의 정당하 1당 독재체제, 이란은 권위주의적 회교 혁명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라크의 독재체제는 국민의 전쟁 동원이 용이하였다.

143) 1989년 동유럽 혁명이 발발하였고, 같은 해 12월 3일 몰타회담에서 냉전종식이 선언되었다. 몰타회담(Malta Summit)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1989년 12월 2일과 3일 지중해 몰타에서 가진 정상회담으로, 두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동서가 냉전체제에서 새로운 협력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선언하면서 냉전의 종식을 선언하였다.

144) 육군본부, 『걸프전 분석』, pp. 12~13.

한편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1980년대부터 1990년까지 막대한 국방비¹⁴⁵⁾를 투입하여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함께 소련으로부터 군사무기를 수입하는 등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증강해 왔다.

걸프전의 근원적인 배경은 1980년 발발한 이란·이라크 전쟁¹⁴⁶⁾에서 찾을 수 있다. 1961년 쿠웨이트가 영국 보호령에서 독립된 이래 이라크가 쿠웨이트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라크와 쿠웨이트 간의 국경분쟁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80년 9월 22일 이란·이라크전이 발발하였고 이 전쟁의 장기화로 1988년 8월 22일 휴전하기까지 8년간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라크는 아랍 인접국에 갇아야 할 빚이 1천억 달러에 달했다.

종전 후 이라크는 석유수출 대금으로 부채를 갚아나갈 예정이었으나 1990년 세계 경제의 불황으로 에너지 소비 감소와 산유국 간의 시장 점유 경쟁으로 석유 공급이 수요를 웃도는 상황이 되었고, 쿠웨이트를 포함한 인접국가들도 석유생산 감산 요청에 동조하지 않아 이라크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또한 이라크는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쿠웨이트에 진 빚 중 100억 달러의 탕감을 요구하였으나, 쿠웨이트는 이를 거부하고 더욱이 영유권 다툼을 벌여왔던 국경지대의 「루메일라」 유전에서 OPEC 협정을 무시하고 산유량을 증산하기만 하는 등 원유 과잉공급과 관련한 갈등이 증대되었다. 이로 인해 원유가격이 점차 하락하면서 이라크는 쿠웨이트를 응징한다는 구실로 1990년 8월 2일 무력침공을 강행하였다.¹⁴⁷⁾

이라크는 공화국수비대 3개 사단 등 7개 사단 30만 대군을 이끌고 쿠웨이트를 침공하여 2만여 명의 쿠웨이트 군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고 3시간 만에 쿠웨이트 수도인 쿠웨이트시에 진입하였으며, 쿠웨이트 국왕은 사우디아라비아로 피신하였다. 이라크군은 2일 만에 쿠웨이트 전 지역을 점령하였다. 당시 이라크가 내세운 침략의 이유는 쿠웨이트가 자신들의 석유를 몰래 채취하고 있고, 19세기 제국주의의 유럽 열강국들이 본래의 이라크 영토인 쿠웨이트를 분리해 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UN안

145) 이라크 정부는 연간 129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투입하였는데, 이는 1인당 국민소득 1,950달러 중 712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국민소득의 37%를 국방비에 투입하였다.

146) 이란-이라크전은 1980년 9월 22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새트알아랍강의 획득과 이란의 혁명 정권 타도를 목표로 이란에 선전포고 없이 침공하면서 발생하였으나, 전쟁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이란에게 격퇴당하였다. UN 안보리의 휴전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는 1988년 8월 20일까지 백만여 명의 사상자를 내며 전쟁을 지속하였다.

147) 육군본부, 『20세기 전쟁양상-제1차 세계대전에서 걸프전까지-』(육군본부, 2002), p. 402.

보리는 이라크의 철수를 요구하며 경제봉쇄 등 제재를 가하였지만, 이라크는 오히려 쿠웨이트를 이라크 영토에 편입한다고 일방적인 합병을 선언하였다.

2. 전쟁경과와 특징

걸프전은 크게 보면 2단계로 시행되었다. 1단계는 전쟁준비 단계인 ‘사막의 방패’ (Desert Shield) 작전으로 1990년 8월 2일부터 1991년 1월 1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의 방어와 미군과 다국적군의 배치가 이루어진 단계이다. 2단계인 ‘사막의 폭풍’ (Desert Storm) 작전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이 1991년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43일간에 걸쳐 수행한 쿠웨이트 탈환단계 작전이다.

미국은 1990년 8월 2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마자 즉각 ‘사막의 방패’ (Desert Shield) 작전이라 명명하고 우방국들과 함께 다국적군을 편성하여 쿠웨이트 해방을 위한 군사작전을 개시하였다. ‘사막의 방패’ 작전은 5개월 반 기간에 걸쳐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서 이라크의 확전을 방지하고, 해상봉쇄작전, 지상군 병력과 장비, 군수물자 수송 및 배치가 이루어진 작전이다. 당시 미군은 과거 소련과 이란을 가상의 적으로 삼아 1983년 1월 중부사령부를 창설하여 탄약, 연료 등의 군수물자를 비축하고 우발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를 근간으로 하여 부대를 전개시키기 시작하였다.¹⁴⁸⁾ 미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6척의 항공모함, 46만 명의 병력, 1,300여 대의 최신예 전투기를 배치하였고, 미국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던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프랑스, 이집트 등 주요국가들도 다국적군에 합류하였다.¹⁴⁹⁾ 이처럼 연합군 편성이 완료되자 강력한 종심 방어, 사우디아라비아 페르시아만 해안을 통한 측방통제, 제공권의 확보가 가능하였다.

당시 미국, 프랑스, 소련 등은 정치적으로 UN을 통하여 이라크군의 쿠

148) 합동군사대학교, 『세계전쟁사(하)』 (육군대학, 2015), p.10-303-102.

149) 1990년 10월 30일 부시 미 대통령은 베이커(Baker), 체니(Cheney), 파월(Powell) 등과 회합을 통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방어를 목표로 하는 사막의 방패 작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쿠웨이트 탈환을 위한 전투력 증강을 결심한 후 11월 말까지 다국적군의 육군 병력은 40만 명에 달하였다. Lawrence Freedman and Efraim Karsh, *The Conflict 1990-1991 : Diplomacy and War in the New World Order*(Princeton,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pp. 204~207.

웨이트 침공 규탄과 철수를 요구하고, 경제제재 등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UN은 11월 29일 UN안보리 결의안 제 678호를 통해 당시 이라크 침공에 대한 유엔결의안¹⁵⁰⁾의 이행을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의 사용을 인정함으로써 전쟁수행을 위한 무력사용을 허용하였다.

1990년 10월 30일 부시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미 중부군사령부(사령관 슈워츠코프 대장)는 이라크 공격작전을 ‘사막의 폭풍’ (Desert Storm) 작전으로 명명하고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준비하였다. 슈워츠코프는 미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육·해·공군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유기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하되, 특히 지상군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초전에 공군력을 대량 투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사막의 폭풍작전은 쿠웨이트 내의 이라크군 축출 및 쿠웨이트 정부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적 중심에 초점을 둔 전략공군 작전과 협조된 다국적 공군, 해군 및 지상군의 다축선 공격을 작전개념으로 설정하였다. 당시 중부군사령관의 작전개념은 <표 4-1>과 같았다.

<표 4-1> 중부군사령관의 작전개념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조된 다국적 공군, 해군 및 지상군의 다축선 공격 2. 적 중심부에 초점을 둔 전략공군작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이라크 국가 지도부, 나. 화생방전 능력, 다. 공화국수비대사령부 3. 다음에 대한 공중작전 전환과 쿠웨이트 전구 내 지상작전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쿠웨이트 전구 고립과 이라크 보급선 차단, 나. 공화국수비대 격멸 다. 아랍군으로 쿠웨이트시 해방 |
|--|

출처 : 미 국방부 저, 국방군사연구소 역, 『걸프전쟁』, p. 173.

사막의 폭풍작전은 크게 보면 개전초 공군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공중작전단계와 이후 본격적인 지상작전단계로 구분될 수 있으나 모두 4단계로 시행되었다. 1단계는 전략공군작전 단계로써 항공력을 이용하여 이라크 전쟁지휘체계와 정보체계, 주요 공업시설을 마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2단계는 쿠웨이트 전구에서 제공권 획득 단계로 비행장, 대공미사일 체계, 조기경보 레이더를 포함한 적의 방공망을 제거하였다. 3단계는 전

150) 유엔은 이라크 침공이 발발하자 유엔결의안 660호를 선포하여 ‘모든 이라크군이 쿠웨이트로부터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그리고 조건 없이 철수하도록 만들 것’을 결의하였다. 이후 10회에 걸쳐 추가 결의안을 통해 경제제재, 쿠웨이트 합병 무효, 외국인 석방 등을 요구하였다.

장준비 단계로 남부로 연결되는 이라크군의 병참선을 차단하여 쿠웨이트에 투입된 이라크 공화국수비대와 정규군을 고립시키는 것으로 이 단계까지는 주로 공군력에 의존하는 전략적인 폭격단계에 해당된다. 4단계는 공중작전에 의한 여건조성 후 공세적인 지상작전을 수행하는 단계이다.¹⁵¹⁾

사막의 폭풍작전 1단계인 전략폭격단계에서 다국적 공군의 우선적인 타격목표는 이라크 지휘시설, 통신체계, 방공관제센터 등 전략방공체계와 비행장, 화생방 무기 생산 및 저장 시설, 해군과 항만시설, 정유시설, 철도와 교량, 병력과 군수품 저장소 등이었다. H-Hour인 1월 17일 03:00 이전에 제 101공정사단과 미 특전사령부에 소속된 아파치 헬기 8대가 이라크의 서부 깊숙이 공격하여 헬파이어 미사일로 이라크 조기경보 레이더기지를 파괴하였다. 곧이어 H-Hour 수 분 전에 미 공군 스텔스 전투기들은 이라크 남부지역에 위치한 지하 방공통제센터를 파괴하였다. 최초의 24시간 동안 다국적 공군은 1,300회의 출격을 단행하였고, 해군은 106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하였다.¹⁵²⁾ 그리하여 초기에 완벽한 공중우세를 달성하고 전략시설 파괴로 이라크의 전쟁수행 능력을 무력화시켰다. 1월 27일 슈와츠코프 사령관은 이라크 공군이 전투능력을 상실하였으며, 다국적군이 제공권을 장악하였다고 발표함으로써 1단계 작전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제 2단계 작전은 다국적군 항공기에 위협이 되는 쿠웨이트 전구 내 이라크의 지대공미사일(SAM) 체계와 대구경 대공포(AAA) 등 방공전력을 제압하기 위한 적방공망제압(SEAD) 작전과 이와 연계되어 있는 지휘 및 통제시설들을 파괴하였다. 전자전 항공기들은 능동적 전파방해장치, 수동적 위치탐지장치 및 고속 대전파방해 미사일 등으로 전자전(EW) 등을 실시하여 공중우세를 확대하고, 전폭기들은 쿠웨이트 전구 내 적 포병과 전차 및 병력에 대한 직접공격도 병행하였다.¹⁵³⁾

제 3단계 작전은 지상작전으로 전환을 위하여 이라크군 기갑부대, 보병부대, 포병부대와 지휘 및 통제시설 등을 무력화시켜 지상공격간 전투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여건을 조성하였다. 이때 참호 속에 은신해 있는 이라크 공화국수비대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5,600여 회에 걸친 출격으로 지상

151) 미 국방부 저, 국방군사연구소 역, 『걸프전쟁』 (서울 : 군인공제회, 1992), pp. 174~175.

152) 합동군사대학교, 『세계전쟁사(하)』, pp.10-303-116~117.

153) 미 국방부 저, 국방군사연구소 역, 『걸프전쟁』, p. 204.

작전이 개시되기 전에 이라크 지상군 전투력이 50% 정도 감소된 것으로 평가되었다.¹⁵⁴⁾ 또한, 이라크의 보급기지 및 탄약고, 교통시설, 도로 등에 대한 공중공격으로 전구 내 병참지원체계를 차단하는 등 전과를 확대하였다.

1~3단계 공중작전시 이라크군은 先 수세 後 공세작전으로 전환을 목표로 내선작전에서 원심적 전력 운용을 구상하였다. 이라크군은 초기 전투력 보존을 위해 항공기는 엄체호에 대피하고 위장과 소산 하에 다국적군의 오폭을 유도하고 방공작전에 의한 다국적군 항공공격을 분쇄한 이후에 기습적인 반격작전으로 각개격파를 구상하였으나, 초기 제공권 피탈 및 항공전력 열세로 작전에 실패하였다.¹⁵⁵⁾

38일간의 공중작전에서 다국적군은 이라크 대공방어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제공권을 확보하였으며, 이라크의 지휘통제체계를 무력화하여 쿠웨이트를 전구 내에 고립시켰다. 이와같이 공중공격이 진행되는 동안 지상군은 주공을 서부에 배치하는 전투대형으로 전개하기 위한 부대이동 작전인 ‘헤일 메리’ (Hail Mary)¹⁵⁶⁾ 기동작전을 개시하였다. 대규모 기동을 은폐하기 위하여 쿠웨이트 해상에서 해병상륙작전 연습과 쿠웨이트 국경에서 정찰활동을 병행하는 가운데, 1월 17일부터 전선의 서측으로부터 걸프만 해안에 이르기까지 제 18공정군단, 제 7군단, 북부합동전력사령부, 제 1해병원정군, 동부합동군사령부 순으로 20만 명의 병력과 65,000여 대의 기갑 및 지원 차량, 수천 톤의 장비, 60일분의 보급품을 이동하여 2월 16일에 서쪽 아우디아라비아 라파(Rafha)에서 페르시아만까지 300마일의 전면에 전개를 완료하였다.¹⁵⁷⁾ 이리하여 지상작전으로 전환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당시 이라크군은 선 수세 후 공세로 전환하며, 소련군의 전술 교리에 따라 진지방어에 의한 지구전을 구상하였다¹⁵⁸⁾. 하지만 다국적군의 효과적인 기만작전으로 다국적군의 주공방향을 탐지하지 못하고 쿠웨이트 방어에 주력하였다. 또한 다국적군의 항공작전으로 전방부대의 전투력은

154) Recharad P. Hallion 저, 백문현·권영근 역, 『현대전의 알파와 오메가』 (서울 : 연경문화사, 2001), p. 348.

155) 육군본부, 『걸프전 분석』, p. 24.

156) 미식축구에서 마지막 공격단계에 선수들을 한곳으로 모아 놓고 쿼터백이 장거리 패스로 점수를 내는 전술(Hail Mary Play)에서 착안하여 Hail Mary 작전이라 명명하였다.

157) 합동군사대학교, 『세계전쟁사(하)』, p.10-303-121.

158) 육군본부, 『GULF 전쟁 분석』 (1991), p. 24.

50% 이하로 감소되었고, 병참선의 차단으로 보급이 제한되었으며 사기 또한 크게 저하된 상태였다.¹⁵⁹⁾

〈표 4-2〉 사막의 폭풍작전시 지상군 편성

구분	주공(서측, 사우디아라비아)		조공(동측, 쿠웨이트)		
	서	동	서	중앙	동
주요 부대	18공정군단	7군단	북부합동군 (아랍군)	1해병 원정군	동부합동군 (아랍군)
예하 부대	미국 24기보사단 82공정사단 101공정사단 3기갑수색소대 프랑스 6경기갑사단	미국 1기병사단 1기갑사단 3기갑사단 1기보사단 2기갑수색연대 영국 1기갑사단	사우디아라비아 20기보여단 이집트 3기보사단 4기갑사단 시리아 9기갑사단 특공연대 쿠웨이트 15보병여단 35기보여단	미국 1해병사단 2해병사단 2기갑사단의 1기갑여단	사우디아라비아 8기보여단 10기보여단 카타르 기보대대

출처 : 합동군사대학교, 『세계전쟁사(하)』, p.10-303-119.

사막의 폭풍작전의 최종단계인 4단계 지상작전의 목표는 쿠웨이트로부터 이라크군을 축출하고, 쿠웨이트 전구에서 이라크 공화국수비대를 격멸시키며, 쿠웨이트의 합법적인 정부 수립을 지원하는 것이었다.¹⁶⁰⁾ 이를 위한 작전개념은 해상에서 미해병상륙부대가 양동·기만작전을 실시하는 동안 조공인 북부 및 동부합동전력사령부 예하부대들이 먼저 공격하고, 주공인 제 18공정군단과 제 7군단이 이라크 후방으로 대규모 우회기동을 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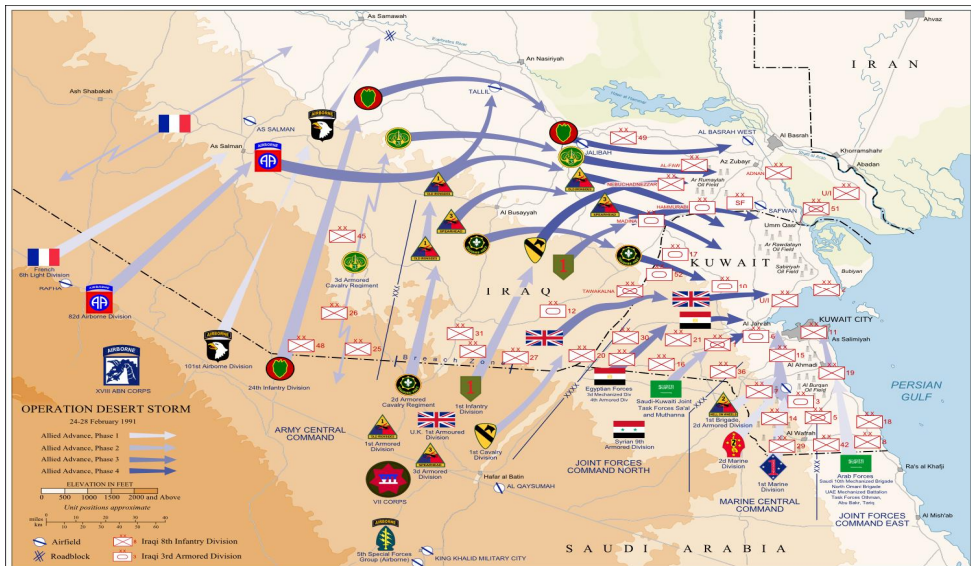
지상작전은 180일 이상의 해상작전과 38일간의 공중작전을 실시한 후인 2월 24일 04:00에 전면공격을 개시하였다. 페르시아만에서 해병부대가 양동 및 기만작전을 전개하여 이라크군 10여개 사단을 해안지역에 고착하고, 조공인 북부 및 동부합동전력사령부 예하부대들은 동부지역에서 이라크 방어선을 돌파하여 쿠웨이트로 진입하였다. 주공인 제 18공정군단과 제 7군단은 이라크군을 포위하기 위하여 후방지역으로 대규모 우회기동을 실시하였다. M1A1 전차 등으로 무장된 제 18공정군단은 외부 포위망으로

159) 육군사관학교, 『세계전쟁사』 (서울 : 일신사, 1996), p. 540.

160) 미 국방부 저, 국방군사연구소 역, 『걸프전쟁』, p. 470.

병참선을 차단하고 바그다드 측방을 방호하며, 7군단은 내부 포위망으로 기갑사단을 이끌고 이라크 공화국수비대를 격멸하였다. 24일 저녁에는 서측의 제 18공정군단 예하 프랑스 6기갑사단과 82공정사단이 90마일을 진격하여 아스 살만(As Salman) 비행장을 점령하였고, 24기보사단은 이라크 북부로 깊숙이 진격하여 101공정사단과 연결을 시도하였다.

< 그림 4-1> 사막의 폭풍작전시 단계별 진격도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EA%B1%B8%ED%94%84_%EC%A0%84%EC%9F%81(검색일 : 2021. 6. 18)

2월 25일에 동부지역인 쿠웨이트에서는 이라크군의 전열이 와해되기 시작하는 가운데, 제 18공정군단이 유프라테스강을 향하여 진격함으로써 적 병참선을 차단하고, 24기보사단은 200마일 이상을 진격하여 유프라테스강 계곡에 도착하여 101공정사단과 연결하였다. 제 7군단은 쿠웨이트 국경선으로 우회기동하여 선두 3기갑사단이 바스라 서쪽 50마일 지점에서 퇴각하는 이라크 함무라비 기갑사단과 조우하여 A-10 전투기, AH-64 공격헬기 지원하에 이라크군을 궤멸시켰다.

2월 26일 3일 차에 접어들면서 포위된 이라크군 주력들이 전 전선에서 급속히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제 18공정군단이 퇴로를 차단하고 제 7군단은 서쪽에서 포위망을 압축하는 가운데, 조공지역인 동측에서는 쿠웨이트의 남부를 장악하였다. 2월 27일에는 제 18공정군단은 서쪽 이라크군의

반격에 대비하면서 제 7군단은 유프라테스강까지 진격하여 이라크군에 대한 포위망을 형성하고 동남부에서는 쿠웨이트를 완전탈환하게 되자, 부시 대통령은 쿠웨이트의 해방을 선언하였다. 다음날인 2월 28일 10:00에 부시 대통령이 다국적군에게 전투중지 명령을 내림으로써 43일간에 걸친 걸프전쟁이 종료되었다.¹⁶¹⁾

전쟁결과 이라크군은 전사자 10만 명, 부상자 30만 명에 비하여 다국적군은 전사자 225명, 부상자 1,297명이라는 경이적인 전과를 달성하고 전쟁의 정치적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하였다. 걸프전은 공중작전으로 이라크의 전략적 중심(Center of gravity)을 무력화시켜 전승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 후에, 지상작전은 최소저항선을 이용한 기습과 마비를 달성하여 간접접근에 의한 전격 기동전으로 승리를 달성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쟁수행방식을 보여주었다.

걸프전에서 나타난 특징은 첫째, 공지전투 교리를 실전에 적용한 현대판 전격전이었다. 다국적군은 1일 평균 2,000~3,000초티의 편대군 공격으로 적의 전략표적과 중심을 무력화하였으며, 정면공격과 후방공격의 통합, 근접기동과 중심기동의 통합, 지상과 공중기동의 통합, 기갑전력과 항공전력의 통합 운용으로 적의 전쟁의지를 마비시켜 심리적 공황을 유발하고, 최소 전투로 최대 성과를 달성하였다.

둘째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첨단무기체계가 전장에서 실전적으로 운용되었다는 것이다. 무인정찰기에 의한 표적획득,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활용한 입체적 작전지휘, F-117A 스텔스기를 이용한 적 레이더를 회피한 방공망 파괴, 패트리엇 미사일에 의한 스커드 유도탄의 요격과 함께, 토마호크미사일¹⁶²⁾, 헬파이어 유도탄, 야시장비, M1A1 전차 등의 압도적인 운용을 통하여 첨단무기의 위력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전쟁이었다. 아울러 지휘통제체계(C3I)의 자동화로 전자장비를 이용한 조기경보, 표적의 획득과 타격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다국적군과 비교적 재래의 기계식 전력으로 무장한 군대간의 전쟁으로 전쟁의 시작 전에 다국적군의 압승이 예견되었던 20세기 최첨단의 하이테크 전쟁이었다.

161) 합동군사대학교, 『세계전쟁사(하)』, pp. 10-303-126~166.

162) 토마호크 미사일은 사거리 450~2,500km, 속도 마하 0.7, 투발오차(CEP) 10~80m의 순항미사일로 걸프전에서 최초로 실전에 사용하였으며, 이라크 전략·전술기지에 300여발을 발사하여 목표물을 85% 이상 파괴하였다.

셋째는 연합 및 합동작전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다. 미국의 골드워너-니콜스 법에 따라 합동성이 강화되고 전투사령관의 역할이 분명해 지면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영국군, 프랑스군, 아랍의 동부합동군과 북부합동군들로 편성된 다국적군은 슈와츠코프 사령관의 지휘하에 ‘지휘의 통일’ (unity of command)을 달성하여 연속된 작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함으로써 다국적군의 승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 슈와츠코프 다국적군 사령관은 ‘사막의 방패와 사막의 폭풍작전은 확실하게 전통적인 합동작전이었으며, 진정한 통합작전의 예를 보여주었다’¹⁶³⁾라고 회고하였다. 사막의 방패 작전기간 동안 실시한 군수물자의 전개와 다국적군 부대의 5개 지역으로의 배치, 공중·해상·지상전력을 동시 통합운용하는 지·해·공 통합전투 수행은 현대전에서 합동작전의 모델이 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결프전은 미국이 베트남전쟁 패배 이후 약 20년간의 군사혁신을 통하여 현대전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새로운 군대로 탈바꿈하여 이라크를 상대로 하여 완전한 승리를 달성한 전쟁이었다. 결프전은 전쟁의 양상이 산업 문명시대에서 정보문명시대로 전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전쟁수행방식의 혁신을 가져온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었다. 따라서 결프전에서 나타난 미군의 새로운 현대전 수행은 군사교리, 무기체계, 조직편성의 관점에서 군사혁신의 성공 요인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제 2 절 군사교리와 전쟁수행방식의 혁신 : 공지전투

미군의 군사혁신 출발은 베트남전쟁 이후 미군의 절박한 현실¹⁶⁴⁾과 1973년 중동전쟁의 교훈에서 본격화되었다. 베트남전 이후 1970년대 미 육군은 군기와 사기가 저하되고 전투능력이 상실된 암흑기이자 침체기였다. 1972년 베트남전쟁에서 돌아온 미군의 지도자들은 대규모 감군, 예산 삭감, 대국민 신뢰 추락, 장병 사기 저하 등에 직면하여 어떻게 미군을 재

163) Herbert Norman Schwarzkopf, “A Tribute to The Navy-Marine Corps Team,” *US Naval Institute Proceedings* (August 1991), p. 44.

164) 베트남전에서 모순된 상황에 처하여 수많은 어려움의 대부분이 미 육군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베트남전 이후 미국의 군사혁신 노력을 주로 육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군사혁신 노력은 육군의 노력을 중심으로 분석하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해·공군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건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다. 실제로 1960년대 초반 미 육군은 96만 여명을 보유하고 1968년에는 거의 160만여 명까지 증가하였으나, 1969년 닉슨 대통령 취임 이후 병력 감축이 시작되어 1973년에는 80만여 명, 1990년대 초반까지 대략 77~78만여 명 수준까지 대규모로 병력이 감축되었다.¹⁶⁵⁾

〈표 4-3〉 미 육군 병력 현황(단위 : 천명)

연도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병력	969	1,200	1,442	1,570	1,512	1,323	1,124	811	801	783

출처 : James F Dunnigan & Raymond Macedonia, *Getting It Right : in American Military Reforms After Vietnam and Into the 21st Century*, p. 103.

미국은 1973년 10월 이집트와 시리아가 시나이반도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중동전쟁(요키프르전쟁)의 시작단계부터 이스라엘의 전쟁준비 부족 현상을 매우 충격적으로 관찰하였다.¹⁶⁶⁾ 제 4차 중동전쟁이 보여준 아랍 군대의 기동성과 살상력은 미 육군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중동전쟁의 교훈은 미 육군이 새로운 교리, 조직, 장비, 훈련기술, 그리고 미래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활용하였다. 1973년 6월 전쟁에서 아랍국가들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로부터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자, 1973년까지 대부분 아랍국가 군대들은 최신의 소련 장비와 전술로 무장하였다. 이로 인해 소련이 1960년대에 시작했던 대규모 현대화 계획이 서구에 알려지게 되었고, 결국 군비경쟁이 임박했음을 미국에게 명백히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¹⁶⁷⁾

베트남전 이후 미군의 군사혁신은 크게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 1단계는 아브람스(Creighton W. Abrams Jr) 장군이 육군참모총장에 취임한 이후 교육사령관 드푸이(William E. DePuy) 장군과 함께 군 개혁의 시동을 걸었던 197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라고 할 수 있다. 제 2단계는 1980년대 초반 이후 합동성 강화를 위해 ‘골드워터-니콜스 법안’

165) James F Dunnigan & Raymond Macedonia, *Getting It Right : in American Military Reforms After Vietnam and Into the 21st Century* (New York : Writers Club Press, 2001), p. 103.

166) General David G. Perkins, “Multi-Domain Battle, Driving Change to win in the Future,” *Military Review* (July-August 2017), p. 5.

167) James F Dunnigan & Raymond Macedonia, *Getting It Right : in American Military Reforms After Vietnam and Into the 21st Century*, p. 128.

이 의회를 통과하여 미군의 변혁이 가시화되고 공지전투 교리가 정립되면서 걸프전이 개시되는 시기¹⁶⁸⁾까지로 볼 수 있다.

1972년 마지막 주월미군사령관인 아브람스(Creighton W. Abrams Jr) 장군이 미 육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하였다. 미 육군은 베트남전 패배의 원인과 중동전쟁의 전훈을 연구한 뒤, “군사교육기관에서 장교들의 직업적 전문성을 개발하고 훈련시켜야 한다”는 판단하에 미육군교육사령부(US Army TRADOC)¹⁶⁹⁾를 설립하고 초대 사령관으로 윌리엄 드푸이(William E. DePuy) 장군을 임명하였다. 아브람스 육군참모총장은 군 개혁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육군의 전쟁에 대한 교리적인 관점을 전장 실상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드푸이 장군은 미 육군이 장차전에서 적용해야 할 군사교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는 미 육군의 군사혁신이 군사교리의 발전으로부터 출발하였음을 보여준다.

군사교리는 4성 장군인 미육군교육사령관의 확고한 영역이었다. 그동안 미군은 무기를 생산하고 민간인을 모집하여 군인으로 만들었지만 대체로 그 무기와 병력이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데는 미숙하였으 며,¹⁷⁰⁾ 전술은 항상 미군이 취약한 부분이었다. 이전까지 미군은 국가전략 이 충분성(sufficiency)과 데탕트를 지향하고 있는 동안, 드푸이와 그의 참 모 및 각급 지휘관들은 새로운 전술 개발을 추진하였다. 교육사령관은 소 장급인 예하 병과학교장들을 지휘하였고, 각 학교들은 그들의 전문분야에 대한 교리를 발전시켰다. 교육사령관은 각 병과의 교리를 발전시키고 병 과간 노력을 통합하며 합동교리를 조율하였으며, 캔사스주 포트 레벤워스 (Fort Leavenworth)에 위치한 3성 장군 제병협동센터장, 2성 장군 제병협동 전투발전소장과 버지니아주 포트 리(Fort Lee)에 위치한 3성 제병협동지 원사령관의 역할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¹⁷¹⁾. 이렇게 미 육군 주 요직위자들이 1974년 말부터 1976년 중순까지 자신에게 부여된 과업을 수

168) 이종호, 『군사혁신의 전략적 성공 요인으로 본 국방개혁 방향 : 주요 선진국 사례와 한국의 국방개혁』, p. 52.

169) US Army TRADOC(Training and Doctrine Command)은 번역하면 ‘미 육군 훈련 및 교리 사령부’ 이나 한국군에서는 교육사령부로 칭하며, 본 연구에서는 미국 육군교육사령부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170) James F Dunnigan & Raymond Macedonia, *Getting It Right : in American Military Reforms After Vietnam and Into the 21st Century*, p. 131.

171) Jonn Sloan Brown, *KEVLAR LEGIONS(The Transformation of the US Army 1989~2005)* (Washington D.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2011), p. 70.

행하였다.

참모부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야전교범 초안의 상당 부분을 장군들이 직접 작성하였으며,¹⁷²⁾ 1976년판 FM100-5(작전)은 군사교리의 대표적인 혁신 사례이자 현대적 야전교범의 전형으로 평가받는다. 이 교범에서 ‘군사 교리’는 군의 중심이며 핵심 도구라고 규정하였으며, 오늘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How to fight’ 개념도 이 교범에서 최초로 등장하였다.¹⁷³⁾

초대 교육사령관 드푸이는 1976년판 FM100-5(작전)에서 치열한 연구의 결과물로 ‘적극방어’ (Active Defense)를 새롭게 주창하였다. 적극방어는 공격하는 적 부대의 밀집을 강요하여 방어부대의 집중화력에 취약하게 한 후에, 우군부대가 기동성을 발휘하여 적의 균형을 와해하여 소련군이 선호했던 사전 계획된(set-piece attack) 제파식 공격방식을 방해하는 전술이었다. 적극방어의 핵심은 적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 the enemy)와 전장관찰(seeing the battlefield)을 통하여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critical times and places)에 전투력을 집중하고 제병협동전투(fighting as a combined arms team)를 수행함으로써, 방자의 이점을 확대하고 적극 활용하는 데 있었다.¹⁷⁴⁾ 적극방어는 많은 민간 및 군 평론가들로부터 수세적 전술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찬반 논란을 불붙게 하였고 그러한 논쟁의 결과는 공지전투 교리를 더욱 발전시키는 촉진제가 되었다. 이는 드푸이 장군이 바라던 바이기도 하였다.

미국의 새로운 군사교리의 탄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군단을 주축으로 한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에 걸쳐 노력한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말부터 ‘적극방어’ (Active Defense), ‘공지전투’ (Air Land Battle), ‘최초 전투에서 승리’ (Win First Battle), ‘현재 상태로 투입’ (Come As You Are), ‘표적제공’ (Target Servicing), ‘중심공격’ (Deep Attack), ‘도약 감시’ (Bounding Overwatch) 등 교리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논쟁이

172) FM100-5는 교육사령관 드푸이 장군이 초안을 쓰고, 운영분석 전문가인 부사령관 폴 고먼(Paul F. Gorman) 장군과 기갑학교장(후임 교육사령관) 돈 스테리(Down A. Stary) 장군 수시로 통화하고 편지를 교환하면서 새로운 교범의 개념과 전술을 놓고 치열한 논의의 결과물이었다. 남보람, “미 육군 개혁 이야기”, 『국방일보』, 2018. 11. 20.

173) 남보람, “미 육군 개혁 이야기”, 『국방일보』, 2018. 11. 6.

174) James F. Dunnigan & Raymond Macedonia, *Getting It Right : in American Military Reforms After Vietnam and Into the 21st Century*, pp. 136~142.

공지전투와 같은 새로운 교리의 탄생을 가져오게 하였다.¹⁷⁵⁾

1978년에는 ‘적극방어’와 ‘최초 전투에서 승리’하는 개념에 따라 초기에 모든 부대들이 전투에 참가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 소련의 사단급으로 구성된 제파식 공격에 대비하여 예비대 운용개념을 발전시켰다. 1979년에는 20~30km의 적 후방에 대한 ‘전장차단’과 ‘중심전투지역’을 고안하였으며, 그 결과 전장에서 부대의 편성과 지휘통제 문제를 고려하여 ‘통합된 전장’에서의 전쟁수행개념이 발전되었다. 이처럼 드푸이 장군은 4년 동안 초대 미 육군 교육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래전 양상을 고려한 ‘싸우는 방법’을 정립함으로써 군사교리와 군사혁신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미군은 제 4차 중동전쟁 교훈 분석을 통해 현대전의 치명성을 이해하고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최소 희생으로 신속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도모하는 새로운 군사교리를 정립하였다.

후임 교육사령관으로 취임한 스타리(Down A. Story) 장군은 1976년판 FM100-5를 보완하여 1982년 판 FM100-5 ‘공지전투’(Air Land Battle) 교리를 완성하였다. 공지전투 교리는 수적으로 우세한 적과 싸워 이기는 방법에 대해 지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중심 깊은 적 후방을 공격하는 것, 장거리 화력을 사용하는 것, 전장에서 제병협동전투와 결정적 지점에 공·지 통합성을 강조하면서 무기체계 자체가 보유한 화력의 이용과 군사기술의 실제적 활용을 강조함으로써 군사사상의 일대 혁신을 초래하였다. 또한 1986년 판 FM100-5는 현대전에서 전쟁을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작전적 수준에서 전쟁을 어떻게 계획하고 싸울 것인가에 대한 작전술(operational art) 교리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공지전투는 1976년에 ‘적극방어’ 발표 후 10년간의 다양한 토론과 수많은 논문 발표 등이 활성화되었고 전문가들의 통합된 노력의 산물이었다. 1973년의 중동전쟁이 1970년대 미 육군 개혁의 촉매제로 작동했던 것처럼, 1976년 판 FM100-5에 대한 논쟁은 1982년 판 FM100-5에서 천명된 ‘공지전투’ 교리의 발전을 촉진하게 하였으며, 아울러 1980년대에 단행된 다양한 군사혁신의 기초¹⁷⁶⁾가 되었고, 미 육군의 군사력 건설

175) James F Dunnigan & Raymond Macedonia, *Getting It Right : in American Military Reforms After Vietnam and Into the 21st Century*, p. 190.

176) James F Dunnigan & Raymond Macedonia, *Getting It Right : in American Military Reforms After Vietnam and Into the 21st Century*, p. 146.

과 전투력 운용의 기본지침이 되었다. 따라서 공지전투 교리는 사고와 행동방식을 정보화시대의 특성에 맞도록 혁신하고 작전개념과 전력구조를 새롭게 구축하여 새로운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군을 정비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미국의 2단계 군사혁신은 1980년대 초반 이후 공지전투교리가 정립되고, 합동성 강화를 위해 골드워터-니콜스 법안(Goldwater-Nichols Act)¹⁷⁷⁾이 의회를 통과하여 결프전이 개시되는 시기까지 지속되었다. 골드워터-니콜스 법안은 합참의장의 권한을 구체화하고, 통합사령관의 권한행사를 보장하여 미군이 다양한 형태의 사태에 대응하여 합동부대의 형태로 작전을 수행하는 상부지휘구조의 대 변화를 가져왔다. 공지전투가 미군의 군사교리로 채택됨으로써 각 군 간의 합동작전 능력이 대폭 강화되었고, 미군 지휘관들은 공세적으로 전투력 운용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1989~1991년 사이에 미 육군의 거대한 변화를 이끌었던 미 육군참모총장 칼 부오노(Carl E. Vuono)는 변화의 추진력으로서 기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교리(doctrine), 부대구조(force mix), 현대화(modernization), 훈련(training), 간부개발(leader development), 우수인력 획득(quality people) 등 6가지를 핵심과제로 제시¹⁷⁸⁾하였다. 특히, 교리는 부대운용을 통제하는 합의된 원칙과 공통언어의 근간이며, 모든 계대에서 무기와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공하고, 교리가 기술을 선도하고 미래 전투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¹⁷⁹⁾으로 삼았다.

이렇게 발전시킨 공지전투 교리는 결프전에서 전투수행방식을 새롭게 혁신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결프전은 공지전투 개념에 항공·우주전 개념을 결합하여 다국적군의 완전한 승리를 달성함으로써, 당시에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새로운 형태의 전쟁수행이었다. 1991년 1. 17일부터 2.

177) 대략 4년간의 연구 및 토의 끝에 1986년에 통과된 미 국방재조직법으로 이 법안의 가장 큰 목적은 합동성을 강화하는 것이었고, 고위 지휘관들에게 자신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타군과 일하는 방법에 대한 분명한 권한을 주었으며, 무엇보다도 사막의 방패 및 사막의 폭풍 작전에 기여한 것은 슈워츠코프 대장과 같은 전투사령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이었다. James F Dunnigan & Raymond Macedonia, *Getting It Right : in American Military Reforms After Vietnam and Into the 21st Century*, p. 148.

178) 부오노 미 육군참모총장은 그가 제시한 6대 핵심과제별로 조직상의 장(bureaucratic champion)을 지정하여 책임을 부여하였다.

179) Jonn Sloan Brown, *KEVLAR LEGIONS(The Transformation of the US Army 1989~2005)*, p. 66.

28일까지 43일간의 작전기간 중 39일간 항공작전이 전개되었고, 지상작전은 마지막 단 100시간의 작전으로 전쟁을 마무리 지었다. 지상작전은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이후에 신속히 포위 기동을 수행하는 ‘새로운 전격전’ 방식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러한 지상작전 여건조성은 공군, 해군, 그리고 우주기반의 정보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동시병렬전’(Parallel Warfare)에 의해 달성된 것이다.¹⁸⁰⁾

미국은 개전 24시간 내에 198개의 전략적 핵심표적¹⁸¹⁾을 무력화시켰는데 이 중 90개 표적은 1시간 내에 파괴되었다. 이러한 전과는 세계 2차 대전시 연합공군이 독일군 전략적 표적 145개를 2년간 걸쳐서 공격하여 제압한 것과 비교할 때 엄청난 변화였다. 이라크는 198개의 중심(重心, Center of Gravity)을 단 24시간 만에 피폭¹⁸²⁾ 당하자 국가 기능이 완전한 마비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당시 이라크군의 스커드(SCUD) 미사일은 중요한 위협이었다. 미국 및 다국적군은 개전 후 8일간 공군 소티(sortie)의 약 40%를 스커드 미사일 탐색에 활용하였다. 공중감시수단과 전자장비를 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877명의 특수부대 요원들을 적 중심에 침투시켜 미사일, 통신, 군수시설 등에 대한 표적정보를 획득하였다.

미국과 다국적군은 38일간의 공중작전에 의해 이라크군 병력의 25~30%, 전차 48%, 장갑차 30%, 포 50%를 파괴하여 새로운 전격전의 여건을 조성한 다음 본격적으로 지상작전을 개시하였다. ‘레프트 후크’(Left Hook)으로 명명된 기동전은 이라크군을 포위 섬멸하는 개념으로 구상되었다. 미군과 다국적군은 적을 기만하기 위하여 D+11일이 되는 1월 17일 이후 약 3주간에 걸쳐 최초 위치에서 미 18군단은 약 280마일, 7군단은 약 150마일, 영국 기갑사단은 350km를 서쪽으로 측방이동 하였고, 해병대에 의한 상륙양동작전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레프트 후크’ 기동작전은 제 1해병원정군과 아랍측 동맹군이 정면에서 쿠웨이트 해방작전을 위한

180) 권태영·노훈, 『21세기 군사혁신과 미래전』, p. 106.

181) 군사과학기술의 발달과 RSC(Reconnaissance Strike Complex, 정찰·타격 복합체, ISR과 PGM의 복합체) 혁명은 핵심표적 타격능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2차 세계 대전시 연합 공군이 145개의 독일 표적을 제압하는 데 2년이 소요되었으나, 걸프전에서는 미군이 198개의 이라크 표적을 24시간 만에 제압하였으며, 최근에는 1시간 내에 1,500개 표적을 제압이 가능하다. 육군교육사, 『미래 작전환경 분석서』, p. 9.

182) 이라크 전체 전략적 중심 표적이 약 1,000~1,200개 정도였는데, 이중 우선순위가 높은 10%의 중심이 1일 만에 파괴, 무력화됨으로써 국가 기능이 순식간에 마비되었다.

공세를 실시하는 가운데, 미군 지휘하에 미·영·프로 구성된 다국적 지상군 2개 군단이 측방으로 신속 기동하여, 쿠웨이트 작전지역 내 이라크군의 후방교통로를 차단하고 이중으로 봉쇄하는 것이었다.

미군 및 다국적군은 전과확대에 해당하는 일방적인 대규모 기동전으로 충격 및 마비를 극대화하는데 성공적이었다. 공중작전에 이어 지상작전 역시 마비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소위 인명중시의 전쟁양상을 보여주었다. 기간 중 미군의 손실률은 0.05%에 불과하였지만, 이라크군은 20~30%의 손실(사상 10만명, 포로 10만명)을 입었다. 이러한 전쟁결과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고, 미국은 21세기에 새로운 군사혁신(RMA)을 알리게 되었으며,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새로운 전쟁양상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다.

결프전은 미국이 베트남전 이후 발전시켜온 공지전투 교리를 적용하여 전쟁수행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전쟁이었다. 전쟁 초기에 적 후방의 중심깊은 전략표적과 중심을 무력화시켜 마비를 달성한 한 후, 통합전장에서 제병협동 및 합동작전으로 최단 시간에 최소 희생의 전투로 전쟁을 조기 종결지었다. 이와 같은 전쟁수행은 2차대전 시기 전차와 항공기를 기반으로 한 전격전 개념이 첨단 항공력과 토마호크 미사일, 장사정 첨단 정밀유도무기 등을 이용하여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 후에, 공지전투 개념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동마비전(maneuver-oriented warfare)으로 변환시킨 대변혁이었다.

미국의 전쟁수행개념이 공지전투 교리에 의해 수세적 방어전에서 공세적 기동전으로, 군별 작전운영에서 공지통합작전 개념으로, 근접전투에서 중심전투로, 전술적 수준의 사단 중심 전장운영에서 작전적 수준의 군단 중심의 전장운영으로 전환되었다. 그리하여 전장에서 주도권(initiative), 중심(depth), 기민성(agility), 동시통합성(synchronization), 템포(tempo) 등의 원칙이 새롭게 강조되었다.¹⁸³⁾ 이후에도 각 군은 네트워크 중심전 개념 등 탈냉전기의 새로운 안보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전략과 교리를 지속 발전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방식의 현대전을 수행하는 군사혁신을 가져온 출발점은 미군이 1976년부터 장기간에 걸쳐 발전시켜온 공지전투 교리였다. 미국의 군사혁신은 군사교리의 발전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공지전투 교리가

183) 권태영·노훈, 『21세기 군사혁신과 미래전』, p. 168.

무기체계와 조직편성의 발전까지 견인함으로써 군사혁신을 성공할 수 있었다.

제 3 절 군사교리와 무기체계 혁신

미 육군교육사령관 드푸이 장군의 주도로 1982년에 이르러 미군의 군사교리는 ‘적극방어’ (Active Defense)에서 ‘공지전투’ (Air Land Battle)로 발전되었다. 공지전투 교리의 발전과 동시에 드푸이 장군과 그의 참모들은 월남전 이후 대규모 육군의 감축을 추진하면서 전투력의 향상을 위해 향후 10년에서 20년 이후 적용할 새로운 무기체계를 기획하였다.

<표 4-4> 베트남전 이후 미 육군의 소요결정 무기체계

군의 요구소요	기존 무기체계	소요결정된 무기체계
전차	M-60 계열	M1(Abrams)
보병전투차량	M-113계열	M-2/M-3(Bradly)
기동헬기	UH-1H	UH-60(Blackhawk)
공격헬기	AH-1(Cobra)	AH-64(Apache)
후방방위용 SAM	Nike Hercules	MM-104(Patriot)
전방방위용 SAM	Chaparral	Roland
견찰용 SAM	Redeye	FIM-92(Stinger)
대전차미사일	TOW	AGM-114(Helfire)
정찰용 헬리콥터	OH-6(Cayuse)	OH-58D(Kiowa-Warrior)
이동형 사단 방공포	M-163(Vulcan)	M-998(Sergeant York)
일반지원 로켓	·	MLRS
레이저유도 155밀리포	·	M-712(Coperhead)

출처 : Rechard P. Hallion 저, 백문현·권영근 역, 『현대전의 알파와 오메가』, p. 132.

걸프전에서 공지전투 교리에 의한 작전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체계를 구비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측 및 통찰력이 장교단 내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걸프전에서 유감없이 선보인 첨단무기는 이미 1972년 미육군교육사령부에서 드푸이 교육사령관과 전문가 그룹이 격리 생활까지 하면서 기획하였던 무기개발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으며, 당시에 소요결정된 무기체계는 <표 4-4>와 같았다.

미 육군은 공지전투 교리의 발전 이후 1980년대 국방예산의 급증으로 M1A1(에브람스) 전차, 브래들리 보병전투차량, AH-64 아파치 공격헬기, UH-60 블랙호크 다목적 기동헬기, 패트리엇 미사일체계 등 이른바 ‘빅5’(Bg five)가 개발되어 야전에 배치되었다. 동시에 정확도와 화력을 놀라울 정도로 향상시킨 헬파이어 미사일, 코퍼헤드와 같은 침단 탄약, MLRS가 야전에 배치되었으며, 전차와 헬기 같은 주요 장비는 무전기, 조준경, 기관총, 시험장비 등 많은 부수장비를 함께 구비하였다. 이렇게 현대화된 부대는 신형무기를 갖추고 지상 또는 공중으로 기동이 가능한 부대였다.¹⁸⁴⁾

1989~1991년 사이에 미 육군의 거대한 변화를 이끌었던 미 육군참모총장 칼 부오노(Carl E. Vuono)는 미래 전투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연구개발 자금의 배분을 주도하였고, 이는 다시 군사 원천기술 개발과 침단장비가 전력화되는 속도를 주도하였다.¹⁸⁵⁾ ‘Big 5’로 상징되는 현대화는 기술의 이점을 활용하여 진부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장비가 최상의 효과가 발휘되도록 교리 최신화, 조직 재 정비, 운영자 교육, 지속성 보장 등 종합 패키지로 야전에 배치되도록 계획하였다. 예를 들면, M1A1 전차는 새로운 복합체계(system of system)의 초석이었으며, 혁신적으로 개선된 사거리와 야시장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교리가 최신화되었다.

미 육군교육사령부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소요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고, 이후 육군성은 소요에 따라 무기를 개발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공지전투 교리는 기동력과 화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보다 우위의 기동력과 강력한 화력을 확보해야만 하였다. 미 육군이 개발한 아브람스 전차, 브래들리 장갑차, 아파치 공격헬기, 블랙호크 기동헬기, MLRS 등은 걸프전에서 이라크 군보다 절대 우위의 전력으로 위력을 발휘하였다. 공군의 정밀폭격시스템, 스텔스 항공기, AWACS, JSTARS, 장거리 전략폭격기, ECM 체계와 각종 센서들도 이라크군을 제압했던 강력한 전력이었다.

병력규모 면에서 소련에 대한 열세를 기술적 우위로 극복하여 개발된 Big 5 등과 같은 주요 무기체계 들은 걸프전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였고,

184) Jonn Sloan Brown, *KEVLAR LEGIONS(The Transformation of the US Army 1989~2005)*, p. 38.

185) Jonn Sloan Brown, *KEVLAR LEGIONS(The Transformation of the US Army 1989~2005)*, p. 66.

공지전투 개념을 구현하는 핵심 수단이다. 이러한 수단의 개발은 과도한 개발 비용과 개발기간 장기화 등으로 반대가 많았으나 ‘기술적 우위’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지속적인 투자로 공지전투 교리에 부합되는 새로운 무기체계의 개발로 걸프전에 전력을 투사할 수 있었다.

아울러 새로운 싸우는 방법인 공지전투 교리는 미군의 새로운 과학기술 활용을 더욱 촉진 시키기도 하였다. 공지전투 교리는 전선지역에서 적의 공격을 방어함과 동시에 중심지역의 적 주력부대를 항공 및 장거리 타격 수단으로 공격하는 중심전투를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미 육군은 발전된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중심지역 감시를 위한 합동 감시 및 표적공격레이더 체계(JSTARS)를 개발하고, 장거리 타격을 위해 다련장로켓(MLRS), 육군전술미사일(ATACMS), 야포 발사형 정밀유도무기(Artillery-Launched PGM)등을 개발하여 이들 체계를 상호 연결하여 효과적으로 사격지휘를 할 수 있는 전술사격지휘체계(TACFIRE)를 개발하였다.¹⁸⁶⁾

공지전투는 ‘중심전투’ (deep battle)가 핵심개념으로, 적 후방 중심 깊게 위치한 적을 원거리에서 보고 넓은 작전지역을 통제하며 중심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의 필요에 따라 ‘중심감시-중심통제-중심타격체계’를 발전시켰다. 중심감시·정찰체계로는 전술위성, 원격조종비행체(RPV), 원격표적획득체계(SOTAS), 전출처분석체계(ASAS) 등이 실용화되었고, 중심통제체계로서 전술화력통제체계(TACFIRE), C4I 등이 개발되어 배치되었으며, 중심타격체계로써 M1 전차, AH-64 공격헬기, 다련장로켓(MLRS), 지상발사 크루즈미사일(GLCM), 퍼싱-II 등을 전력화시켰다¹⁸⁷⁾. 이와 같은 새로운 무기체계는 걸프전에서 효용성을 확실하게 증명하였다.

미 공군은 첨단 우주·항공기술을 활용하여 공중조기경보 및 통제체계(AWACS), F-117 스텔스 전투기, B-2 스텔스 폭격기, 정밀유도무기 등을 개발하여 걸프전에서 활용함으로써 이라크군을 압도하였다. 미 공군은 조기에 제공권을 장악하고 이라크군의 조기경보체계, 전장지휘체계, 대공방어체계, 공화국수비대 등을 3단계에 걸쳐 39일간 타격함으로써 무력화시켰다. 아울러 미군의 지상작전 수행에 필요한 정찰·감시·타격·통신·항법 등을 항공·우주전력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지상군이 100시간의 지상작전으로 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186) Thomas G. Mahnkenwj 저, 김수빈 옮김, 『궁극의 군대』(서울 : 미지 북스, 2018), pp. 197~206.

187) 권태영·노훈, 『21세기 군사혁신과 미래전』, p. 168.

결프전에서 새롭게 등장한 미군의 새로운 무기체계는 미국이 베트남전 이후 발전시킨 공지전투 개념의 구현을 위해 장기간에 걸친 노력의 산물이었다. 새로운 무기체계들이 1991년 결프전에서 효용성을 증명된 것은 무기체계를 먼저 개발한 것이 아니라, 기획단계부터 ‘미래에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군사교리를 먼저 발전시키고, 싸우는 방법에 맞춰 무기개발 소요를 제안하고 결정하여 무기체계를 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군사교리의 발전이 선행된 이후에 이를 구현하기 위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군사혁신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의 무기체계 개발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초정밀·초연결·장사정·고위력의 무기체계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준비한 이후에 무기체계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과학기술 주도의 군사혁신 추진은 막대한 재원의 투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싸우는 방법에 대한 군사교리의 발전 없이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지지 획득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많은 시간과 재원을 필요로 하는 현대적 의미의 군사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사교리가 선도하면서 무기체계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제 4 절 군사교리와 조직편성 혁신

군사혁신은 군사교리에 적합한 새로운 무기의 개발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부대가 적합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편성을 같이 갖추어야만 전투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무기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전략·전술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부대구조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수반되었다. 나폴레옹은 사단 및 군단이라는 체대를 편성하여 전장을 연속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전역(戰域)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전쟁수행 방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공지전투 교리의 채택은 미군의 상부지휘구조의 변화와 함께 하부 부대구조도 개선하였다. 참모총장 칼 부오노(Carl E. Vuono)는 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최상의 부대구조 발전을 역설하면서 부대구조의 변화를 주도하였

다. 이를 위한 첫 번째 판단기준은 무기의 중량과 치명성이었다. 중무장 부대는 비슷한 유형의 적 부대와 가장 잘 싸울 수 있지만, 전략적 기동성이 부족하였다. 경무장 부대는 전략적 기동성은 뛰어나지만 전투지속능력이 부족하였다. 특수작전부대들은 특수환경에 맞는 전술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중무장, 경무장 및 특수작전부대의 혼합은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두 번째 기준은 전투부대, 전투지원 및 전투근무지원부대의 균형이었다. 적을 제압하기 위한 화력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면 공격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으면 기동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군수지원이 부적절하면 작전은 실패할 것으로 여겼다. 세 번째 기준은 현역과 예비군 부대의 적절한 배합이다. 당시에 현역 부대는 즉각 가용하였으나 높은 수준의 훈련과 준비태세를 유지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었다. 예비군 부대는 유지비용이 적게 들지만 준비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고 동원하는데 정치적 비용이 발생하여 운용 빈도도 높지 않았다. 부대구조 결정은 소총부대의 무기편성에서부터 육군의 사단 유형과 부대수까지 모든 제대에서 이루어졌다.¹⁸⁸⁾ 정비조직 또한 진단장비와 야전 교환 품목을 통합운용할 수 있도록 재설계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 육군교육사령부는 부대구조(Force mix)와 관련된 업무를 병행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공지전투 교리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대들이 이상적으로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야전의 고위 지휘관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부대구조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었으나 편제표 수정은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었다.¹⁸⁹⁾

미군은 장차전을 소련군과 유럽 전장에서 벌이는 재래전으로 상정하여 강도 높은 기계화전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군단 및 사단의 조직을 개편하였다. FM 100-5에서 제시된 싸우는 방법을 구현하기 위하여 편성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1965년부터 시험 적용했던 제 11공중강습사단의 임무수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 공중기동작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수적 우세를 보이는 소련의 기계화부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3중 능력을 구비한 사단의 개편을 추진하였다. 즉, 기갑전력, 공중기동전력, 공격헬기전력이 겸비된 사단을 편성하기 위

188) Jonn Sloan Brown, *KEVLAR LEGIONS(The Transformation of the US Army 1989~2005)*, p. 67.

189) Jonn Sloan Brown, *KEVLAR LEGIONS(The Transformation of the US Army 1989~2005)*, p. 70.

하여 제 1기갑사단과 제 1기병사단에 기갑여단, 기갑수색대대, 강습여단, 항공수색대대 및 항공여단 등을 편성하였다.¹⁹⁰⁾ 이처럼 미군은 기동력과 화력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주도권 지향의 군사교리(Initiative-oriented Military Doctrine)와 새로운 무기체계로 무장하고 새로운 작전수행개념이 가능한 조직편성을 갖추고 걸프전에 나가게 되었다.

사단은 다시 화력, 기동력, 충격력을 갖춘 기존의 3중 능력 사단을 개편하여 중(重)사단과 경(輕)사단을 편성하였다. 중(重)사단은 공지전투의 입체기동전 수행을 위해 화력과 육군항공을 보강하였으며, 소련군의 제 2세대까지 중심있게 기동력을 발휘하도록 하였다. 경(輕)사단은 중(重)사단 이외의 부대를 병력 약 1만명 수준으로 소형화·경량화하여 편성하였으며, 기동성을 증대하고 공중타격 능력과 공중기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항공부대를 보강하였다.¹⁹¹⁾

미 육군참모총장 아브람스 장군은 미국의 전쟁역사에서 예비역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한 가운데 총체 전력(Total Forces) 개념을 확립하였다. 그는 1974년 3월에 육군을 13개 사단에서 16개 사단으로 증편하면서 유사시 현역사단에 주방위군과 예비군을 보강하여 완편이 되도록 조직을 개편하였다. 또한 사단에 편성된 주방위군과 예비군의 교육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유사시 동원이 되었을 때 사단의 전투력 발휘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다. 결국, 걸프전 발발 시 예비역은 육군 전체의 58%를 차지하였고, 공군의 31%, 해군과 해병대의 29% 수준으로 총체 전력 개념에 따라 편성된 예비역이 소집되었다.¹⁹²⁾

1980년에는 중무장 부대들에게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국립훈련센터(NTC)¹⁹³⁾를 설치하였고, 1987년에는 경보병부대, 공중강습부대, 특수전부대 등의 훈련을 위하여 합동전투준비태세훈련본부(JRTC)¹⁹⁴⁾를 창설하였

190) Harry G. Summers Jr. wj, 권재상·김종민 역, 『미국의 걸프전 전략』(서울 : 자작아카데미, 1995), pp. 148~164.

191) Jonadan M. House, *Combined Arms Warfare in the Twentieth Century* (Lawrence : The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1), pp. 255~258.

192) Harry G. Summers Jr. wj, 권재상·김종민 역, 『미국의 걸프전 전략』, pp. 148~164.

193) 美 국립훈련센터(National Training Center)는 캘리포니아 주 포트 어윈(Fort Irwin)에 설치되어 부대가 실제 싸우는 방법대로 혹독하고 실전적인 훈련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걸프전이 수행되는 동안 NTC는 이라크군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라크군을 격퇴시키는데 기여하였다.

194) 美 합동전투준비태세훈련본부(Joint Readiness Training Center)는 아칸사스 주의 포트 채프(Fort Chaffee)에 설립되었고, 82공정사단과 101공중강습사단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전개되기

다. 또한 고급 지휘관들의 전투수행기술을 훈련시키기 위해 컴퓨터 기반의 위게임 훈련인 전투지휘훈련프로그램(BCTP)을 시작하였다.

공지전투 교리는 미군의 조직편성과 함께 전장리더십과 조직문화의 변화도 가져왔다. 드푸이 장군은 증대하고 있는 현대전의 복잡성과 치명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독일군이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성공적으로 사용했던 ‘임무형명령’과 전투에 대한 개략적인 복안을 포함하면서 수 천가지의 과업을 통합하고 협조시키는 도구로서 ‘작전개념’의 활용을 강조하였다. ‘임무형명령’은 부하들에게 단순히 일반적인 작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부하에게 맡기는 것이다. ‘작전개념’은 지휘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간명하게 기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지휘관이 다수의 예하 지휘관에게 일반적이고 간명한 명령으로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도록 하면서도 예하부대와 지휘관 자신, 그리고 예하부대간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었다.¹⁹⁵⁾

조직편성의 관점에서 1986년 합동성 강화를 위해 골드워터-니콜스 법안(Goldwater-Nichols Act)은 주요 전쟁에서 합참의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통합사령부와 특정사령부의 역할 및 각 군과 각 구성군사령부와의 관계를 규정화함으로써 상부구조의 발전을 통하여 작전적 수준에서 공지전투 교리 기반의 합동작전이 가능하게 하였다. 1986년부터는 캡스톤(Capstone)과정 교육¹⁹⁶⁾도 장군들이 의무적으로 합동군 보수교육을 받게 하는 등 이 법안이 사막의 방패 및 사막의 폭풍 작전에 기여한 것은 슈워츠코프 대장과 같은 전투사령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 때문이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군은 조직편성면에서 공지전투 교리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상부 지휘구조와 하부 부대구조까지 혁신하여 역사상 가장 잘 준비된 상태로 전쟁에 투입되었다.

전에 이곳에서 집중적인 훈련을 받았다.

195) James F Dunnigan & Raymond Macedonia, *Getting It Right : in American Military Reforms After Vietnam and Into the 21st Century*, p. 135~136.

196) Capstone 과정은 1982년부터 장군으로 진급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대부대 합동작전에 대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하였으나, 골드워터-니콜스법에 따라 1986년부터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다.

제 5 절 군사혁신 관점의 평가

1990년부터 1991년까지의 걸프전쟁은 미 육군 군사혁신의 최종시험과도 같았다. 1972년 아브람스(Creighton W. Abrams Jr) 장군이 미 육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하면서, 미 육군교육사령부(TRADOC)를 설립하고 군 개혁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전쟁 실상에 부합한 교리 개정에 착수하였다. 초대 교육사령관 윌리엄 드푸이(William E. DePuy) 장군은 미 교육사 예하의 제병협동센터(CAC)와 각 병과학교들과 통합된 노력으로 미 육군이 장차전에서 적용해야 할 군사교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공지전투 교리는 초안의 상당 부분을 장군들이 직접 작성하는 등 1976년에 ‘적극방어’ 발표 후 10년간의 다양한 토론과 수많은 논문 발표 등이 활성화되고 전문가들의 통합된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산물이었다. 1976년 판 FM100-5에서 ‘적극방어’(Active defense)에 대한 논쟁은 1982년 판 FM100-5에서 완성된 ‘공지전투’(Air Land Battle) 교리의 발전을 촉진하게 하였으며, 핵심개념은 ‘화력에 의한 중심전투와 기동성 있는 부대에 의한 기동전이 조화를 이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발전시킨 공지전투 교리는 1980년대에 단행된 다양한 군사혁신의 기초¹⁹⁷⁾가 되었고, 미 육군의 군사력 건설과 전투력 운용의 기본지침이 되었다. 이는 미 육군의 군사혁신은 군사교리의 발전으로부터 출발하였음을 보여준다.

걸프전은 미국인들이 주장하듯이 공지전투 개념을 적용한 대표적인 전쟁이었으며, 공지전투 교리는 걸프전에서 전투수행방식을 새롭게 혁신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걸프전은 공지전투 개념에 항공·우주전 개념을 결합하여 다국적군의 완전한 승리를 달성함으로써, 당시에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새로운 형태의 전쟁수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91년 1. 17일부터 2. 28일까지 43일간의 작전기간 중 39일간 공군작전이 전개되었고, 지상작전은 마지막 단 100시간의 작전으로 전쟁을 마무리 지었다. 걸프전은 미국이 베트남전 이후 발전시켜온 공지전투 교리를 실제로 전장에서 실현함으로써 전쟁수행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전쟁이었다. 전쟁 초기에 적 후방의 중심깊은 전략표적과 중심을 무력화시켜 마비를 달성한 한 후,

197) James F Dunnigan & Raymond Macedonia, *Getting It Right : in American Military Reforms After Vietnam and Into the 21st Century*, p. 146.

통합전장에서 제병협동 및 합동작전으로 최단 시간에 최소 희생의 전투로 전쟁을 조기에 종결지었다. 이와 같은 전쟁수행은 2차 대전 시기 전차와 항공기를 기반으로 한 전격전 개념이 첨단 항공력과 토마호크 미사일, 장사정 첨단 정밀유도무기 등을 이용하여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 후에 공지전투 개념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동마비전(maneuver-oriented warfare)으로 변형시킨 대변혁이었다.

공지전투 개념이 갖는 획기적인 변화는 기존의 미군 교리와는 달리 심리적이고 인간적인 요소, 즉, 훈련수준, 융통성 및 충격효과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쟁수행개념이 공지전투 교리에 의해 수세적 방어전에서 공세적 기동전으로, 군별 작전운영에서 공지통합작전 개념으로, 근접전투에서 중심전투로, 전술적 수준의 사단 중심 전장운영에서 작전적 수준의 군단 중심의 전장운영으로 전환되었다. 그리하여 전장에서 주도권(initiative), 중심(depth), 기민성(agility), 동시통합성(synchronization), 템포(tempo) 등의 원칙이 새롭게 강조되었다.¹⁹⁸⁾

이와 같이 현대전 수행의 군사혁신을 가져온 출발점은 미군이 1976년부터 장기간에 걸쳐 발전시켜온 공지전투 교리였으며, 군사혁신은 군사교리의 발전으로부터 출발하여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공지전투 교리가 무기체계 개발과 조직편성의 변화를 이끌어 군사혁신을 성공할 수 있었다.

공지전투 교리는 기동력과 화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보다 우위의 기동력과 강력한 화력을 구비한 새로운 무기체계를 확보해야만 하였다. 공지전투 교리에 의한 작전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이미 1972년부터 미육군교육사령부에서 드푸이 교육사령관과 전문가 그룹이 격리 생활까지 하면서 무기개발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하였다.

1989~1991년 사이에 미 육군의 거대한 변화를 이끌었던 미 육군참모총장 칼 부오노(Carl E. Vuono)는 미래에 전투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에 따라 연구개발 자금의 분배를 주도하였고, 이는 다시 군사 원천기술개발과 첨단장비의 전력화를 촉진시켰다.¹⁹⁹⁾ ‘Big 5’로 상징되는 미군의 현대화는 기술의 이점을 활용하여 새로운 장비가 최상의

198) 권태영·노훈, 『21세기 군사혁신과 미래전』, p. 168.

199) John Sloan Brown, *KEVLAR LEGIONS(The Transformation of the US Army 1989~2005)*, p. 66.

효과를 발휘하도록 교리 최신화, 조직 재정비, 운영자 교육, 지속성 보장 등 종합 패키지로 야전에 배치되도록 계획하였다. 이를 통하여 미 육군이 개발한 아브람스 전차, 브레들리 장갑차, 아파치 공격헬기, 블랙호크 기동헬기, MLRS 등은 걸프전에서 이라크군보다 절대 우위의 전력으로 위력을 발휘하였다. 이와 함께 공군의 정밀폭격시스템, 스텔스 항공기, AWACS, JSTARS, 장거리 전략폭격기, ECM 체계와 각종 센서들도 강력한 전력으로 개발되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싸우는 방법인 공지전투 교리는 미군의 과학기술 활용을 더욱 촉진 시키기도 하였다.

걸프전에서 새롭게 등장한 미군의 새로운 무기체계는 미국이 베트남전 이후 발전시킨 공지전투 개념의 구현을 위해 장기간에 걸친 집단지성의 산물이었다. 새로운 무기체계들이 1991년 걸프전에서 효용성을 증명된 것은 무기체계를 먼저 개발한 것이 아니라, 기획단계부터 ‘미래에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먼저 발전시키고, 싸우는 개념에 맞춰 무기 개발 소요를 제안하고 결정하여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군사교리의 발전이 선행된 이후에 무기체계의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군사혁신의 성공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많은 예산의 투입을 필요로 하는 현대적 의미의 군사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사교리 발전이 선행하여 무기체계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공지전투 교리의 채택은 미군의 상부 지휘구조의 변화와 함께 하부 부대구조도 개선하였다. 참모총장 칼 부오노(Carl E. Vuono)는 공지전투 교리의 적용이 가능한 최상의 부대구조 발전을 역설하면서 조직편성의 혁신을 주도하였다. 부대구조는 무기의 중량과 치명성을 고려한 중(重)사단과 경(輕)사단 편성, 전투부대·전투지원 및 전투근무지원부대의 균형 그리고 현역과 예비군 부대의 적절한 배합을 추구하였다. 이처럼 공지전투 교리는 상부구조와 하부구조까지 새로운 조직편성의 변화도 견인하여 군사혁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미군은 기동력과 화력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공세적이고 주도권 지향의 공지전투 교리에 기반하여 새로운 무기체계를 전력화하고, 새로운 개념의 작전수행이 가능한 조직편성을 갖추고 걸프전에 임하여 새로운 방식의 전쟁을 수행하여 승리를 달성하였다. 걸프전은 군사혁신의 요소인 군사교리, 무기체계, 조직편성 중에서 군사교리가 주도하는 교리주도형 군사혁

신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미국이 베트남전 이후 단행한 군사혁신은 군사교리의 발전에서부터 출발하여 장기간에 걸친 노력과 집단 지성의 산물로 공지전투라는 혁신적인 교리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공지전투 개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군사기술 발전과 ‘Big 5’와 같은 전력소요를 창출하여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공지전투 개념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조직편성을 혁신하여 가장 잘 준비된 상태로 걸프전에 임하여 전쟁수행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다.

미군의 군사혁신은 군사교리가 주도하여 무기체계와 조직편성의 변화를 함께 견인하고, 전투력의 상승효과와 전쟁수행방식을 혁신함으로써 군사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제 5 장 크림반도 군사작전과 군사혁신

제 1 절 러시아의 크림반도 군사작전 수행

1.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 배경

2014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군사적 개입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였다. 러시아의 개입 배경은 첫째,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친러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양국간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1917년부터 1954년까지 제정러시아의 일부로 존재하였고, 1991년까지 구 소련을 구성하는 공화국이었다. 특히,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세바스토폴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복한 곳이며, 1954년 후르시췌프가 우크라이나에 증여²⁰⁰⁾하기 전까지 러시아 공화국의 영토였다. 따라서, 크림반도 인구의 과반수가 러시아인이었고, 크림 자치공화국의 86.5%가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2013년 우크라이나 인구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인이 56%, 우크라이나인 24%, 타타르인 12%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91년 1월 크림반도 국민투표에서는 주민의 93.2%가 러시아에 귀속 및 연방 존속에 찬성하기도 하였다.²⁰¹⁾ 따라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전통적 영향권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크림 합병 기념 연설에서 “키에프는 러시아의 발상지이며,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은 같은 민족임을 강조하고 러시아의 문명공동체의 중심”²⁰²⁾이라고 강조하였다.

둘째, 우크라이나는 군사적으로 NATO와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이었다. 구 소련의 붕괴 이후 서유럽의 동진은 러시아의 전통적인 위기의식을 더욱 심화시켰다. 따라서 러시아는 크림반도에 위치한 흑해함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우크라이나와 소유권 분쟁을 지

200) 러시아는 1654년 중세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제국에 편입하는 ‘페레야슬라프(perelyaslave) 조약’을 양국간의 통일도 규정하며, 1954년 이 조약 체결 300주년을 맞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재통일을 기념하여 선물로 양도하였다. Colby Howard & Ruslan Pukhov, *Brothers Armed: Military aspects of the crisis in Ukraine* (Mineapolis: East View Press, 2014), pp. 4~5.

201) Colby Howard & Ruslan Pukhov, *Brothers Armed: Military aspects of the crisis in Ukraine*, p. 8.

202) Vladimir Putin, “Address by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March 18, 2014.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26652058>, 검색일 : 2021. 3. 27.

속하여 1995년에 러시아의 엘친(Boris Yeltsin)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크라프츠크(Leonid Kravchuk) 대통령이 흑해함대 문제 해결에 합의하여, 러시아는 세바스토폴 등 항구 4곳을 조차하고 25,000명의 병력을 주둔하기로 하였다.²⁰³⁾

반면에 NATO의 동진과 미국의 MD체제가 확대되어 냉전시 소련의 위성 국가였던 동유럽국가와 발트 3국이 NATO에 가입하고, 미국의 MD체제하에 들어갔다.²⁰⁴⁾ NATO는 발트 3국~폴란드~헝가리~루마니아~불가리아로 이어지는 완충지대를 형성하여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였으며, 러시아는 NATO의 동진과 MD체제의 확대로 이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이 크게 축소될 것을 우려하였다. 나아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서유럽 세력에 대항하는 데 가장 중요한 완충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이 자신의 대서방 완충지대가 해체되는 전조로 판단하였다.

셋째, 우크라이나는 <그림 5-1>과 같이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지역이었다. 러시아는 후르시초프에 의해 귀속된 크림반도가 자신들의 고유 영토임을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는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이 작용하는 곳²⁰⁵⁾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 전략적 가치가 충돌하는 지역이었다. 서방과의 긴밀한 관계를 주장하면서 당선된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압력에 굴복하여 친러시아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이에 서부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러시아를 자극하였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을 버리고 서유럽에 가까이 가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우크라이나가 대외정책을 추진하면서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친러시아 혹은 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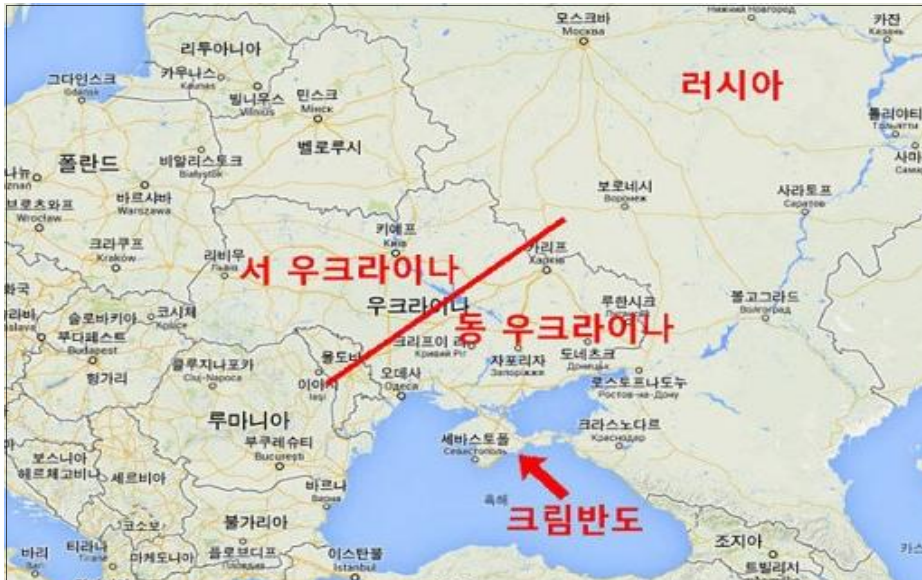
203) Colby Howard & Ruslan Pukhov, *Brothers Armed: Military aspects of the crisis in Ukraine*, p. 17.

204) 미국의 대유럽 MD 계획은 4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1단계(2011)는 스페인 로타항에 미국의 이지스함 4척을 배치하고, 터키에 레이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단계(2015)는 루마니아에 SM-3 요격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고, 3단계(2018)에는 폴란드에 SM-3 요격미사일을 배치하였다. 4단계(2020)에는 미국 도달 장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 국방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3단계까지 이행하고 4단계는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3031795368>, https://www.ytn.co.kr/_ln/0101_201705021155594505, 검색일 : 2021. 3. 27.

205) 미어샤이머는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러시아는 ‘NATO와 EU의 확대 및 민주주의 제도 이식’으로 러시아의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으로 인식하여 개입하였다고 진단하였다. John J. Mearsheimer, “Why the Ukraine is the West’s Fault: The Liberal Delusion That Provoked Putin,” *Foreign Affairs* Vol. 93, No. 5(September/October, 2014), pp. 80~89.

방을 선택하도록 강요당했다는 것이다.

〈그림 5-1〉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요충지



반면에 러시아는 2000년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²⁰⁶⁾를 창설해 러시아가 주도하는 경제블록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우크라이나도 2002년 준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나, 2004년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가 EU와 FTA 체결, EU 가입을 추진하면서 러시아와 갈등이 발생하였다. EU와 유라시아 경제공동체는 상호 배타적인 기구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EU와 FTA를 체결한다면 자신이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공동체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러시아가 추진하는 구소련권 국가의 단일 경제체제 구상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었다.²⁰⁷⁾

넷째, 러시아가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국방개혁을 통한 새로

206)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Community)는 벨로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및 러시아 등 5개국이 2000년에 설립한 국제협력기구이다. 회원국 간 무비자 자유이동 보장, 대학 상호 입학 가능성 확보 및 학위 상호 인증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준회원국으로는 몰도바(2003), 아르메니아(2002), 우크라이나(2002) 등 3개국이 있다. 한림대 러시아 연구소,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구상과 한·러 관계의 새로운 모색”,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 14-2호(2014), pp. 5~8.

207) 육군군사연구소,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군사적 개입의 정책·전략적 특징을 중심으로-』 (2015), pp. 10~12.

은 국방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게라시모프는 현대전에서 적 양상은 ‘정치적·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군사적 수단의 역할이 증가하고, 비군사적 수단이 효율성 면에서 군사력을 넘어선다’고 주장하며 전쟁의 특성이 정치적 목적을 성취하는 것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²⁰⁸⁾ 따라서 NATO의 동진은 러시아의 이익에 위협이 되는 최대의 안보위협으로 인식하면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극구 반대하였다.

러시아는 1991년 구 소련 해체와 미국의 걸프전 수행을 목도하면서 ‘강한 러시아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을 추진하였다. 러시아는 8명의 국방장관이 교체되면서 변화하는 미래전을 예측하여 동원체제 전환, 모병제와 징병제의 적용 등 국방개혁을 추진하였지만 국방예산의 부족 및 낭비, 군의 반대 등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NATO의 전면전 위협보다 국지분쟁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단 체제로 부대를 개편하고 무기를 현대화하였다. 또한 지휘구조를 5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여 2009년까지 232개 사단을 해체하고 85개 여단을 창설하는 등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였다.²⁰⁹⁾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냉전 이후 경제난, 안보 불감증과 국론분열 등으로 국방개혁에 실패하여 훈련조차 실시하지 않는 무기력한 군대²¹⁰⁾를 유지하고 있었다.

2. 러시아의 크림반도 군사작전

2013년 11월 21일 우크라이나의 야누코비치(anukovych) 정부는 EU와의 경제 협력과 지원에 관한 협상²¹¹⁾ 중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親러시아 정책을 선택하였다.²¹²⁾ 이에 야권과 일반 대중이 반발하며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광장에서 시작된 시위를 우크라이나 정부가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하면서 사태가 악화되어 유로마이

208) Valery Gerasimov, “The Value of Science is the Foresight: New Challenges Demand Rethinking the Forms and Methods of Carrying out Combat Operations,” *Military Review*, (January-February, 2016), pp. 24~25.

209) Colby Howard & Ruslan Pukhov, *Brothers Armed: Military aspects of the crisis in Ukraine*, pp. 123~136.

210) 우크라이나는 대규모 병력 감축으로 육군 41,000명 중 실전 투입이 가능한 병력은 6,000여 명에 불과하였고, 전투기 25대 중 4대만 실전 투입이 가능하였다.

211) 우크라이나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2013년 11월 29일에 리투아니아 정상회담에서 EU와의 협력협정 체결이 예정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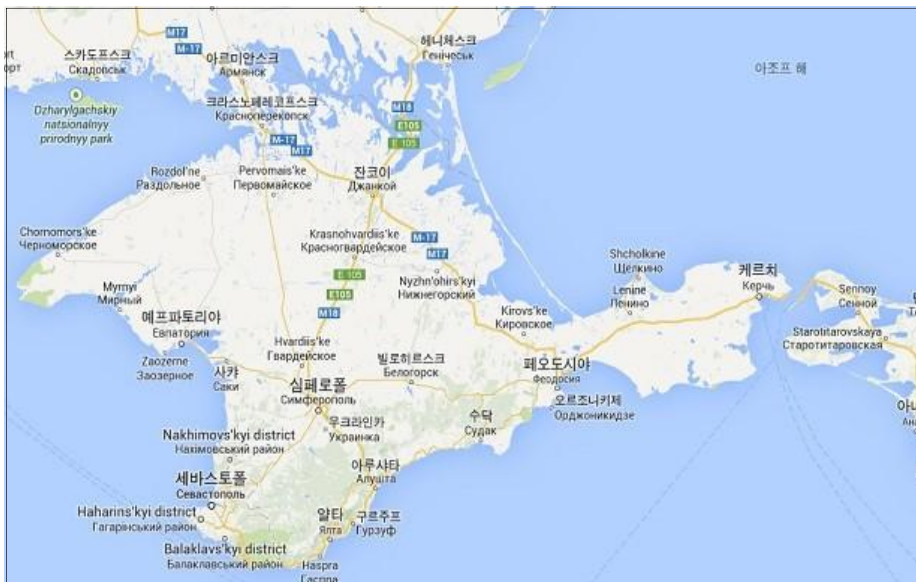
212) 강정일, “러시아의 팽창정책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 : 지정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 25권 2호(서울 : 세종연구소, 2019), p. 147.

단(Euromaidan) 혁명²¹³⁾으로 발전하였다.

2014년 2월 23일 우크라이나 의회는 시위 사태의 악화 책임을 물어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탄핵하고, 친서방 성향의 투르치노프(Olexander Turchinov)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과도정부가 출범하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유로마이단 혁명이 발생하자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크림반도를 장악하기 직전인 2월 26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서부 및 중부군관구 지역부대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하였다. 그의 시찰 목적은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가 군사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우크라이나 국경에 러시아 군부대를 재배치하고 크림반도에서 특수부대 스페츠나츠(spetsnaz)와 공수부대의 배치를 은폐하는 것이었다.

〈그림 5-2〉 크림반도의 주요 도시



2월 27일 러시아 특수부대원들이 현지 민병대로 위장하여 크림공화국 정부청사와 의회를 장악하였고, 추가적으로 300명의 병력을 태운 상륙함이 크림반도에 도착하였다. 야간에는 군(軍)표식을 제거한 특수부대인

213) 유로마이단(Euromaidan)은 직역하면 유럽광장이란 의미로 Euro는 유럽을, Maidan은 시위의 중심인 키예프의 마이단 네잘레즈노스티 독립광장을 의미한다. 이는 유럽 통합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일으킨 대규모 봉기로 오렌지혁명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가장 큰 시위이다.

“Little Green Men” 을 투입하여 세바스토폴 북쪽에 위치한 벨벡(Belbek) 공군기지를 포위하였다. 2월 28일 아침에는 3대의 MI-8 수송헬기와 8대의 MI-35M 공격헬기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진입하여 우크라이나의 기갑부대를 무력화시키는 가운데 심페로폴(Simfelopol) 공항도 점령하였다.²¹⁴⁾

3월 1~2일에는 러시아의 증원병력이 상륙함을 통하여 큰 저항없이 전개되어 크림반도의 군사기지와 시설들을 빠르게 포위하거나 점령하였다. 항구에 정박된 우크라이나 함정들은 러시아 특수부대들에 의해 차단되었고, 러시아군은 비폭력적으로 점령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크림반도 전역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병력들을 부대 내에 가두어 놓고, 크림반도 내에 주둔한 우크라이나 군사기지를 포위하여 사실상 크림반도를 장악하였다.

한편 3월 2일 러시아 상원은 푸틴 대통령이 크림반도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도록 승인하였다. 3월 6일부터 러시아는 크림반도 동쪽 케르치 해협 주변으로 소총여단, 전인포, 방공포 부대들을 차출하여 재래식 전력을 증강하고, 러시아군에 대한 시선을 돌리기 위해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지대에 병력을 증강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러시아군은 크림반도 북부지역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본토로부터 단절시켰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본토와 크림반도 내 군부대 사이의 지상통신을 단절시키고, 함정에 탑재된 장비를 활용하여 지역 내 핸드폰 신호를 교란시켰다. 또한 러시아 정보국은 현지 민병대, 코사크(Cossacks, 크림반도내 동슬라브계 민족), 베르쿠트(Berkut) 등으로 이루어진 자위부대를 조직하여 운용하였고, 공수부대도 현지 주민의 질서 통제를 위해 경찰복을 착용하고 민병대(local security forces)로 위장하였다.²¹⁵⁾

3월 6일에는 크림공화국 의회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여 러시아로의 합병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3월 16일 주민투표 결과 97%가 러시아와 합병에 찬성하였다. 3월 21일 드디어 푸틴 대통령이 크림공화국을 러시아 연방에 합병하는 문서에 서명하고, 4월 2일 부로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남부군관구로 편입함으로써 러시아는 군사작전을 실행한 지 약 1주일 만에 직접적인 피해 없이 크림반도를 합병하였다.

214) Michael Kofman, Katya Migacheva, Brian Nichiporuk, Andrew Radin, Olesya Tkacheva, Jenny Oberholtzer, *Lessons from Russia's Operations in Crimea and Eastern Ukraine*, (RAND Corporation, 2017), pp. 6~9.

215) Michael Kofman, Katya Migacheva, Brian Nichiporuk, Andrew Radin, Olesya Tkacheva, Jenny Oberholtzer, *Lessons from Russia's Operations in Crimea and Eastern Ukraine*, pp. 10~11.

제 2 절 군사교리와 전쟁수행방식의 혁신 : 하이브리드전

1. 러시아의 차세대전과 게라시모프 독트린

러시아는 현대전의 작전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전쟁양상의 출현을 장기간에 걸쳐 연구해 왔으며 이를 ‘차세대전’ (new-generation war)²¹⁶⁾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러시아의 코프츠코(V. K. Kopytko)는 2000년대에 들어 현대전에서 직면하게 될 위협의 본질이 변화하고 국지전과 무력분쟁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들의 장거리 정밀무기와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무기에 대한 적응, 새로운 작전개념과 수단의 사용, 정보전의 역할, 지휘통제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5세대 전쟁²¹⁷⁾에 대한 작전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¹⁸⁾

러시아의 작전술 연구를 주도해온 가레예프(Makhmut Gareev) 장군은 기술진보로 재래식 무기의 파괴력이 증가되고 새로운 무기가 등장함으로써 전쟁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진단하고, 미래전에서 정보전과 통합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전의 수단과 방법이 과거보다 정교해지고, 컴퓨터와 통신매체가 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즉각적인 대응, 명령과 통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적의 통신, 레이더, 명령 및 통제체계를 파괴하기 위한 전자전이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측하였다.²¹⁹⁾

1991년 걸프전을 관찰한 슬립첸코(Vladimir Slipchenko) 장군은 정보화와 정밀타격시스템 개발을 지칭하는 ‘6세대 전쟁’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

216) 러시아는 하이브리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차세대전’ 개념이 통용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에 대해 일반적으로 비정규전, 심리정보전, 사이버전 등이 혼합된 전쟁방식을 칭하여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전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는 ‘모호전’ (ambiguous warfare) ‘비선형전’ (unlinear war) 등으로도 불린다.

217) 코프츠코는 2008년 「러시아 작전술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세미나에서 1세대 전쟁은 1920~1940, 2세대 전쟁은 1941~1953, 3세대 전쟁은 1954~1985, 4세대 전쟁은 1985~2000년 시기를, 2012년에 들어 현대전을 5세대 전쟁이라 분류하였다.

218) Peter A. Mattson & Niklas Eklund, “Russian Operational Art in the Fifth Period : Nordic and Arctic Applicationa,” *Revista de Ciencias Militaries*, Vol. 1, No.1(May 2013), p. 40.

219) Peter A. Mattson & Niklas Eklund, “Russian Operational Art in the Fifth Period : Nordic and Arctic Applicationa,” pp. 38~39.

는 걸프전에서 정보와 정밀타격체계의 발전을 관찰하고 중심값은 적의 중심을 직접 타격하는 비접촉전투 수행능력이 발전할 것으로 예측하여, 미래전에서 ‘비접촉전투’ (no-contact warfare)를 강조하였다.²²⁰⁾ 현대전에서는 공중 및 우주에서 초정밀무기에 의한 타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과 직접 접촉 없이 원거리에서 적을 타격할 수 있게 되므로 정보전의 중요성이 보다 증대되고 명령과 통제를 위한 전 세계 통신망이 등장하며, 통합적인 타격능력이 중요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²²¹⁾ 그러한 작전수행을 위해 C4ISR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하며,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03년 국방백서에서 러시아는 전방위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대전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²²²⁾ 2008년 조지아 전쟁 시 러시아는 전쟁을 개시하기 전에 조지아 정부기관과 민간 인터넷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가하여 전쟁 초기 조지아의 주요 정보흐름을 방해하였다. 사이버 공격은 러시아군의 조지아 국경으로 이동을 은폐시키고, 조지아의 주요 네트워크에 침투해 정찰 임무를 수행하면서 공중폭격효과를 높였다.²²³⁾ 이처럼 사이버전을 통하여 정규전과 사이버전이 배합된 형태로 하이브리드전 양상이 전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정교한 전략과 전술로 발전시켜왔다.

러시아군 총참모장 게라시모프(Valery Gerasimov)는 2013년 1월 러시아 군사과학원²²⁴⁾ 총회의 기조연설에서 “21세기 전쟁의 특징과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새로운 독트린과 전략을 형성하는데 연구하고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였는데 이것이 ‘게라시모프 독트린’²²⁵⁾으로 불리고 있다. 게라시모프는 현대전의 양상은 <표 5-1>과 같이 ‘전쟁의 특

220) Jacob. W. Kipp, “Russian Sixth Generation Warfare and Recent Developments,” *Eurasia Daily Monitor* Vol. 9, Issue. 17, January 25, 2012, p. 35.

221) Peter A. Mattson & Niklas Eklund, “Russian OPERational Art in the Fifth Period : Nordic and Arctic Applicationa,” pp. 35~37.

222) Peter A. Mattson & Niklas Eklund, “Russian OPERational Art in the Fifth Period : Nordic and Arctic Applicationa,” pp. 32~34.

223) David Holls, “Cyberwar Case Study: Georgia 2008,” *SMALL WARS JOURNAL* (January 6. 2011), p. 3.

224) 러시아 군사과학원은 1995년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국방정책에 관한 러시아연방 최고의 연구소이다.

225) Valery Gerasimov, “The Value of Science is the Foresight: New Challenges Demand Rethinking the Forms and Methods of Carrying out Combat Operations,” *Military Review* (January-February 2016), pp. 24-25.

성’ 이 변화되어 정치적·전략적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군사적인 것보다는 비군사적인 것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변화된다고 주장하였다. 21세기에는 전쟁과 평화의 상태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전쟁은 더 이상 선언되지도, 시작되지도 않으며, 익숙한 형태로 진행되지 않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였다.

<표 5-1> 전쟁의 특성 변화(정치적 목적 달성)

전통적 형식과 방법	새로운 형식과 방법
군사력 사용	군사력 및 비군사적 방식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배치 이후 군사작전 개시 · 지상군 기반의 군 구성, 대규모로 배치된 전투부대가 최전방에서 충돌 · 병력과 무기의 파괴, 이후 영토 장악을 목표로 전선과 전역을 점유 · 적의 격멸, 경제적 잠재력 파괴 및 영토 점령 · 지상·해상·공중에서 전투 수행 · 체계적으로 구성된 명령-통제의 위계적 구조하에 전투부대에 대한 명령·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시 배치된 전투부대에 의한 군사작전 개시 · 전투부대의 고도의 운용성과 비접촉 전투 · 단기간내 군과 국가중요시설 파괴로 국가의 군사·경제 잠재력 축소 · 고도정밀무기의 대량 사용, 특수부대 및 로봇체계와 새로운 물리력에 기반을 둔 무기의 대규모 사용 및 전투작전에 민·군 요소의 투입 · 적의 중심에서 전투부대와 시설에 동시 영향 · 실제 환경과 정보공간에서의 동시 전투 · 비대칭적·간접적 작전 활용 · 통합된 정보공간에서 군과 자산의 명령·통제

출처 : Bartles, Charles K. “Getting Gerasimov Right,” *Military Review* (January-February 2016), p.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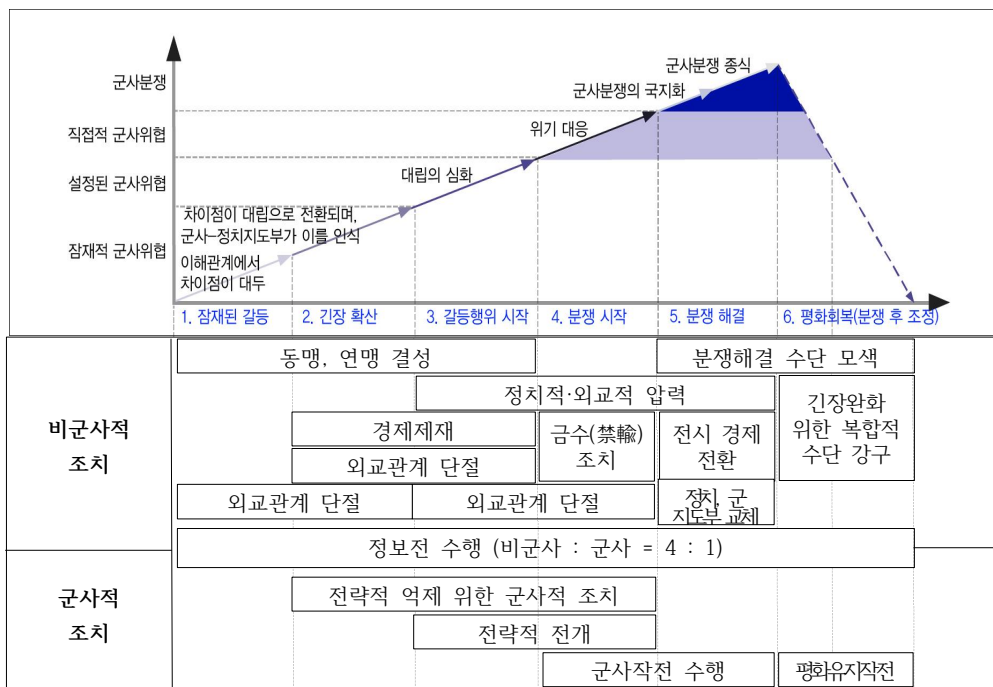
따라서 정치적·경제적·국제적·인적 및 다른 비군사적 조치의 광범위한 운용과 함께 정보전, 특수부대 등 은폐된 군사적 수단들이 지원되며, 재래식 군사력은 종종 평화유지와 위기관리라는 명목으로 분쟁의 최종적 승리를 위해 공개적으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러시아는 이러한 전쟁의 특성 변화와 함께 기술발전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고, 게라시모프는 항공, 해상, 우주에서 작동하는 고정밀·원거리체계를 이용해 적과 비접촉 통제방식에 의해 군사적 목표를 파괴할 수 있는 인접국가의 ‘첨단 전투기술’의 발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보았다. 러시아는 이러한 개념을 반영하여 총 20조 루블이 투입되는 ‘국

가무기체계 현대화 계획 2011-2020’²²⁶⁾을 추진하였다.

게라시모프는 ‘분쟁 발전의 주요 단계’ 모델을 함께 제시하였다. 그는 현대전에서 분쟁 단계를 잠재된 갈등 → 긴장확산 → 갈등행위 시작 → 분쟁 시작 → 분쟁 해결 → 평화회복(분쟁 후 조정)의 6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는 군사적 행동을 시행하기 이전에 정치적·경제적 및 정보 노력을 선행하고, 갈등의 고조로부터 분쟁의 해결단계까지 국가가 각 단계의 사건들을 강력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림 5-3> 게라시모프의 분쟁 발전의 주요 단계



출처 : US ASOC, “Little Green Men”: a primer on Modern Russian Unconventional Warfare, Ukraine 2013-2014 (2015), p. 50.

1단계 ‘잠재된 갈등’은 대상국의 역사·정치·경제·사회적 갈등요인을 탐색하는 단계이다. 2단계 ‘긴장 확산’은 정치·군사적으로 대상국의 사회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대상국 내의 NGO,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을 자극하기 위하여 정치·외교적 수단, 특

226) 러시아는 현재 ‘무장계획 2027’ (2018-2027)을 추진하며 미래전에 대비한 차세대 무기체계를 전력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육군교육사, 『월간 작전환경분석』 19-1호, p. 4.

수부대 활동, 미디어 등을 이용하여 현지 분리주의 운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대상국 국경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행하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한다. 3단계 ‘갈등행위 시작’ 단계는 대상국의 중앙정부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대상국가에서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 및 폭동 조직을 지원하고, 현지 반정부 세력으로 가장한 특수부대원들과 범죄조직에 의해 파업을 일으키기도 한다. 4단계 ‘분쟁 시작’은 정규군을 투입하여 공개적·직접적으로 군사위협을 가한다. 예를 들면 대상국의 재래식 공격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천명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동시에 분쟁이 확산될 수 있음을 위협하며 전쟁 직전 단계까지 군사력을 운용한다. 5단계 ‘분쟁해결’은 괴뢰정부를 수립하여 군사분쟁의 종식을 유도하는 단계이다. 대상국에서 분리·독립운동에 관한 국민투표와 괴뢰정부 수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강력한 외교 및 언론 활동으로 분리·독립운동을 뒷받침한다. 마지막 ‘평화회복’ 단계에서는 사회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점령한 영토에 군대를 주둔시켜 치안을 확보하고, 정치·사회·경제적 지원으로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단계이다.

이러한 분쟁 발전 6단계 모델은 비군사적 수단과 군사적 수단을 4:1 비율로 비군사적 수단의 역할을 중요시하며, 적 부대와 주민의 저항의지를 분쇄시키기 위한 정보전·심리전의 역할을 강조한다. 또한 전쟁과 평화의 구분이 모호하고 별도로 전쟁을 선포하지 않으며, 직접적인 갈등과 충돌을 회피하면서 대상국의 취약점을 최대한 이용한다.²²⁷⁾

게라시모프 독트린의 가장 큰 특징은 이와 같이 군사교리라 할 수 있는 ‘분쟁 발전의 주요 단계’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군사교리의 핵심인 구체적인 군사행동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군사력 건설과 운용에 관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국방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크림반도에서 정교하게 발전시킨 하이브리드전을 수행함으로써 정치적·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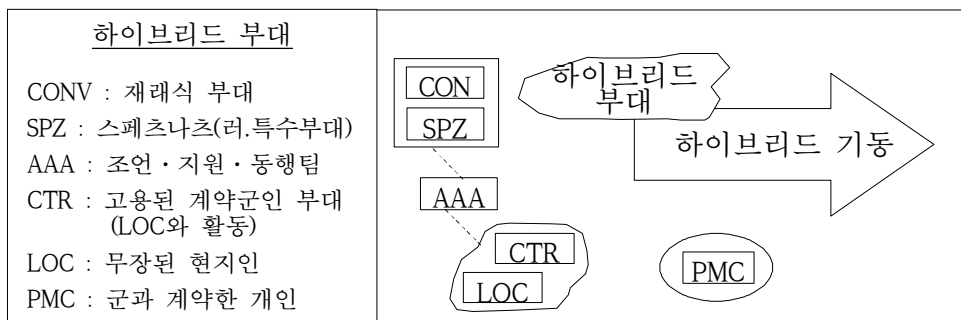
2. 크림반도에서의 하이브리드전 수행

러시아의 크림반도 군사작전은 하이브리드전 개념을 적용하여 새로운 현대전 전쟁수행방식을 보여주었다. 러시아의 새로운 전쟁수행방식을 서구에

227) Bartles, Charls K, “Getting Gerasimov Right,” *Military Review* (January-February 2016), p. 35.

서는 ‘러시아의 차세대 전쟁’ (RNGW), ‘제 4세대 전쟁’ (4th Generation Warfare), ‘하이브리드전’ (Hybrid Warfare)²²⁸⁾ 등으로 불린다. 러시아가 차세대전에서 설정한 목표는 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다. 모든 정권교체가 군사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사적 개입이 시작되면 분쟁에 지역 주민들이 관련되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지역주민들이 가담하게 되면 러시아는 세계적으로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 할 명분을 갖게 되며 필연적인 행동으로 여기게 만드는데, 이것이 하이브리드 전술이다.

〈그림 5-4〉 하이브리드 부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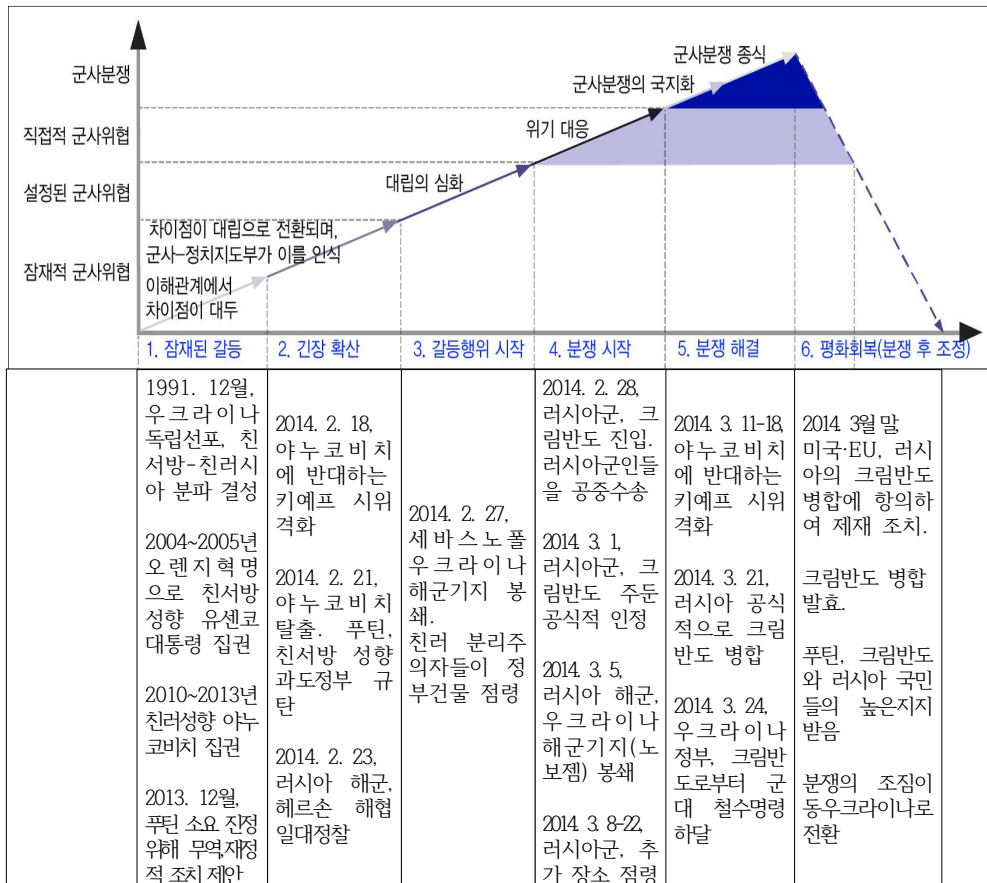
출처 : Asymmetric Warfare Group, *Russian New Generation Handbook* (US Army, 2016), p. 4.

미국에서 분석한 하이브리드 부대 구성은 〈그림 5-4〉와 같으며, 하이브리드전의 전개과정에서 여러 지역 단위에 편성된 부대들이 분쟁에 투입된다. 이 부대들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친러파에 속하며 러시아군과 유사한 조직구조를 갖고 러시아의 AAA팀²²⁹⁾이 보급한 기본 장비들을 보유하게 되며, AAA팀은 하이브리드 부대편성에 파견된 러시아 장교들에 의해 하이브리드 부대 작전을 동시에 수행한다.

228)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은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을 융합하여 전쟁 상대국만이 아니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심리 및 인식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외교, 선전, 기만, 역정보 등 다양한 비군사적 수단을 사용한다. 이는 재래식 능력, 비정규전, 테러행위 등을 포괄하는 상이한 전쟁양상의 전 영역을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전쟁 양상이다. Frank. G. Hoffman, *Conflict in the 21st Century: The Rise of Hybrid Wars* (Arlington Virginia: Potomac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07), p. 8.

229) AAA팀은 “Advise, Assist, Accompany”의 약자로 지역 단위로 편성된 부대들에 대하여 ‘조언하고, 지원하며, 동행하는’ 팀을 말한다.

〈그림 5-5〉 크림반도에서의 주요 분쟁 단계



출처 : US ASOC, “*Little Green Men*”: a primer on Modern Russian Unconventional Warfare, Ukraine 2013-2014, p. 51.

하이브리드 전술은 전략적·작전술적 임무를 고려하여 러시아의 재래식 부대에 앞서서 다수의 지역주민들을 분쟁에 가담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²³⁰⁾ 크림반도 군사작전은 <그림 5-5>와 같이 게라시모프가 제시한 ‘분쟁 발전의 주요 단계’ 모델을 적용하여 하이브리드전 수행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가. 잠재된 갈등(1991. 12월 ~ 2013. 12월)

잠재된 갈등 단계는 우크라이나가 1991년 12월 구 소련으로부터 독립

230) Asymmetric Warfare Group, *Russian New Generation Handbook* (US Army, 2016), p. 4.

이후 친서방파와 친러파로 분파가 형성되어 내부적인 갈등이 존재하는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친서방파와 친러파의 교차 집권으로 정치·사회적으로 불안정한 가운데 소요가 발생하였다.

2004년 우크라이나에서 ‘오렌지 혁명’을 통하여 친서방 성향의 유신코 대통령이 집권하였는데, 이를 두고 러시아는 미국과 EU의 배후 조종에 의해 촉진된 쿠데타로 간주하였다. 러시아는 미국이 ‘색깔혁명 기술’(technology of colour)을 이용하여 자국의 영향권 확대(sphere of influence)를 위하여 CIS 국가들의 친서방파를 지원함으로써 색깔혁명을 매개로 러시아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²³¹⁾

1990년대 말 러시아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NATO가 독일로부터 러시아 국경과 가까운 동유럽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었다. 우크라이나가 NATO에 합류하게 될 상황을 가정하여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 전략가들은 주요 해군기지가 있는 크림반도에 대한 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²³²⁾ 그리하여 새천년이 시작되기 전부터 러시아는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은밀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서유럽과 경제적인 연합을 추구는 푸틴이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하게 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동부지역은 러시아를, 서부지역은 유럽을 지지하여 국민이 양분되어 있었다. 2010년 대통령 선거로 당선된 야누코비치는 친러 성향으로써 기존 EU와 추진해 왔던 친서방 정책들을 무시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게 되자, 친서방 성향의 서부지역에서 ‘유로마йд안’ 시위로 명명되는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다. 야누코비치가 위기에 처하자 푸틴 대통령은 2월 5일 우크라이나에 차관 지원 계획을 취소하면서 기존의 상환 만기 차관에 대해 즉각 상환을 요구하였고, 2월 9일에는 천연가스 대금을 즉시 결제하지 않으면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제적 압박을 가하였다.²³³⁾

2012년 11월 총선에서 승리한 야누코비치 대통령에 대하여 러시아는

231) Wilson Jeane, “Coloured Revolutions: The View from Moscow and Beijing,”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and Transition Politics* 25 (2009), p. 370.

232) US ASOC, “Little Green Men”: a primer on Modern Russian Unconventional Warfare, *Ukraine 2013-2014* (2015), p. 50.

233) 육군군사연구소,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군사적 개입의 정책·전략적 특징을 중심으로-』, p. 79.

EU에 통합되는 것을 철회하도록 외교적인 압력을 가하면서, EU와의 협력 협정과 포괄적인 FTA를 체결하고자 했던 계획을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²³⁴⁾ 결국, 2013년 11월 21일 친러 입장의 우크라이나 야누코비치 정부는 EU와 협력 협정 체결 중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²³⁵⁾. 이에 야권과 일반 대중이 반발하며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광장에서 시작된 시위를 우크라이나 정부가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사태가 악화되어 유로마이단(Euromaidan) 혁명²³⁶⁾으로 발전하였다.

그달 말 야누코비치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자 키예프 경찰이 군중들을 해산시키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지만, 시위 군중의 숫자는 더욱 늘어났다. 이에 따라 유로마이단 운동은 서방과 긴밀한 관계를 요구하고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위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차세대전’을 사용하도록 자극하였다.

잠재된 갈등 단계는 중요한 경제적·외교적 조치를 포함한다. 12월 16일에 야누코비치의 모스크바 방문에 따라, 푸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하여 150억 달러의 차관 제공과 수입 천연가스의 가격 인하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우크라이나의 재정적 취약점을 겨냥하였으며, 푸틴의 정보전 주제 중의 하나인 러시아와의 제휴가 우크라이나인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인식하게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EU와 IMF는 우크라이나가 분명한 긴축정책으로 부채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²³⁷⁾

이러한 러시아의 대책은 야누코비치에 대한 대중의 저항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이며, 푸틴은 대통령과 야당들 사이에 협상을 용이하게 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2014년 1월 중순까지 계속된 항의 시위로 인해 야누코비치의 지역당들이 의회에서 시위가담자들을 수감, 별

234) US ASOC, “Little Green Men”: a primer on Modern Russian Unconventional Warfare, Ukraine 2013-2014, p. 53.

235) 우크라이나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2013년 11월 29일에 리투아니아 정상회담에서 EU와의 협력협정 체결이 예정되어 있었다.

236) 유로마이단(Euromaidan)은 직역하면 유럽광장이란 의미로 Euro는 유럽을, Maidan은 시위의 중심인 키예프의 마이단 네잘레즈노스티 독립광장을 의미한다. 이는 유럽 통합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일으킨 대규모 국민적 봉기로 오렌지혁명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최대 규모의 시위이다.

237) US ASOC, “Little Green Men”: a primer on Modern Russian Unconventional Warfare, Ukraine 2013-2014, p. 53.

금 등 가혹한 처벌로 그들을 위협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달까지 격렬한 충돌이 계속되었고 그 결과 6명의 반정부 시위자들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수감되었다.

나. 긴장확산(2014. 2. 20. ~ 22.)

러시아는 2월 초에 주로 키예프에 대한 공격적인 선전의 형태로 외교적·정치적 노력과 함께 정보전을 본격화하였다. 우크라이나의 친서방파를 파시스트와 나치로 결부시킴으로써 러시아는 정통성 확보를 정보전의 목표로 삼았다. 위기가 고조되자 러시아는 키예프의 정치적 혼란 상황에 계속적으로 개입하고 있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크림반도에 개입에 준비된 계획을 용이하게 실행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2월 말 야누코비치의 실패에 뒤이어 러시아 군사정보국(GRU)은 크림반도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중 봉기’를 유도하는 특수부대원 수백명을 파견하였다. 동시에 GRU 요원들은 러시아계 소수민족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합병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였다. 이 단계에서 러시아의 목표는 이후에 결정적인 군사 및 준군사적 행동에 필요한 정치적 조건을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2월 18일부터 야누코비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더욱 격화되면서 2월 20일 60명 이상의 사람들이 유혈 진압으로 목숨을 잃었다. 푸틴 정부는 심각한 정치적 입지 약화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야당을 분열시키고 교란시키기 위한 강력한 외교적·경제적 압력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키예프에서의 반대파들은 2월 21일 곤경에 처한 야누코비치와의 합의 협상을 진행해왔다. 러시아, 프랑스, 독일, 폴란드가 중재한 이 협정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그해 말까지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3월 초에는 국민통합정부를 수립하여 2004년 헌법으로 되돌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도록 하였다.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21일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자 22일 해외로 도피했다가 러시아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²³⁸⁾

러시아가 키예프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자 푸틴은 크림반도에서 보다 중요한 외교적 움직임을 보였다. 크림반도 의원 블라디미르 클리치니코프

238) 육군군사연구소,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군사적 개입의 정책·전략적 특징을 중심으로-』, p. 6.

를 통하여 크림반도의 개헌과 현상황에 대한 여론조사를 요구하며 “러시아 연방 대통령과 입법부에 크림반도의 자치권과 자유에 대한 불가침의 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호소한다”고 제안했다. 볼로디미르 콘스탄(Volodymyr Konstan) 하원 의원은 긴장이 더 고조되면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분쟁은 러시아의 분쟁 고조 단계와 관련된 활동 개시로 이어졌다.²³⁹⁾ 이 단계는 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력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다. 갈등행위 시작(2014. 2. 22. ~ 26.)

2월 23일 키예프 의회는 러시아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탄핵하고 터치노프(Aleksander Turchynov) 국회의장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하고 대통령 선거를 다가오는 봄에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야누코비치 대통령 탄핵 이후 크림반도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은 장기간에 걸친 러시아의 치밀한 각본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갈등행위 시작 단계는 시위대와 무장 민병대를 포함한 적극적인 반대 세력이 동원되어²⁴⁰⁾, 국내 및 외부지원에 의한 비정규전 부대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분쟁 해결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분쟁이 발생하는 인접지역에 전략적으로 군대를 동원하는 속도와 배치 능력을 향상시켰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의 통치력을 약화하고 분리주의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정치전과 정보전을 더욱 강화하였다. 2월 23일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하여 러시아계 주민에 대한 안전보장을 요구하며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진압작전을 방해하였으며, 러시아 하원 독립국가연합당위원장이 크림반도 수도 심페로폴을 방문하여 “주민투표와 의회 결정 등을 통해 합병 요청이 들어올 경우 이를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며 친러 세력들을 부추기기 시작하였다.²⁴¹⁾ 크림반도에서 가장 많은 군대를 주둔하고 있는 세바스토폴 시장은 12월 24일 러시아인 알렉세이

239) US ASOC, “Little Green Men”: a primer on Modern Russian Unconventional Warfare, Ukraine 2013-2014, pp. 53~54.

240) US ASOC, “Little Green Men”: a primer on Modern Russian Unconventional Warfare, Ukraine 2013-2014, p. 55.

241) 육군군사연구소,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군사적 개입의 정책·전략적 특징을 중심으로-』, p. 77.

찰리(Alexei Chaly)로 교체되었고, 2월 26일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면서 새로운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크림반도에서 신생 중앙정부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더욱 확대되었고, 친러 세력에 의한 분리 독립 움직임이 확산되었다.

유사한 시기에 러시아군은 군대를 은밀히 투입하여 군사작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 2월 22일부터 특수부대들이 기지를 이탈하기 시작하였고, 3~4천 명의 러시아 특수부대와 공수부대가 크림반도 투입을 위하여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 일대에서 불시 준비태세검열 훈련을 실시하였다. 2월 26일 푸틴은 서부 및 중부군관구 지역부대에 대한 불시 점검을 직접 실시하였다.²⁴²⁾ 이를 통하여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가 군사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우크라이나 국경지역에 러시아 군부대를 재배치하고, 크림반도에서 특수부대와 공수부대의 배치를 은폐하였다.

러시아의 특수부대 투입경로는 주로 사전 침투 및 공중이동이었는데 이들을 수송하기 위한 IL-76 항공기 40여 대 중 일부가 크림반도로 진입하는 것이 식별되기도 하였다.²⁴³⁾ 국경지대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훈련은 크림반도에 진입하는 부대들의 이동을 은폐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군의 관심을 유도하여 군이 국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러시아군은 크림반도 내부에서도 우호적인 지역 무장세력들을 조직하는데 집중하였으며, 친러 성향의 전직 무장폭동 진압 경찰인 ‘베르쿠트’ (Berkut)는 키예프 지역의 폭동진압 임무가 해제되어 다시 크림반도로 돌아왔다. 이들은 중앙정부로부터 무장해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러시아 출신인 세바스토폴 시장은 이들을 지원하여 크림반도 치안부대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베르쿠트는 2월 25일 우크라이나 본토와 크림반도 사이의 주요 도로상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우크라이나 중앙정부 세력의 진입을 차단하면서 모든 차량을 검문하기 시작하였다.²⁴⁴⁾ 그리고 러시아에 본부를 두고 구소련 국가들에 지부를 두고 있는 초국가 오토바이 갱단인 ‘나이트 울프’ (Night Wolves) 또한 러시아가 은밀히 운

242) Michael Kofman, Katya Migacheva, Brian Nichiporuk, Andrew Radin, Olesya Tkacheva, Jenny Oberholtzer, *Lessons from Russia's Operations in Crimea and Eastern Ukraine*, p. 9.

243) Colby Howard & Ruslan Pukhov, *Brothers Armed: Military aspects of the crisis in Ukraine*, pp. 162~163.

244) Colby Howard & Ruslan Pukhov, *Brothers Armed: Military aspects of the crisis in Ukraine*, p. 162.

용하는 전력이었다. 나이트 울프는 세바스토폴에 지부를 두고 민간복장으로 경무장하여 주요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²⁴⁵⁾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장악하기 위하여 정치전과 정보전을 강화하여 우크라이나 내부의 분리주의 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고 지역의 확보보다는 인적자원을 우선 장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친러 무장단체를 지원하는 한편 정치인과 군인들을 뇌물로 포섭하여 정치권력을 장악함으로써 러시아에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거나 군 병력들에게는 저항 없이 투항할 것을 권유하는 등 러시아에게 유리한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하였다. 반면에 군사력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라. 분쟁 시작 (2014. 2. 27. ~ 3. 15.)

분쟁 단계에서 러시아는 다양한 비정규전부대와 반정부 시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2월 27일 러시아 특수부대원 50명이 현지 민병대로 위장하여 심페로폴의 크림공화국 청사와 의회를 장악하였다. 당시 의회 건물 주변에는 경찰 300~400명이 출입통제선을 구축한 가운데 최고의 경계태세를 발령하고 있었는데, 세바스토폴에서 온 다수의 친러 무장세력과 비무장 시위대들이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들은 러시아 특수부대의 의회 건물 장악 시도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²⁴⁶⁾

특수부대가 의회 건물을 장악하여 기존 크림공화국의 총리를 축출하고 친러 성향의 ‘세르게이 악쇼노프’를 정식 투표도 없이 총리로 임명하고, 크림공화국의 러시아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어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군사기지를 봉쇄한 가운데 군사력을 투입하기 위한 중요시설들을 장악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러시아군은 세바스토폴, 예브페토리아 등 주요 항구들을 봉쇄하여 우크라이나 해군의 활동을 차단하였다.²⁴⁷⁾ 반면에 러시아 해군은 아무런 저항

245) “Russian Ups the Ante in Crimea by Sending in the ‘Night Wolves,’” *Time*, 2014. 2. 28.

246) Colby Howard & Ruslan Pukhov, *Brothers Armed: Military aspects of the crisis in Ukraine*, p. 164.

247) Colby Howard & Ruslan Pukhov, *Brothers Armed: Military aspects of the crisis in Ukraine*, p. 167.

없이 세바스토폴항에 대형 수송선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보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였다.

2월 28일 공항 외곽에서 나이트 울프 부대들이 도로를 차단한 가운데, 러시아의 하이브리드부대²⁴⁸⁾들은 야간에는 군(軍)표식을 제거한 특수부대인 ‘Little Green Men’을 투입하여 심페로폴(Simfelopol) 공항과 벨벡(Belbek) 공군기지를 포위하였다. 우크라이나 내 공군과 대공기지들이 무력화된 가운데, 2월 28일 아침에는 3대의 MI-8 수송헬기와 8대의 MI-35M 공격헬기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진입하여 우크라이나의 기갑부대를 무력화시키는 가운데 심페로폴 공항도 점령하였다.²⁴⁹⁾

3월 1일부터는 러시아 남부지방의 지원자들로 구성된 준군사조직 코사크(Cossacks)부대가 북쪽의 케르치(Kerch)를 장악하고 배편을 이용하여 소부대 단위로 크림반도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²⁵⁰⁾ 이렇게 케르치가 확보된 이후 지상병력과 보급물자가 이 지점을 통하여 러시아 본토로부터 항구나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러시아군은 크림반도 내부의 심페로폴·벨벡 공항과 세바스토폴 항구, 러시아 본토와 연결된 케르치를 장악함으로써 차후작전 단계에서 장갑차량, 포병, 대공포 부대들을 증원할 수 있게 되었고 크림반도 내의 부대에 대한 보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다.

러시아군은 전쟁종결을 위한 수단으로 가장 먼저 주민투표를 모색하고, 크림반도의 친러 정치인들이 이를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수부대 작전을 통해 크림반도의 정권을 교체하였다. 그리고 후속작전부대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주요 공항과 항구, 국경선의 통로를 확보하였다. 작전 과정에서 러시아의 특수부대들만으로는 병력이 열세하였지만 러시아가 이미 구축해 놓은 현지의 다양한 무장세력과 친러 시위대들을 동원함으로써 이를 극복하였다

한편 3월 1일 러시아 상원은 푸틴 대통령의 크림반도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였고, 3월 2일부터 약 6,000명의 병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결

248) 미군에서 분석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부대는 앞의 <그림 5-4>와 같다.

249) Michael Kofman, Katya Migacheva, Brian Nichiporuk, Andrew Radin, Olesya Tkacheva, Jenny Oberholtzer, *Lessons from Russia's Operations in Crimea and Eastern Ukraine*, pp. 8~9.

250) Colby Howard & Ruslan Pukhov, *Brothers Armed: Military aspects of the crisis in Ukraine*, p. 166.

정하였다. 러시아 언론은 러시아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대대적으로 지지하였다. 의회에서 병력투입이 결정되자 러시아군은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3월 3일부터 서부 및 중부군관구에서 대규모 불시 훈련하였고, 푸틴은 유엔사무총장에게 러시아인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개입 가능성을 논의하였다.²⁵¹⁾ 하지만 3월 4일 푸틴은 크림반도를 합병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하였고, 3월 6일 러시아 국방부는 크림반도에 러시아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크림반도 합병을 부인하는 가운데 은밀하게 합병을 위한 외교, 정치, 정보전과 군사작전을 융합하여 진행하였다. 드디어 3월 6일 크림공화국 의회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러시아로의 합병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크림반도에 대하여 우크라이나 군대 또는 제 3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마. 분쟁 해결 (2014. 3. 16. ~ 25.)

3주간의 분쟁에서 러시아는 무기사용 없이 크림반도에 있는 190개 우크라이나 기지를 모두 장악하였다. 3월 16일 크림 과도정부는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분리와 러시아로의 합병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97%가 합병에 찬성하였다. 3월 19일 러시아 요원들이 이끄는 300명의 크림 반군이 세바스토폴에 있는 우크라이나 해군본부를 습격하고, 세르게이 가이두크 제독을 억류하였다. 우크라이나군은 폭력 없이 떠났고, 러시아 국기가 크림반도의 점령된 시설에 게양되었다. 같은 날 키예프 관리들은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군 2만 5천명을 철수시킬 계획을 발표했고 CIS와의 결별을 선언했다.²⁵²⁾

3월 21일 푸틴 대통령은 크림반도를 러시아 연방으로 흡수하는 법안에 서명하였다. 따라서 3월 25일 러시아는 크림반도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합정, 사령부, 군사기지 등 193개소를 완전히 장악한 후에 18,000~22,000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군을 무장해제 시키고 크림반도에 대한 완전한 군사적 통제를 달성하였다.²⁵³⁾

251) 육군군사연구소,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군사적 개입의 정책·전략적 특징을 중심으로-』, p. 80.

252) US ASOC, "Little Green Men": a primer on Modern Russian Unconventional Warfare, Ukraine 2013-2014, p. 57.

253) Colby Howard & Ruslan Pukhov, *Brothers Armed: Military aspects of the crisis in*

바. 평화회복(분쟁후 조정) (2014. 3. 31 ~ 4. 2)

2014년 3월 31일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총리는 크림반도를 방문해 실질적인 경제원조를 약속했고, 크림반도의 평화회복 국면의 시작을 알렸다. 이 지역의 긴장은 빠르게 감소하였고,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의 경제 지도자들은 이 지역을 러시아 경제에 통합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재빠르게 행동하였다. 동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서방의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문제²⁵⁴⁾로 관심을 돌려 크림반도의 병합을 사실상 묵인하였다.²⁵⁵⁾

드디어 4월 2일부로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남부군관구로 편입함으로써, 러시아는 군사작전을 실행한 지 약 1주일 만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직접적인 피해도 없이 크림반도를 합병하였다.

3. 러시아 하이브리드전의 특징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은 게라시모프 독트린에 의한 하이브리드전 수행방식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게라시모프는 현대전의 양상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군사적인 것보다 비군사적인 것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변화된다고 하였다. <그림 5-6>과 같이 러시아는 초기 전쟁의 강도가 약할 때는 개입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진행하였다. 이후 사태가 악화될수록 강압적 형태를 보이면서 은밀한 개입은 축소되고 비군사적 수단에서 군사적 수단의 개입을 증대하면서 비군사적·군사적 수단이 광범위하게 운용되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인을 활용한 정치적 전복, 지원병을 활용한 대리전 수행, 무력시위와 대공미사일 방어체제 지원 등 강압적 억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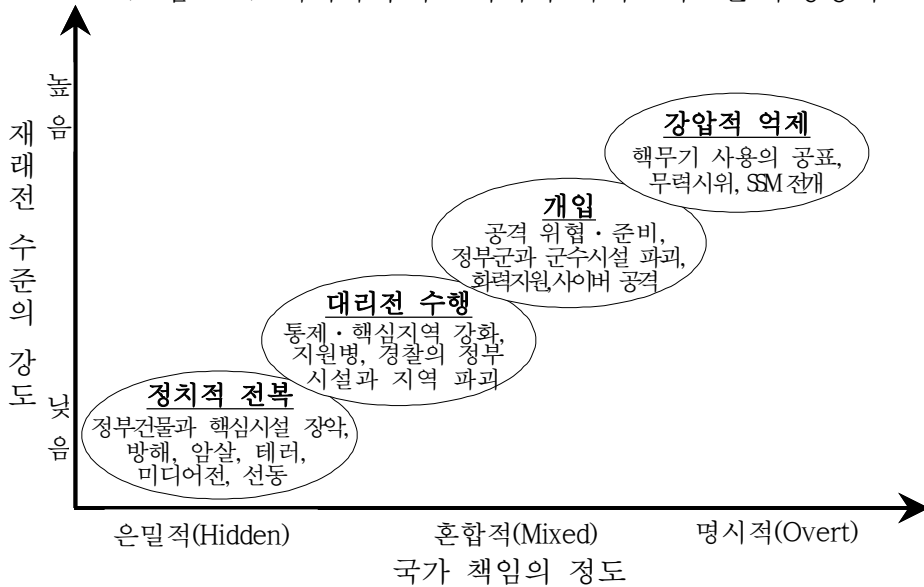
크림반도에서 사용된 전술을 분석해 보면 비군사적 작전과 군사작전이 혼합되어 수행되었다. 비군사적 작전은 정치·외교·경제와 비군사적 방식을 사용하여 선전전, 경제전, 정보전을 적극적으로 구사하였다.

Ukraine, p. 178.

254)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 일련의 군사 개입을 감행하여 2014년 우크라이나의 동부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의 영향권 내에 두었다.

255) US ASOC, “*Little Green Men*”: a primer on Modern Russian Unconventional Warfare, *Ukraine 2013-2014*, p. 58.

<그림 5-6>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하이브리드전 수행방식



출처 : Phillip A. Karber, "Russia's Hybrid War Campaign: Implication For Ukraine & Beyond," *CSIS Russia and Eurasia Program*(10 March 2015), p. 8.

러시아는 2008년 조지아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선전전을 준비하였다. 우크라이나에서 긴장이 확산되기 이전부터 우크라이나 내에 러시아를 지지하는 정치·문화조직을 구축하고, 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하여 왔으며, 방송매체를 장악하여 분리주의 운동과 반정부 감정을 자극하였다. 초기 단계에서는 외교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러시아에 우호적인 NGO와 미디어 등의 네트워크를 확립하였다.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러시아인과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러시아의 미디어에 익숙하였기 때문에 러시아는 미디어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크림합병 당시 우크라이나 임시정부는 정통성이 없는 비합법적 정부라고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의하여 국외 거주 러시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입하였으며, 역사적으로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일부라며 합병의 정당성을 선전하였다.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97%라는 압도적인 찬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작전이 개시되기 전부터 중앙정부 홈페이지를 마비시키고 전화, 인터넷 등 통신선을 차단시켜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동안 크림 합병을 정당화하는데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였다.

경제전은 친러 지원세력을 확보하고, 우크라이나의 경제상황을 어렵게 만들어 정부에 반기를 들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러시아는 경제 제재와 함께 노동 파업 유도, 초국가적 범죄조직을 활용한 에너지 판매 중단과 상업적 관계를 단절시켜 우크라이나 정부를 혼란에 빠뜨렸다. 외교적으로는 러시아와 협력관계에 있는 제 3국의 기업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 3국 기업에 투자기회를 제공하거나 에너지 판매지원 정책 등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러시아의 정보전에 대한 혁신적 접근방식은 크림반도 합병에 크게 기여하였다. 러시아는 정치, 경제, 지역, 민족, 분파, 사회 등 분열적 요소를 활용하여 정책결정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주민과 군인들에게는 절망과 두려움을 야기시켰으며, 정부에 대한 불신 조장과 사기를 저하시켜 항거능력을 약화시켰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정부의 명령·통제체계를 파괴하거나 전자전 등으로 혼란을 격게 하였다.²⁵⁶⁾ 이러한 정보전을 통하여 정보의 흐름을 왜곡하여 내부 분열을 유도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 뿐만 아니라 서방국가들까지도 불안감을 조성하여 서구의 개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였다.

게라시모프 독트린에 의하면 전쟁 초기단계에서는 주로 비군사적 조치가 이루어지며, 분쟁이 시작되고 위기가 고조되는 단계에서 군사작전이 시작된다.²⁵⁷⁾ 이에 따른 군사작전은 친러 반군을 가장한 대리전 형식의 은밀한 군사행동으로 이전의 군사개입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러시아는 군(軍)표식을 하지 않은 특수부대인 ‘Little Green Men’을 투입하여 크림반도의 주요 거점과 군부대 및 경찰서를 봉쇄하고, 2014년 2월 27일에는 크림공화국 의회 건물에 진입하여 지역 내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통제하였다. 또한 베르쿠트, 나이트 울프 등 친러 반군단체들에게는 자금과 무기를 지원하였고, 체첸인 등 비러시아인 용병도 투입하였다. 동시에 전자전 수단을 활용해 우크라이나군의 통신체계를 무력화하여 이들

256) Mark Galeotti, “‘Hybrid War’ and ‘Little Green Men’: How It Works and How It Doesn’t,” *E-International Relations* (16 April 2015), pp. 158~160.

257) Valery Gerasimov, “The Value of Science is the Foresight: New Challenges Demand Rethinking the Forms and Methods of Carrying out Combat Operations,” pp. 27~28.

을 지원하였다. 은밀한 군사행동의 예를 들면 수도 심페로폴은 2월 28일에 소수의 특수부대가 장악하고 있었으나, 3월 초에는 경장갑 차량으로 편성된 특수목적여단이 증원되었고, 3월 중순에는 S-300 대공미사일까지 배치되어 군사력이 대폭 증강되었다. 국경지대에서도 2월 말에는 베르쿠트와 같은 비무장 세력들이 검문을 실시하였으나, 3월 초에는 장갑차들로 증강되었고, 3월 중순 부터는 122mm 방사포와 152mm 전인포가 증강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러시아는 은밀한 개입으로 여진조성 이후에 무력시위를 통하여 공개적인 압력을 가하였다. 동부 국경지역에 러시아군 배치와 훈련을 실시하였고, 러시아의 핵사용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서방으로 하여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하이브리드전 수행 측면에서 볼 때 초기작전은 병력을 절약하고 자신들의 의도를 은폐하기 위해 특수부대와 다양한 비정규전 부대들을 활용하여 모호성을 최대로 활용하였다. 작전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단계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여 활용하는 적응적(adaptive) 접근법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하이브리드전에서 군사적 조치가 비군사적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의 뒷받침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크림반도 군사작전은 2008년 조지아 전쟁이후 차세대전에 대비한 혁신을 거듭한 러시아 국방개혁의 성과를 실험하는 장과도 같았다. 러시아는 2008년 이후 차세대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방식의 전쟁수행이 가능하도록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자하여 무기체계와 조직편성을 혁신하였다. 그 결과 크림반도를 장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러시아는 비군사 및 군사적 방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피 한방을 흘리지 않는 하이브리드전으로 크림반도를 합병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제 3 절 군사교리와 무기체계 혁신

러시아는 현대전의 작전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차세대전’(new-generation war) 개념을 새로이 발전시키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무기체계를 전력화하였다. 러시아는 차세대전 수행을 위해 비군사적 수단을 중시하면서, 「국

가무기체계 현대화계획 2011-2020」에 따라 10년간 총 20조 루블을 투입하여 무기와 장비의 70%를 현대화시켜 구 소련 시절의 군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였다. 그리하여 러시아는 전면전에 대비한 재래식 전력 보다는 장거리 로켓포, 전자전 방해 장비, 정교한 무인항공기 시스템 등과 같이 주로 하이브리드전에 적합한 무기체계를 도입하면서 21세기의 군이 되었다.²⁵⁸⁾ 그리하여 2008년 군사개혁과 무기체계 현대화를 통한 러시아 군사력 강화는 우크라이나에 개입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²⁵⁹⁾

러시아의 무기체계 중에서 포병은 정밀도에 중점을 두는 미군과는 대조적으로 약간의 정확성과 대량공세에 중점을 둔다. 러시아 포병은 공세의 원칙에 따라 1km² 이상의 지역을 타격할 수 있으며, 포격의 규모와 밀도를 고려 시 적의 기갑부대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가할 수 있다. 로켓포병은 고폭탄, 이중목적개량고폭탄(DPICM), 지뢰부설폭탄, 열압력탄, 핵 및 화학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탄약의 종류나 목적에 따라 GPS나 레이저유도 무기를 탑재하기도 한다.²⁶⁰⁾ 러시아군 교리에 의하면 포병부대는 전선에서 2~6km 후방에 위치하며 1개 포대당 3문의 포로 편제된다. 일반적으로는 포병이 기동부대를 지원하지만, 러시아군은 기동부대가 포병을 지원하며, 포병이 결정적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이다. 기동부대인 대대전투단은 포병부대의 효과적인 전개와 진지점령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을 확보하도록 운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重)박격포, 자동유탄발사기, 자주포병부대가 편성되었다.

러시아군은 입체적 사격능력을 구비하기 위하여 무인항공기(UAS)를 전력화하였다. 저고도 무인항공기는 우크라이나군을 식별할 뿐만 아니라 표적좌표까지 획득이 가능하였다. 이렇게 획득된 표적위치는 러시아군 포병부대에게 전달되어 표적을 타격하며,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표적탐지 및 타격까지의 소요시간은 약 10~15분 정도로 판단된다. 러시아군의 무인항공기 체계는 표적획득 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 중의 하나이며, 2008년 조지아전 이후 많은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미국보다 우위를 점령하기 시작

258) Asymmetric Warfare Group, *Russian New Generation Handbook*, p. 서문.

259) Andrew Monaghan, "Putin's Way of War: The 'War' in Russia's 'Hybrid Warfare'," *Parameters*, Vol. 45, No. 4(Winter 2015-16), pp. 65~67.

260) 주요 로켓포병 무기체계로 SS-26 Stone(Iskander-M)은 사거리 400~500km로 재래식과 핵 무기 공격이 가능하며, BM-30 Smerch MLRS는 300mm 로켓 12발을 장착하고 20~70km 사격이 가능하다.

하였고,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게임체인저 역할을 수행하였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무인항공기 시스템은 ORLAN-10²⁶¹⁾, FORPOST²⁶²⁾, DOZOR-100²⁶³⁾과 같은 무인기를 전력화하여 폴업션 비디오를 활용하여 ISR(정보, 감시, 정찰) 목적으로 운용되었다. 이러한 무인항공기는 정보신호 수집, 전자전 전파방해와 함께 표적획득과 포병화력 요청 및 유도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 UAS를 활용하여 적의 위치를 파악하여 사격을 요청하고, 적 지역에서 포탄 탄착군은 관측하여 사격조정 요구를 하는 절차를 수행한다.²⁶⁴⁾

러시아의 보병과 스페츠나츠 특수목적부대는 신형 전투장비체계인 ‘라트니크’(Ratnik) 체계로 현대화가 진행되었다. 우리의 위리어플랫폼과 유사한 ‘라트니크’ 프로그램은 1970년대부터 진행되어 보병의 개인전투체계를 최신화하였다.²⁶⁵⁾ 라트니크 체계의 핵심은 개인 방탄복 시스템과 모듈 형태의 기본 장구류와 최신 무기 조준경을 구비하고, AK-74 소총을 AK-12 소총으로 교체하였으며, 분대장급 이상의 암호화 통신장비도 도입하였다. 스페츠나츠와 공수부대와 같은 러시아의 부대들은 전투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최신장비를 보급하였다. 보병 장비의 변화는 작전개념 변화의 일부로써 러시아 전투원들에 대한 투자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러시아군의 개인전투체계 중 특이한 것 중의 하나가 소대급에 저격수용 소총을 전력화한 것이다. 저격수는 적에 대한 심리적 압박뿐만 아니라 전장관측, 표적 탐지 및 평가와 의명 핵심표적을 무력화하는 역할까지 하는 등 표적획득체계의 일부로도 운용되었다.²⁶⁶⁾ 또한 적부대의 기동을 지연시켜 아군 부대이동 시간을 확보하는 등 하이브리드전에서 드러나지 않으

261) 이륙중량 15kg, 비행속도 90~150km/h, 최대비행시간 16시간으로 지상통제소에서 140km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262) 이륙중량 456kg, 비행속도 126~148km/h, 최대비행시간 16시간으로 지상통제소에서 250km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263) 이륙중량 120kg, 최대비행시간 10시간으로 지상통제소에서 100km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264) 최근 러시아의 전술은 드론 제파를 전방 적에 대하여 소이탄을 투하하고, 병력이 불을 끄기 위해 병커 밖으로 나오면, 2제파 드론부대가 노출된 적 병력을 수류탄으로 격멸한다. 러시아군은 무인항공기 활용으로 용병과 특수부대 운용의 여유가 생겼으며, 비용절감과 어려운 정찰이 가능해졌다. 심지어 중심지역의 탄약창, 지휘소 등 핵심표적들을 공중강습하고 도주하는 ‘hit and run’ 작전이 가능해졌다.

265) 육군군사연구소,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군사적 개입의 정책·전략적 특징을 중심으로-』, p.24.

266) Asymmetric Warfare Group, *Russian New Generation Handbook*, pp. 18~19.

면서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2008년 이후 러시아 육군은 현대화 정책에 따라 서구권의 Barret과 AWM(Artic Warfare Magnum)을 대량 구입하였다. 또한, 러시아의 ORSIS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볼트액션 소총 중 하나인 T-5000을 개발하였다. T-5000은 러시아 저격수들이 사용하는 상징적인 무기가 되었다.²⁶⁷⁾

2009년부터 러시아군은 해외에서 다수의 전자전 장비를 도입하였다. ‘러시아군 현대화계획 2020’을 기초로 전투장비 현대화를 지속하여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약 600대의 전자전 장비를 해외에서 도입하였는데, 2014년 이전에 전력화된 주요 전자전 장비는 아래 <표 5-2>와 같다.

<표 5-2> 2014년 이전 전력화된 러시아군 주요 전자전 장비

장비명	전력화 시기	용도	성능 및 제원
Borisoglebsk-2	2010~2011	전자공격	동시 표적 30개
Rtut-BM	2011	전파방해	레이더기지 250km, 무선통신망 10~30km
Moskva-1	2014	표적탐지	최대탐지거리 400km
Krasukha-4	2013	레이더 탐지 억제	주파수대역 5,200~10,900MHz
RB-636M2 Svet	2012	전자전 표적 방탐	주파수대역 25~18,000MHz

출처 : 국방정보본부, 『러시아군 전자전』(2020), pp. 175~178.

러시아는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범죄 해커조직이나 정부에 의해 고용된 전문 해커 등 민간 사이버 전문가들을 정부의 정보작전 전략자산으로 활용하였다. 수많은 사이버 능력과 수단으로 구성된 친러 조직들은 웹(Web) 기반으로 취약해진 통신 환경에서 사이버 항로 방해전파, 침입, 방해, 탈취(MIJI) 등의 활동 등 공세적인 운용이 가능하다.²⁶⁸⁾

물론 러시아군의 향상된 전투능력을 직접 사용하는 기회를 갖지는 못했지만 가장 명확한 변화는 무기와 장비 성능의 근본적인 향상이었다.²⁶⁹⁾ 여기에는 부대이동, 군수지원, 보급지원 등과 관련된 조직의 질적인 능력 향상도 있었다. 러시아군은 기지로부터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여 부대가

267) Asymmetric Warfare Group, *Russian New Generation Handbook*, p. 20.

268) Asymmetric Warfare Group, *Russian New Generation Handbook*, p. 18.

269) “In Crimea. Russia Showcases a Rebooted Army,” *New York Times*, April 2, 2014.

배치되는 등 전략적 기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지아전쟁 이후 많은 노력을 하였고, 이는 크림반도 합병 과정에서 유용성이 증명되었다.²⁷⁰⁾

이와 같이 러시아는 차세대전 개념에 의한 하이브리드전 수행에 적합하도록 장사정 로켓포병, 무인항공기, ‘라트니크’ (Ratnik) 체계 및 저격수총 등을 개발하였고, 전자전 장비의 도입과 민간의 사이버작전 능력까지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제 4 절 군사교리와 조직편성 혁신

2008년 러시아는 급진적인 군사개혁을 추진하면서 차세대전 개념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조직편성도 혁신하였다. 러시아는 지구촌의 강대국들과 대규모 재래식 전쟁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동원중심체계를 포기하고, 강대국은 핵무기로 대응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러시아군은 대규모 전쟁보다는 러시아 국경지역의 분쟁에 맞추어 24시간 이내에 임무지역에 도착 가능한 ‘상시 전투준비태세 유지군’으로 전환하였다.

조직편성의 가장 큰 변화는 육군의 모든 사단과 연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전쟁 양상인 차세대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단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러시아는 NATO와의 충돌 가능성이 낮아 소규모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여단 체제로 개편하여 2009년에 232개 사단을 해체하고 2010년까지 85개 여단을 창설하였다. 여단의 경우 8개의 미사일여단, 9개의 포병여단, 4개의 로켓포여단, 9개의 지대공미사일여단, 1개의 공병여단 등 새로운 목적에 특화된 여단들이 창설되었다. 크림반도에 투입된 부대는 남부관구 소속의 차량화소총여단, 방사포여단, 방공여단 일부, 그리고 서부관구 소속의 전차여단 일부 등으로 추정된다.²⁷¹⁾ 여단 체제로 개편과 함께 6개 군관구를 4개 군관구로 축소하고, 국방부는 지휘구조를 5단계에서 군관구, 작전사령부, 여단으로 이어지는 3단계로 축소하였다.

하이브리드 전술을 구현하기 위한 맞춤형 부대로 혁신적인 대대전투단

270) Colby Howard & Ruslan Pukhov, *Brothers Armed: Military aspects of the crisis in Ukraine*, p. 180.

271) Colby Howard & Ruslan Pukhov, *Brothers Armed: Military aspects of the crisis in Ukraine*, pp. 96~100.

(Battalion Tactical Group)을 편성하였다. 대대전투단은 1개 전차중대, 3개 기계화보병중대, 1개 대전차중대, 2~3개 자주포대, 1개 다련장로켓포대 및 2개 방공포대로 구성되어 강력한 충격력과 장거리 화력, 대공방호 능력까지 갖추고 독립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편성하였다.²⁷²⁾ 이는 불확실한 요소가 많은 도시지역작전, 소규모 조우전에서는 규모가 작은 대대전투단이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²⁷³⁾

게라시모프 독트린의 구현과 관련된 핵심적인 부대는 2011년 창설된 특수작전부대(Special Operations Forces)였다.²⁷⁴⁾ 특수작전부대는 기존의 러시아 스페츠나츠(Spetsnaz), 공수부대(Airborne troops)와는 다르다. 스페츠나츠, 공수부대는 작전사령부의 지휘통제하에 소규모로 작전에 침투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도구적 성격이 강한 반면에 특수작전부대는 대규모로 해외의 작전지역에 진입하여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주체이다. 특수작전부대는 규모가 일정한 수준 이상이어야 비로소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 선점 및 농성, 반군 지원, 민군작전 등 직접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마비시키고 주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용되었다. 이 부대들은 크림반도의 친러민병대, 베르쿠티 특수경찰부대와 함께 크림반도의 군사기지, 관공서 및 주요 산업기반시설들을 봉쇄하거나 압류하는 활동을 하였다. 또한 크림의회 건물과 우크라이나군 지휘본부를 장악하였고, 가장 저항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적 부대의 주둔지를 장악하는 등 주요시설을 점령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러시아는 피 한방을 흘리지 않고 크림반도를 완전히 합병할 수 있었으며, 이들을 러시아어로 속칭 ‘공손한 사람들’(polite people)로 칭해졌으며, 우크라이나에서는 ‘작은 녹색 인간들’(little green men)로 불려졌다.²⁷⁵⁾

272) The Institute of Land Warfare, “Making Sense of Russian Hybrid Warfare: A Brief Assessment of the Russo-Ukrainian War,” *The Land Warfare Papers*. No. 112 (March 2017), pp. 6~9.

273) 남보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국방과 기술』 Vol. 492(2020), p. 126.

274) 러시아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2013년 3월 6일 타국가 무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창설된 특수작전사령부는 현재 계획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훈련과정을 도입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2013년 게라시모프 독트린 발표 이전부터 차세대전(하이브리드전)을 개념에 의한 군사혁신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275) Colby Howard & Ruslan Pukhov, *Brothers Armed: Military aspects of the crisis in Ukraine*, pp. 124~125.

러시아는 2009년부터 각 군에 독립 전자전 부대를 창설하면서 전자전 수행체제를 정립하였다. 육군은 2009년부터 2016년 사이에 5개의 독립 전자전 여단을 창설하였다. 전자전 여단은 지상·대공·우주 전자전 장비 기반의 4개 전자전 대대로 편성되어 있다. 전자전여단은 지상작전간 전자전 상황평가, 전자공격, 전자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²⁷⁶⁾

러시아군의 전자전 개념은 전자공격, 전자방호, 적 정찰장비 대응, 전자전 지원의 4가지 범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과거 적의 전자전 장비를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개념에서 적 전자장비에 영구적인 손상을 가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이를 위해 무선전자포대(Radio Electronic Battery)는 전자전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운용하여 적의 통신이나 광대역 전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단일플랫폼이 아닌 적국의 통신능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수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의 전자전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의 무인항공기 교란과 허위 GPS 신호 발신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²⁷⁷⁾ 러시아의 시스템은 전자기 신호의 방향을 탐지할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을 사격지휘소와 함께 운용하여 적을 탐지하여 적에게 정밀타격을 가할 수 있다.

러시아는 정보전에서 중요한 사이버전을 새로운 작전영역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위한 조직편성을 정비하였다. 러시아는 2003년까지 연방통신정보국 주도하에 제한된 사이버전을 수행하였으나 이를 해체하여 연방보안국으로 확대 이관하고, 2012년 3월에는 실무를 관장하는 군 사이버보안사령부를 창설하여 독자적인 사이버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였다.²⁷⁸⁾ 러시아가 크림반도에서 전투손실을 최소화하고 작전목적을 달성한 것은 사전에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무슨 수단이 필요한지,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운용할 것인지를 고민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작전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러시아는 게라시모프 독트린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세대전’ 수행에 적합한 여단 중심의 부대구조로 개편하면서 맞춤형 부대로 대대전투단을 새롭게 편성하여 기동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하이브리드전의 특징인 군사

276) 국방정보본부, 『러시아군 전자전』(2020), pp. 173~174.

277) Asymmetric Warfare Group, *Russian New Generation Handbook*, p. 8.

278) 육군군사연구소,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군사적 개입의 정책·전략적 특징을 중심으로-』, p. 23.

적·비군사적 개입의 모호성을 증대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대로 특수작전부대를 창설하였다. 그리고 정보전 수행을 위하여 독립 전자전 수행부대를 창설하고, 사이버작전 수행조직을 정비하는 등 하이브리드전 수행에 적합하도록 조직편성을 최적화하였다.

제 5 절 군사혁신 관점의 평가

크림반도 군사작전은 군사혁신 요소 중 군사교리가 주도하여 무기체계와 조직편성의 변화를 이끌어 주권국가의 일부를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점령하는 역사상 유례없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수행방식을 보여주었다.

‘뉴룩’(New Look)이라고 불리는 군사개혁은 당시 새롭게 시작된 러시아의 국가안보정책과 궤를 같이하였다. 러시아는 구소련의 해체 이후 장기간에 걸쳐 현대전의 작전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전쟁양상의 출현을 연구해 왔다. 러시아는 더 이상 지구상에서 전면전을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차세대전’으로 불리는 하이브리드전²⁷⁹⁾ 개념을 주창하였다.

게라시모프 독트린으로 불리는 ‘차세대전’은 현대전 양상이 ‘전쟁의 규칙’이 변화되어 정치적·전략적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비군사적인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변화된다고 주장하였다. 미래에는 전쟁과 평화의 상태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전쟁은 더 이상 선언되지도, 시작되지도 않으며, 익숙한 형태로 진행되지 않는 새로운 형식과 방법으로 수행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국가간의 분쟁은 장기간에 걸쳐 ‘잠재된 갈등 → 긴장확산 → 갈등행위 시작 → 분쟁 시작 → 분쟁 해결 → 평화회복’의 6단계 분쟁 발전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쟁 발전 모델은 비군사적 수단과 군사적 수단을 4:1 비율로 하여 비군사적 수단의 역할을 중시하며, 적 부대와 주민의 저항의지를 분쇄시키기 위한 경제전·정보전·심리전의 역할이 중요시 된다.

게라시모프가 제시한 ‘분쟁 발전 단계 모델’은 러시아의 군사교리가 가깝다. 이는 군사행동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2008년 이후 러시아의 급

279) 하이브리드전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군사력 및 정치·외교·경제·사회적 도구 등 비군사적 방식을 사용하는 새로운 형식과 방법으로 수행되는 전쟁수행방식이다.

진적인 군사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러시아군의 전투력과 전투준비태세를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었다. 통상적으로 하이브리드전은 상대적 약소국이 강대국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크림반도 군사작전은 상대적으로 강대국인 러시아가 약소국인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하이브리드전을 구사했다는 점에서도 새로운 전쟁양상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군의 무기체계는 ‘차세대전’ 수행개념에 적합하도록 구소련 시절의 군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였다. 러시아는 재래식 전력의 증강보다는 장거리 로켓포, 전자전 방해 장비, 정교한 무인항공기 시스템 등 21세기의 군에 맞는 무기체계를 도입하였다. 러시아는 차세대전 수행을 위해 비군사적 수단을 중시하면서, 「국가무기체계 현대화계획 2011-2020」에 따라 10년간 총 20조 루블을 투입하여 무기와 장비의 70%를 현대화하는 등 군사력 증강에 매진하였다.

러시아의 무기체계 혁신은 전면전에 대비한 재래식 전력보다는, 주로 하이브리드전에 적합한 무기체계를 전력화하였다. 포병은 로켓포병을 도입하면서 장사정, 대량공세가 가능한 전력을 도입하였다. 동시에 무인항공기를 전력화하여 포병의 타격체계와 연결시킴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게임체인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보병 및 특수목적부대들을 위한 ‘라트니크’(Ratnik)와 같은 개인전투체계를 현대화하였고, 하이브리드전에서 드러나지 않게 은밀히 사용될수 있도록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저격수용 소총을 전력화하였다. 정보전 수행을 위한 전자전 장비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였고, 사이버 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간 사이버 전문가를 고용하여 사이버작전 시스템을 정비하기도 하였다.

러시아 군사개혁 중 대외적으로 인상깊게 접하는 분야가 군 조직의 개편이다. 러시아 지도부는 지구촌의 강대국들과 대규모 재래식 전쟁을 할 가능성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하여 동원중심체계를 포기하고, 강대국을 상대로 한 대규모 전쟁보다는 러시아 국경지역의 분쟁에 대비하여 24시간 이내 임무 지역에 도착 가능한 ‘상시 전투준비태세 유지군’으로 전환하였다. 조직편성의 가장 큰 변화는 육군의 모든 사단과 연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전쟁 양상인 차세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단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하이브리드전을 수행하기 위한 맞춤형부대로 대대전투단(BTG)을 편성

하여 도시지역, 소규모 조우전 등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동성을 증대시켰다. 또한 ‘작은 녹색 인간들’ (little green men)으로 불리는 특수전부대를 창설하여 게라시모프 독트린을 수행하는 핵심부대로 준비하였다. 실제로 특수전부대는 크림반도의 친러 민병대, 베르쿠트(Berkut) 특수경찰부대와 함께 크림 의회 건물과 군사기지, 관공서 및 주요 산업시설들을 점령, 봉쇄하거나 압류하는 활동을 하였다. 정보전 수행을 위하여 5개의 독립 전자전여단을 창설하였고, 사이버작전 수행을 위하여 군 사이버보안사령부를 창설하여 독자적인 사이버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이 가능하게 조직을 정비하였다.

크림반도 군사작전은 러시아군 전체가 상시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러시아군의 향상된 전투력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이는 러시아가 하이브리드전 개념인 ‘차세대전’ 군사교리를 정립하여 새로운 방식의 전쟁 수행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무기체계를 전력화하고 조직편성을 최적화하여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새로운 현대전 수행방식을 보여준 교리주도형 군사혁신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제 6 장 한국군의 군사교리 발전방안

각 국가들이 군사혁신의 성공 요인이 되는 군사교리를 누가(Who), 언제(When), 무슨(What) 내용을 반영하여, 어떻게(How) 발전시켰는지 3가지 사례분석을 통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군사교리 발전의 주체(Who)는 주로 장군단을 중심으로 한 군사전문가들이 주축이 되고, 이에 더하여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된 집단지성의 산물이었다. 한국의 채명신 장군, 미국의 드푸이 장군, 러시아의 게라시모프 장군 등과 같은 군사전문가들이 해안을 갖고 교리발전을 주도하였고, 미군의 경우는 민간 전문가들이 장군단을 중심으로 한 군사전문가들의 주장에 비판적 논쟁을 가함으로써 교리의 완전성을 높일 수 있었다.

군사교리의 발전 기간(When)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끈질긴 노력의 산물이었다. 미군의 공지전투와 러시아의 차세대전도 10여 년의 장기간에 걸친 자원의 투입과 노력의 결과로 창출되었던 것이다.

군사교리의 내용(What)은 작전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담고 있다. 공지전투는 정보화와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였고, 차세대전은 탈냉전 이후 비군사적 요소의 중요성이 반영되었다. 또한 전쟁사 연구와 그들의 참전 경험을 군사교리에 반영함으로써 교리의 실효성을 증대시켰다. 중대전술기지는 6.25 전쟁시기 게릴라전 경험과 중국의 모택동 전술의 연구 결과가 반영되었고, 공지전투 교리는 베트남전 패배와 중동전의 전훈을 반영하였으며, 러시아 또한 걸프전을 목도하고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체첸과 조지아전쟁의 전훈을 반영하여 교리를 발전시켰다. 이처럼 각 국가들은 작전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자국의 상황에 맞는 군사교리를 진화적으로 발전시켰던 것이다.

방법론적(How)으로는 교리발전 조직을 정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군은 1967년 ‘육군 전투발전사령부’를 창설하여 교리발전기구의 통합과 ‘주월한국군과 연계한 교리 연구’를 하였고, 미국은 교육사령부(TRADOC)를 창설하여 각 병과학교와 연계하여 통합된 교리발전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여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볼 때 한국군이 군사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군사

교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1. 미래 작전환경과 전쟁양상의 변화에 대비한 군사교리 발전

오늘날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혁신적인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전쟁의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작전환경과 미래 전쟁양상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군사교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미래 작전환경과 전쟁양상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육군교육사령부는 「미래 작전환경 분석서」에서 미래전의 특성을 다음과 같은 일곱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전장공간이 지·해·공의 3차원에서 우주·사이버공간까지 확장되고, 지상·해상·공중의 경계가 불분명해질 것이다. 전장공간은 사회·경제분야 등 비전통적 영역이 추가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외교·경제 등 국력의 기타요소들과 통합할 수 있는 융통성을 유지하면서 다영역에서 운용개념도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초연결 전쟁(Hyper-connected Warfare) 개념이 등장할 것이다. 모든 작전 가용요소들이 정보를 실시간에 공유하여 전쟁의 시·공간적 제약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단순화된 새로운 개념의 부대구조에 대비한 교리가 필요하다.

셋째, 인공지능(AI) 무기의 확산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신무기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적인 기반체계로 등장하면서 전쟁이 본질을 변화시키고 미래전력 건설의 변화를 전인하게 될 것이다.

넷째, 무인체계의 발전은 전쟁 행위의 주체를 무인체계로 변화시킬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는 무인체계가 인간 전투원과 혼합 편성되어 정찰 등 지원 임무나 인간 전투원의 보조 역할을 하는 유·무인 복합전투가 일상화될 것이지만, 미래에는 전쟁의 주체가 무인체계를 중심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섯째, 초장사정·초정밀 타격체계가 구축될 것이다. 미래전은 정밀유도와 타격기술의 발전에 따라 초장사정 정밀타격이 보편화되면서 전장의 중심이 확대되고, 원거리 정밀타격이 가능해져 전쟁의 양상이 혁신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여섯째, 사이버전자전이 일상화될 것이다. 지능화된 사이버전자전 무기의 발전으로 정보 탈취, 네트워크 교란, 파괴활동 증가 등 군사작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며 전쟁수행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이다.

일곱째, 하이브리드전쟁이 보편화 될 것이다. 미래 전장에서는 전쟁과 평화의 구분이 어렵고, 정규전, 비정규전, 테러, 범죄적 무질서 상황 등 다양한 형태의 전쟁이 동일한 전장 공간에서 동시에 발생할 것이다.²⁸⁰⁾

280) 육군교육사, 『미래 작전환경분석서』(2019), pp. 11~21.

미래전의 특징과 예상되는 무기체계들은 <표 6-1>과 같으며, 이는 미래를 준비하는 군사교리 발전의 소요가 되는 것이다.

<표 6-1> 미래전의 특징과 내용

미래전의 특징	내 용(예상되는 무기체계)
① 전장공간의 확대	· 테러, 사이버전, 여론전, 심리전 · 인구, 기후, 자원, 환경, 질병, 난민 등
② 초연결 전쟁	· 인간-인간, 인간-무기체계 연결(뇌과학) · 위성·무인정찰기·센서·전투원 연결
③ AI 무기 확산	· 자율전투 로봇, AI 참모 등
④ 무인체계의 발전	· 소형 생체모방 무기체계(곤충 모방 등) · 급조폭발물 제거, 화생방 탐지 로봇 · 경계 및 감시, 통신 중계 등
⑤ 초장사정·초정밀 타격체계 구축	· 레일건(원거리, 항재밍, 항해킹, 항요격) · 극초음속 미사일
⑥ 사이버전자전 일상화	· AI결합 네트워크, 지능화 사이버전 무기 · 전자기스펙트럼 이용 네트워크 공격무기
⑦ 하이브리드전 보편화	· 여론전, 사이버전, 선전전 · 국제테러집단, 반군세력, 무장종교단체

출처 : 육군교육사, 『미래 작전환경분석서』, pp. 11~21를 참조하여 작성.

이처럼 혁신적인 군사과학기술의 발달과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미래의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교리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째, 미래를 예측하고 가시화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미래의 작전환경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종합적이고 분석하고, 그 결과를 미래 작전수행개념과 군사교리의 발전 소요를 판단하고 군사력 건설 방향의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육군 차원에서 매월 작전환경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미래를 준비하는 군사교리는 개념발전과 동시적·상호 보완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육군의 경우 작전환경 분석 결과를 주로 개념발전 과정에만 활용하고 있으나 교리발전도 동시에 진행시켜야 한다. 지금까지의 교리발전은 먼저 미래 지상작전개념을 발전시킨 후 전투실험을 거쳐 무기의 전력화 및 조직편성 2년 전에 교리를 발전시키는 순서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처럼 급변하는 작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념발전과 동시에 교리를 동시에 연구하여 전투실험 단계에서 선행연구된 교리를 적용함으로써 개념과 교리를 동시적·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현실적으로 전투를 통해 교리를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반복적인

전투실험을 통한 검증과정을 거쳐야만 실효성 있는 군사교리의 탄생이 가능하다. 실제로 미국은 작전환경의 변화와 전쟁 특성의 변화를 예측하여 새로운 방법과 수단의 개발을 위해 교리와 능력의 확대를 당면과제로 제시하고 있다.²⁸¹⁾

셋째, 군사교리는 미래전 양상의 변화에 대비한 군사력의 건설과 발전 방향을 같이 제공해야 한다.²⁸²⁾ 지금까지 군사교리는 주로 용병 측면에 치중하여 연구하다 보니 군구조 발전, 전력 발전 등 양병 측면을 심도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군사교리는 군사력 운용과 건설에 대한 원칙과 지침을 동시에 제공해야 하나, 대부분의 군사교리가 용병에 중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군사교리는 미래지향적인 군사력 건설 방향과 원칙을 같이 제시함으로써, 무기체계와 조직편성까지 함께 연계할 수 있어야만 군사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걸프전 시 미군의 공지전투와 크림반도 군사작전 시 러시아의 차세대전 수행교리는 무기체계와 조직편성의 혁신을 전인하여 새로운 전쟁수행방식을 탄생시켰는데 이는 군사혁신의 성공 사례로 한국군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

또한 군사교리는 전쟁의 목적과 국가의 사회적·경제적·기술적·군사적 능력에서 생겨나는 군사력 운용의 방법과 형태에 대한 공식적인 기본 원칙과 지침으로써 작전환경 변화에 따라 전쟁양상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예측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군사교리는 내부적으로 한 국가의 전투력에 직결되는 것은 물론 타국의 군사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한 국가의 군사교리는 작전환경과 능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인 동시에 유사시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전 양상의 변화에 대비한 군사교리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한국전쟁전구(KTO)에 부합한 독창적인 군사교리 창출

한국군의 경우 독창적인 군사교리 발전을 오랫동안 추구해 왔지만 척박

281) 미국은 작전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다영역작전, 거대도시지역작전, 하이브리드전, 대량살상 무기 대응, 반접근·지역거부(A2AD), AI, 사이버, 우주 등 신무기와 기술적 우위 활용 등에 대한 교리와 능력의 확대를 제시하고 준비하고 있다. US TRADOC, *TRADOC PAMPHLET 525-92 The Operational Environment and the Changing Character of Warfare* (October 2019), p. 7.

282) 육군규정 342『교리발전업무 규정』은 군사교리가 전쟁수행개념의 변화, 전투수행기능별 운용개념 발전, 지상작전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요소의 변화와 무기체계의 발전 등 작전환경의 변화가 교리발전 소요를 도출하고 발전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 교리발전의 현실 속에서 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전에서 채명신 장군의 중대전술기지 전술은 한국군의 독창적인 군사교리로써 세계에 자랑할 만하며 한국적 군사교리 발전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중대전술기지 전술이 독특한 교리로 인정되는 이유는 한국군의 능력과 베트남의 작전환경을 고려하여 미군의 교리를 우리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인 것이다.

중대전술기지 전술의 발전과정과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한국군의 독창적인 군사교리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 작전환경의 특성을 이해하고 한국작전전구(KTO)에 맞는 군사교리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각 국의 군사전략과 교리는 자국의 국가이익 달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주로 발전된다. 미군은 주로 해외 원정작전(expeditionary operation)을 수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공군, 상륙작전 교리가 구체화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반도 전구에서 한국군이 수행하는 전쟁은 본토에서의 작전(inland operation)으로 지상작전 기반하에 연합 및 합동작전을 근간으로 하여 국가총력전, 민·관·군·경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지상작전 기반의 전쟁전구(theater of war)인 한반도에서 합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상작전에서 설정하는 작전영역에 주목해야 한다. 지상작전의 영역은 합동작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상, 해상, 공중뿐만 아니라 우주, 사이버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다.²⁸³⁾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는 군사교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상작전 기반의 전쟁전구에서의 작전수행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교리가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외국군의 군사교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한국의 상황에 맞게 창조적으로 변형시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군사교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선진 외국군의 군사교리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다. 실제로 한국군의 군사교리는 주로 미국 등 선진국의 교리를 모방하거나 선진국 교리를 근간으로 한국적 실정에 맞게 발전되어 왔다. 최근에도 1991년 걸프전 이후 미국이 새롭게 정립한 작전술은 1990년대 후반 한국군의 교리로 반영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외국군의 교리를 연구할 때 해당 국가의 군사교리에 대한 정확

283) 육군본부, 『기준교범1, 지상작전』(2021), pp. 1-32.

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 외국군의 교리를 참고할 경우에는 어떠한 배경과 목적에서 그러한 교리를 채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우리의 작전환경과 상황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근본적인 원칙과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개된 외국군 군사교리라고 할지라도 기본개념 외에 중요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이면에 감춰진 함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채명신 장군은 중대전술기지 전술을 창안해 내면서 미군 교리에 능통한 미국 유학장교 및 육군대학 교관 경험자들을 적극 활용하였기 때문에 미군 교리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한국군의 상황에 맞게 교리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외국군의 교리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파견된 무관이나 연락장교 등을 통하여 해외 군사정보 및 자료수집을 활성화하면서 외국군의 군사교리 발전추세를 같이 연구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외국군과 우리 교리의 차이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한국군의 상황에 맞게 검토되어야 한다. 교리발전 분야의 후발국에 해당하는 한국군의 입장에서 독창적인 군사교리를 독자적으로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진군대의 이점을 시행착오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세 번째, 군내에서 군사교리를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한국군의 군사교리 발전을 위한 기반은 너무나 척박하고 교리분야 전문가도 부족한 실정이다. 군사교리는 군대가 전쟁수행을 위하여 구비해야 할 군사 기본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군내 교육기관에서 교육시에만 관심을 갖고 야전에서 적용하려는 노력 또한 부족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군사교리가 중요하다는 언급은 많이 하지만, 군대 내에서 교리 관련 직위는 비선호직위로 인식되어 우수자원이 보직을 기피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인력도 많지 않다. 한국적 군사교리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군사교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군내의 유능한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그들이 교리발전을 주도하면서 민간 전문가들까지 참여시킨 가운데 집단지성을 만들어내야 한다. 군 내부적으로도 전 구성원이 소그룹 단위, 부서별, 제대별 다양한 교리발전을 위한 논의가 일상화되고,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창의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군의 간부들이 교리 연구에 매진하고 교리전문가가 우대받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국적 군사교리의 출현이 가능할 것이다.

3. 전쟁사 및 훈련결과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작전수행방법 제시

군사교리는 전쟁을 통하여 끊임없이 발전되어 왔으며, 군사력을 운용하여 ‘어떻게 싸울 것인가?’와 군사력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 즉 양병과 용병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공한다.

한국의 중대전술기지, 미국의 공지전투, 러시아의 차세대전 교리의 공통점은 전쟁 경험과 전사 연구를 통하여 작전환경 변화에 부합되는 새로운 군사교리를 창출하였다는 것이다. 전쟁사는 새로운 군사교리를 창출해내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작전수행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첫째, 장교들에 대한 전쟁사 연구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전쟁사는 전투에 대한 간접경험과 전투감각을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최근 군내 교육기관의 교육내용 중 전사 교육시간이 축소되고, 한국군 장교가 6.25전쟁 등 우리의 전사 연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오히려 외국군의 전사에는 관심이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 군 간부라면 전사를 기본 소양으로 여기고 연구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군간부 양성 및 보수 교육기관의 전쟁사 교육시간을 증대키고 이를 통하여 교리발전에도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야전부대의 훈련결과를 교리발전에 환류시켜야 한다. 야전부대에서는 군사교리를 적용하여 여러 종류의 훈련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훈련 성과분석을 통하여 교리발전 소요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제대별 훈련결과를 교리발전 소요로 연결시킨다면 현용 교리의 미흡한 분야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고, 새로운 개념의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AI 기반 빅데이터(big data) 구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훈련결과를 교리발전 소요로 연결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세 번째, 작전사급 이상 제대에 전훈수집분석 조직을 편성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육군의 경우에는 군사연구소에 의한 제한적인 전사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교육사에 전훈수집분석과가 편성되어 운용 중이며, 유사시에는 이러한 부서를 육군 전훈수집분석단으로 증편하여 운용하는 것이 전부이다. 전쟁사 및 훈련결과를 교리발전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전훈수집 및 분석 조직을 작전사급 이상 제대까지 편성하여 전

세계에서 발생하였거나 현재 진행중인 전쟁사 연구에 집중하면서, 평시 야전의 훈련현장을 확인하여 교리발전 소요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상·하급제대 전훈수집 및 분석 조직은 통합적이고 수준별 연계성 있게 운용되어야 한다.

4. 장군단을 중심으로 한 군사전문가 주축의 연구 확대

군사교리를 ‘누가 작성하는가?’는 교리의 권위와 신뢰성 확보라는 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의 군사교리는 현역 중·소령, 경력직과 일반직 군무원들에 의해 주로 작성된다. 현역의 경우 교리연구 분야는 비선호직위로 보직을 기피하고 인력풀도 많지 않은 가운데 비교적 단기간 보직으로 교리에 대한 심화연구를 수행하기가 어렵다. 반면에 미군은 대령 및 중령으로 전역한 우수한 자원을 군무원으로 엄선하여 장기간 교리연구에 전념토록 하며, 현역은 현장 감각을 잃지 않도록 군무원의 연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은 병과학교에서 20~30년 교관으로 근무하고 전역한 인원들이 교리를 작성하기 때문에 교리 연구관의 전문성이 뛰어나 새로운 교리를 작성할 수 있다.

군사교리는 군사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측면에서 교리연구는 제일 먼저 장군단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군에서 많은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겸비한 장군들이 군사적인 혜안을 갖고 핵심적인 개념을 제시하면서 군사전문가들을 통합하여 교리발전을 주도해야 한다. 한국의 채명신 장군, 미국의 드푸이 장군, 러시아의 게라시모프 장군 등의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군사교리 연구는 장군들이 소명의식과 강한 추진력을 갖고 연구에 직접 참여하여 집단지성을 만들어내야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교리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군내의 교리연구는 내용면에서 질적으로 수준을 향상시켜 새로운 교리를 창출하는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 군내의 교리발전 부서에서는 매년 교리·교범 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교리문헌을 발간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운용개념을 연구하여 반영하기보다는 기존의 용어 변경 또는 오류를 수정하거나 부분적인 개선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다. 군내의 연구활동도 주로 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 및 각 군 대학 등 군사교육기관에서 영관급 현역장교들을 중심으로 외국군 교리의 소개, 기존 교리의 개선방향 위주의 정책보고서, 연구보고서 형식으로 연구되어 새로운 교리

를 창출해 내는 노력이 부족하다.

군사교리는 직접적으로 운용하는 군 내부에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혁신적인 교리발전이 부족하고 이론적 연구 또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군사교리의 수준을 작전적 수준과 전술적 수준의 교리로 구분한다고 하면, 전술적 수준의 교리는 주요 무기체계의 전술적 운용과 작전수행 방법, 즉 ‘어떻게 싸울 것인가?(how to fight?)에 대한 문제로서 군 연구기관과 군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발전되다 보니,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상유지에 치중해 왔다. 따라서 교리·교범 사업과 교리연구는 기존의 교리의 내용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심화연구와 새로운 군사교리를 창출하는 방향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군내의 교리연구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역은 우수자원이 교리관련 직위에 보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직관리가 필요하며, 교리연구 군무원은 일반직을 축소하고 경력직 전문연구관으로 조정하여 교리연구관의 전문성과 연구의 지속성 강화를 위한 인력운용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급변하는 작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사교리 연구 중 필요한 부분은 민간에도 개방하여 다양한 논의의 산물로 새로운 군사교리가 탄생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군사교리의 특성상 민간학자들과 일반인에 대한 열람이 제한되어 학문적 연구가 미흡하며, 군사교리에 대한 이론과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미군의 공지전투 교리발전 과정에서는 드루이 장군이 초기 적극방어 개념을 민간에 개방하여 연구를 유도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비판적 논쟁을 수용함으로써 교리의 완성성을 높일 수 있었다.

군사교리는 책임 있는 장군단이 주축이 되어 군 내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민간의 전문가들까지 포함하여 연구를 확대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논쟁이 이루어질 때 집단지성의 산물로 새로운 교리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5. 교리발전 조직의 최적화와 교리 감수 및 심의절차 강화

군사교리 발전을 위해서는 교리발전 조직을 최적화하여 체계적인 교리연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군은 각 군별 교리발전 조직이 편성되어 있으며, 육군의 경우 교육사령부와 각 병과학교에 교리발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리발전 조직은 군사교리가 수직적·수평적 연

계성이 유지되도록 통합적이고,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육군의 교리발전을 주도하는 육군교육사령부는 기준교리와 상위제대의 교리를 연구하고, 육군대학 및 각 병과학교는 병과 및 사단급 이하 제대 교범을 작성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상위 개념이 발전됨에 따라서 기능별, 제대별 교리가 동시에 발전되어 야전부대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리발전 체계를 최적화하고, 내용면에서 통합성이 유지되고 실효성이 담보되는 교리발전이 되어야 한다. 미군의 공지전투 교리는 미육군교육사령부(US TRADOC)를 창설하여 각 병과학교와 임무를 분장하여 상·하 연계되고 통합된 노력으로 교리발전이 가능하였다.

또한 교리발전 조직은 교리발전 소요 발굴, 교리발전, 전파체계가 환류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교리발전 및 전파는 교리작성 부서에서 주도하지만, 교리발전 소요는 야전을 포함한 전 구성원이 참여토록 유도해야 한다. 한국군은 1967년 ‘육군 전투발전사령부’를 창설하여 교리발전기구를 통합하고 야전부대인 ‘주월한국군과 연계한 교리연구’를 통하여 야전부대 실정에 부합되는 중대전술기지 전술을 창안하였고, 이는 베트남전에서 성공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야전부대에서는 교리발전 소요를 부단히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교리연구 및 작성 부서에서는 야전의 요구를 새로운 교리에 담아낼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군의 교리는 합동교리와 연계되어 교리발전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군 군사교리의 역사는 주로 육군이 선도하여 교리를 연구하여 왔기 때문에 조직과 내용면에서 육군의 교리가 합동교리보다 먼저 발전되어 있는 분야가 많이 있고, 지상작전 기반의 한반도 전쟁전구의 특성상 육군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및 장차전은 합동작전을 기본으로 수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육군의 교리도 합동교리와 연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합동교리 발전 시에는 먼저 정립된 육군의 교리가 합동교리에 적절히 통합되고 연계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합참과 각 군간의 교리발전 조직을 최적화하고 협력적인 교리발전 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교리발전 과정에서 감수 및 심의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작성된 교리는 교리의 완전성 제고를 위해 내부적으로 윤독회, 연구관 상호 감수, 교관 및 교육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적으로 예비역 장성, 교리전문가, 자문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내·외부 감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감수에 있어서 교리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야전지휘관 및 실무자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게 수렴될 수 있도록 감수 대상과 인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식적인 권위를 확보하고 교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심의단계는 교범의 성격에 따라 갑·을·병 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심의위원을 군 내부 인원만으로 편성하고 있어서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심의위원은 외부 교리전문가와 해당 교리를 직접 가르치고 있는 교관들까지 포함하여 구성하고 심의를 진행한다면 보다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다.

6.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연구 보장

새로운 군사교리는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자원의 투입과 끈질긴 노력으로 가능하다. 미군의 공지전투와 러시아의 차세대전도 10여 년의 장기간에 걸친 노력의 결과로 창출되었다. 새로운 군사교리의 창출을 위한 연구는 종합적인 안목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성을 유지한 가운데 많은 인력과 예산, 노력을 투자하며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군내 교리전문가와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한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집단지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군사교리 발전은 특정한 시기에 소수에 의한 특정 개념만이 강조되고, 단기간의 성과에 치중하게 되면 모두의 공감을 얻기가 어렵고, 사람이 바뀌면 사장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1996년판 육군의 ‘작전요무령’에서 제시되었던 「지상군 전법」, 즉 ‘입체고속기동전’, ‘도로전부위주 중심방어’ 및 ‘공세적 후방지역작전’은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교리발전 노력이었으나, 우리의 독창적인 교리로 정착되고 계승 발전되지 못한 것은 단기간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교리를 완성하면서 군 내부의 공감이 부족하고 다소 급하게 추진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군의 군사사상이 갖는 자주적인 군사교리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군사교리 연구가 가능한 제도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군사전문가들에게 군사교리 연구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동기를 유발시키고, 많은 전문가들이 장기간에 걸쳐 치열한 논쟁에 참여하면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7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결과 및 정책적 함의

지금까지 군사교리와 군사혁신의 성공 관계를 설명하고, 나아가 한국군의 군사교리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논문의 연구결과를 다시 간략히 요약해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군사혁신에 관한 이론들을 검토한 결과 군사혁신의 요소는 ① 무기체계, ② 군사교리, ③ 조직편성의 3가지 요소로 한정 가능성이 높고, 이중 군사교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식별하였다. 또한, 군사혁신은 크게 기술주도형과 교리주도형 군사혁신이 가능하지만, 우리의 상황에서는 교리주도형 군사혁신이 보다 중요하다고 분석되었다.

교리주도형 군사혁신의 관점에서 군사혁신 사례는 ① 군사교리의 발전 자체만으로 전쟁수행 방식을 혁신한 사례와 ② 군사교리가 무기체계의 혁신과 조직편성의 혁신을 견인하여 전쟁수행방식을 변화시킨 2가지 사례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다중사례연구 중 복합분석단위를 적용하여 한국군의 베트남 전시 중대전술기지, 미군의 걸프전과 공지전투, 러시아의 크림반도 군사작전시 하이브리드전 수행 과정을 분석하여 각 국가와 군대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를 달성하고 군사혁신을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규명하였다.

한국군이 베트남전에서 적용한 중대전술기지는 군사교리의 발전 자체만으로 게릴라전의 전쟁수행방식을 혁신한 사례이다. 베트남전시 한국군의 중대전술기지는 장비현대화가 어려웠던 한국군의 상황에서 새로운 무기체계의 도입보다는 독자적인 군사교리의 발전을 통하여 무기체계와 조직편성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새로운 게릴라전 수행방식을 창출하여 베트남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채명신 장군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독특한 군사교리를 적용하여 독창적인 작전을 수행하였다.

군사혁신의 관점에서 볼 때 중대전술기지는 새로운 무기체계의 개발 없이 군사교리의 발전만으로 새로운 형태의 전쟁수행방식을 만들어냄으로써 군사교리가 군사혁신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한국군이 국방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대전술기지라는 독창적인 군사교리 발전시켜 베트남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는 막대한 예산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첨단무기체계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군사교리가 주도하는 군사혁신은 예산과 노력의 낭비를 방지하면서 새로운 전쟁수행 방식을 창출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 수행한 걸프전은 미국이 베트남전 이후 발전시켜온 공지전투 교리를 실제 전장에서 실현함으로써 전쟁수행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전쟁이었다. 걸프전은 공지전투 개념에 항공·우주전 개념을 결합하여 다국적군의 완전한 승리를 달성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기동마비전(maneuver-oriented warfare)으로 변환시킨 대변혁이었다.

미국이 이와 같이 현대전 수행방식의 혁신을 가져온 것은 공지전투 교리의 발전으로부터 출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공지전투 교리는 무기체계와 조직편성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까지 연결되어 군사혁신을 성공할 수 있었다. 걸프전에서 등장한 미군의 새로운 무기체계는 공지전투 개념의 구현을 위해 장기간에 걸친 투자와 노력으로 전력화하였다. 새로운 무기체계들이 1991년 걸프전에서 효용성이 증명된 것은 무기체계를 먼저 개발한 것이 아니라, 기획단계부터 ‘미래에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키고, 싸우는 개념에 맞춰 무기개발 소요를 제안하고 결정하여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였다. 아울러 공지전투 교리는 미군의 상부 지휘구조 변화와 함께 하부 부대구조도 개선하였다.

이처럼 미군은 공세적이고 주도권 지향의 공지전투 교리와 새로운 무기체계로 무장하고, 새로운 방식의 작전수행이 가능한 조직편성을 갖추고 걸프전에 임하여 혁신적인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하여 승리를 달성하였다.

미국이 베트남전 이후 단행한 군사혁신은 군사교리의 발전에서부터 출발하여 장기간에 걸친 노력으로 공지전투 교리를 발전시켜 새롭게 싸우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지전투 개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Big 5’와 같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조직편성을 혁신하여 가장 잘 준비된 상태로 걸프전에 임하여 전쟁수행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다. 미군의 걸프전은 군사교리가 주도하여 무기체계와 조직편성의 변화를 함께 견인하여 현대전의 새로운 전쟁수행방식을 창출한 교리주도형 군사혁신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군사작전은 군사혁신의 요소 중 군사교리가 전쟁수

행방식을 변화시키고 무기체계와 조직편성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역사상 유례없는 하이브리드전 형태의 전쟁을 수행하였다. 게라시모프 독트린으로 불리는 ‘차세대전’은 현대전 양상은 ‘전쟁의 규칙’이 변화되어 정치적·전략적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법에서 비군사적인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변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차세대전은 비군사적 수단과 군사적 수단의 비율을 4:1로 하여 비군사적 수단의 역할을 중시하며, 적 부대와 주민의 저항의지를 분쇄시키기 위한 경제전·정보전·심리전의 역할을 강조한다. 통상적으로 하이브리드전은 상대적 약소국이 강대국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크림반도 군사작전은 상대적으로 강대국인 러시아가 약소국인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하이브리드전을 구사했다는 점에서도 새로운 전쟁양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러시아군은 ‘차세대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비군사적 수단을 중시하면서 10년간 총 20조 루블을 투입하여 무기와 장비의 70%를 현대화시켜 주로 하이브리드전에 적합한 무기체계를 전력화하였다. 러시아군의 조직편성은 지구촌의 강대국들과 대규모 재래식 전쟁의 가능성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하여 동원중심체계를 포기하고, 강대국들과 대규모 전쟁보다는 러시아 국경지역에 예상되는 분쟁에 맞추어 24시간 이내 임무 지역에 도착 가능한 ‘상시 전투준비태세 유지군’으로 전환하였다. 러시아군 조직의 가장 큰 변화는 차세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단 중심 체제로 개편하고, 하이브리드전을 수행의 맞춤형부대로 대대전투단(BTG)을 편성하여 도시지역, 소규모 조우전 등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동성을 증대시켰다. 또한 ‘작은 녹색 인간들’ (little green men)으로 불리는 특수전부대를 창설하여 게라시모프 독트린을 수행하는 핵심부대로 준비하였다. 그리고 정보전 수행을 위하여 5개의 독립 전자전여단을 창설하였고, 사이버작전 수행을 위하여 군 사이버보안사령부를 창설하여 독자적인 사이버전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정비하였다.

크림반도 군사작전은 러시아가 하이브리드전 개념인 ‘차세대전’ 군사교리를 정립하여 새로운 방식의 전쟁 수행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무기체계를 전력화하고, 조직편성을 최적화하여 새로운 전쟁을 수행하였다. 이는 군사교리가 무기체계의 혁신과 조직편성의 혁신을 견인하여 전쟁수행방식

을 변화시킨 교리주도형 군사혁신의 또 다른 사례이다.

이와 같은 3가지 사례 중 한국의 베트남전시 중대전술기지 교리는 군사교리의 발전만으로 전쟁수행방식을 혁신한 사례에 해당하며, 미국의 걸프전시 공지전투 교리와 러시아의 크림반도 군사작전시 하이브리드전인 차세대전 교리는 군사교리가 무기체계와 조직편성의 혁신을 견인하여 새로운 전쟁수행방식을 혁신한 사례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군사교리는 군사교리 발전 자체만으로 군사혁신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거나, 군사교리가 무기체계와 조직편성의 혁신을 견인함으로써 군사혁신을 성공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군사교리는 군사혁신의 매우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고 분석되었다.

사례분석을 통하여 군사혁신의 성공 요인이 되는 군사교리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알 수 있었다. 군사교리 발전의 주체(Who)는 장군단을 중심으로 한 군사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민간 전문가들까지 포함한 집단지성의 산물로 교리를 창출하였다. 한국의 채명신 장군, 미국의 드푸이 장군, 러시아의 게라시모프 장군 등과 같은 군사전문가들이 해안을 갖고 교리발전을 주도하였다. 군사교리 발전 기간(When)은 장기간에 걸친 끈질길 노력으로 가능하였다. 미군의 공지전투와 러시아의 차세대전은 10여 년의 장기간에 걸친 자원의 투입과 노력의 결과로 창출되었다. 군사교리의 내용(What)은 미래 작전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담고 있다. 또한 전쟁사 연구와 참전 경험을 군사교리에 반영함으로써 교리의 실효성을 증대시켰다.

따라서 한국군이 군사혁신을 성공하기 위한 군사교리의 발전방안은 첫째, 미래 작전환경과 전쟁양상의 변화에 대비한 군사교리를 발전시켜야 한다. 미래전의 특성은 전장공간이 지·해·공의 3차원에서 우주·사이버 공간까지 확장되고, 지상·해상·공중의 경계가 불분명할 것이다. 동시에 초연결 전쟁 개념이 등장하고, 인공지능(AI) 무기의 확산과 무인체계의 발전은 전쟁 행위의 주체를 무인체계로 변화시킬 것이다. 또한 초장사정·초정밀 타격체계가 구축되고, 사이버전자전과 하이브리드 전쟁이 보편화되는 등 전쟁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군사교리를 준비해야 한다.

미래를 준비하는 군사교리는 개념 발전과 동시적·상호 보완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작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개념 발전과 동시에 교리를 선행연구하여 전투실험 단계에서 선행연구된 교리를 적용함으로써 개념과 교리를 동시적·보완적으로 발전시키는 능동적인 교리발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군사교리는 미래지향적인 군사력 건설 방향과 원칙을 같이 제시함으로써 무기체계와 조직편성의 발전까지 연계할 수 있어야만 군사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국가의 군사교리는 작전환경과 능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인 동시에 유사시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전 양상의 변화에 대비한 군사교리 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한국작전전구(KTO)에 부합되는 독창적인 군사교리를 창출해야 한다. 한국군의 중대전술기지 교리의 발전과정과 내용을 분석한 결과 우리의 독창적인 군사교리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 작전환경의 특성을 이해하고 한국의 상황에 맞는 군사교리를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한국에서 전쟁수행은 본토에서의 작전(inland operation)으로 지상작전 기반하에 연합 및 합동작전을 근간으로 하여 국가총력전, 민·관·군·경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우리 실정에 맞는 군사교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상작전 기반의 전쟁전구인 한반도에서 합동작전에 기여하는 지상작전의 영역과 작전수행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교리가 발전되어야 한다.

군사교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외국군의 교리를 참고할 경우에는 어떠한 배경과 목적에서 그러한 교리가 탄생하였는지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한국의 상황에 맞도록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군사교리 발전분야에서 후발국에 해당하는 한국군의 입장에서 독자적인 군사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진군대의 이점을 시행착오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군내에서 군사교리를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군내 전 구성원이 소그룹 단위, 부서별, 제대별 다양한 교리발전 토의가 일상화되고 발전적인 논의와 더불어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군대문화가 정착되어야만 한국적 군사교리의 출현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전쟁사 및 훈련결과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작전수행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군사교리 발전을 위해서는 장교들에 대한 전쟁사 연구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군 간부들이 전쟁사 연구에 전념하도록 간부 양성 및 보수교육기관의 교육시간을 증대하고 교리발전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동시에 야전부대의 훈련결과를 교리발전으로 환류시켜야 한다. 그리고 전쟁사 및 훈련결과를 교리발전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전훈수집 및 분석 조직을 작전사급 이상 제대까지 편성하여 전 세계에서 발생하였거나 현재 진행 중인 전쟁사 연구에 집중하면서, 평시 야전의 훈련현장을 확인하여 교리발전 소요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장군단을 중심으로 한 군사전문가가 주축이 된 군사교리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 새로운 군사교리의 창출은 군사적 해안을 갖춘 장군들이 소명의식과 강한 추진력을 갖고 직접 참여하여 군과 민간 전문가들까지 포함한 집단지성을 만들어내야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군내의 교리 연구는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켜 새로운 교리를 창출하는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급변하는 작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시 군사교리 연구를 민간에도 개방하여 다양한 논의의 산물로 새로운 군사교리가 탄생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군사교리 발전을 위해서는 교리발전 조직을 최적화하고 교리감수 및 심의절차가 강화되어야 한다. 상위 개념이 발전됨에 따라 기능별·제대별 교리가 동시에 발전되도록 교리발전 체계를 최적화하여 통합성이 유지되는 교리발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군의 교리는 합동교리와 연계된 교리발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합동교리 정립시 먼저 발전된 육군의 개념이 합동개념에 잘 조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합참과 각 군 간 교리발전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여섯째,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연구가 보장되어야 한다. 교리연구는 많은 인력과 예산, 노력이 수반되는 가운데 장기간에 걸쳐 일관성을 갖고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군내 전문가와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하여 집단지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군의 군사사상이 갖든 자주적인 군사교리를 갖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군사교리 연구에 대한 제도와 예산이 뒷받침되고 연구에 매력이 있어야 많은 연구자들이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한국의 국방개혁은 군사교리가 주도하는 군사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군이 병력자원의 감소로 인한 전투력의 저하를 대체하기 위하여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도약하려는 국방개혁은 군사교리의 발전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혁신은 과학기술 주도의 개별 무기체계의 개발을 통해 싸우는 방법과 조직의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 하지만 군사교리와 작전개념을 연구하는 덴마크 국방대학교 이안 바우워스 교수와 사라 키르치버거 교수는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2020년 12월호에 발표한 공동 기고문에서 “4차 산업혁명의 군사력 접목이 세간에 회자되는 만큼의 성과는 없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교리와 전략, 군사작전 개념과 전술 변화를 지향하지 않는 한 그리 큰 성과는 없었다”²⁸⁴⁾라고 주장하였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군사력 건설에 접목하기 위해서도 군사교리의 발전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 군 또한 주변국의 사례를 검토하며 기술주도형의 군사혁신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첨단 무기체계를 도입만 하면 군사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 군사혁신은 구성요소인 무기체계, 군사교리, 조직편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통합적으로 진행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하지만 3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병행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며, 이중 가장 취약하고 간과되고 있는 분야가 군사교리의 발전이라고 생각된다.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기술주도형 군사혁신은 첨단무기체계의 개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의 실패에 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군사교리가 주도하는 군사혁신은 예산과 노력의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전쟁수행방식을 창출해 낼 수 있다. 국방예산이 부족한 한국군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과 노력으로 군사교리가 주도하는 군사혁신을 추구한다면, 예산과 노력의 낭비를 예방하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면서 성공적인 군사혁신이 가능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가 갖는 한계는 사례분석을 주로 육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필요시 합동전력까지 확대하여 분석하였다. 오늘날 군사작전은 대부분 합

284) Ian Bowers & Sarah Kirchbergers, “Not So Disruptive After All : The 4IR, Navies and the Search for Sea Control,” p. 1.

동작전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사혁신을 합동작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본 연구는 대부분 지상군 위주 군사혁신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군사혁신은 육군을 주축으로 추진되었음도 알 수 있었다. 한반도에서 전쟁수행은 주로 지상작전을 기반으로 하여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영역까지를 통합하는 작전으로 수행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상작전이 주도하는 군사혁신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연구자료 중 러시아에 관한 자료는 대부분 미국의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 또한 미국이 작전환경변화 속에서 미래의 위협을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하고 이에 대비하면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핸드북을 발간하여 훈련에 참고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자료는 연구에 참고가 되었다.

향후 연구과제는 합동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합동교리가 먼저 정립된 후 각 군 교리가 정립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교리발전의 역사와 우리 군의 교리발전 체계를 고려시 합동교리가 각 군의 교리를 포괄하는 내용의 전부를 제시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교리발전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시 육군에서 주도적으로 새로운 교리를 발전시켜 합동교리에 까지 반영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미국의 공지 전투 교리는 미 육군이 개발하여 합동교리에 반영되었고, 최근에 미국의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도 미 육군교육사에서 발전시켜 합동교리화 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미군의 다영역 작전은 개념과 교리를 동시에 발전시키면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전투실험과 함께 조직편성을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을 추적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전쟁사 연구에 있어서도 군사교리가 주도하여 전쟁수행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례를 찾아 계속적으로 연구한다면 교리주도형 군사혁신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수행한 대반란전도 그중 한 가지 사례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가. 단행본

- 국방부, 『국방조직 변천사』 (1992)
-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국방사(1950.6~1961.5)』 (1987)
-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국방사(1961.5~1971.12)』 (1990)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제 1권(2001)
- 국방부 군사혁신기획단, 『정보문명시대 전쟁패러다임의 전환과 한국군의 군사혁신 방향』 (1999)
- 국방정보본부, 『러시아군 전자전』 (2020)
- 권태영·노훈, 『21세기 군사혁신과 미래전』 ((경기 : 법문사, 2008)
- 김중하, 『국방획득과 방위산업 : 이론과 실제』 (서울 : 북코리아, 2015)
- 김중하·김재엽, 『군사혁신(RMA)과 한국군』 (서울 : 북코리아, 208)
- 김진석, 『베트남에 오른 핏불』 (서울 : 신아각, 1970)
- 남보람, 『전쟁이론과 군사교리 : 군사-전쟁 현상의 이론적 탐구』 (경기 : 지문당, 2011)
- 안재봉, 『새로운 패러다임의 군사교리』 (대전 :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 육군교육사, 『월간 작전환경분석』, 19-1호(2019)
- 육군교육사, 『미래 작전환경 분석서』 (2019)
- 육군군사연구소,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군사적 개입의 정책·전략적 특징을 중심으로-』 (2015)
- 육군군사연구소,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 (2015)
- 육군대학, 『작전요무령』 (1963)
- 육군본부, 『걸프전쟁』 군사연구 제 109집 특집(1991)
- 육군본부, 『걸프전 분석』 (1991)
- 육군본부, 『GULF 전쟁 분석』 (1991)
- 육군본부, 『기준교범 1, 지상작전』 (2021)
- 육군본부, 『기준교범 0-2, 교리』 (2021)
- 육군본부, 『월남전의 전례, 전훈 종합집』 제 1집(1970)
- 육군본부, 『파월 전사』 제 2집(1967)
- 육군본부, 『야전교범1-1, 군사용어』 (2017)

육군본부, 『육군 교리 50년 발전사(창군~1999년)』(육군인쇄창, 2000)
 육군본부, 『육군 조직 발전사』(1997)
 육군본부, 『20세기 전쟁양상-제1차 세계대전에서 걸프전까지-』(육군본부, 2002)
 육군사관학교, 『세계전쟁사』(서울 : 일신사, 1996)
 이근욱 역음, 『도전과 응전 그리고 한국 육군의 선택』(경기 : 한울 앰플러스, 2020)
 이동원, 『대통령을 그리며』(서울 : 고려원, 1993)
 이중학·길병욱, 『군사학 개론』(대전 :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9)
 정일권, 『정일권 회고록』(서울 : 광명출판사, 1996)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에서의 한국군 전술』(서울 : 육군인쇄공창, 1969)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 종합연구』(서울 : 주월사 정리단, 1974)
 채명신, 『베트남 전쟁과 나』(서울 : 팔복원, 2006)
 채명신 외 공저,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베트남 참전전우회, 2002)
 최용호,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제1권(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최용호, 『한권으로 읽는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합동군사대학교, 『세계전쟁사(중)』(2012)
 합동군사대학교, 『세계전쟁사(하)』(2015)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합동참모본부, 2020)

나. 논문 및 연구보고서

강석울,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분야 개혁정책 : 3차 상쇄전략의 연속성과 정책적 함의”, 『국방논단』 제 1734호(18-33), 2018.
 강정일, “러시아의 팽창정책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 : 지정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 25권 2호(서울 : 세종연구소, 2019)
 구혜정, “4차 산업혁명시대 한국군의 군사혁신 발전방향”, 『군사연구』 제 148집(2020)
 김관호, “4차 산업혁명을 위해 한국군이 준비할 사항 No1”, 『군사저널』, 통권 133호(2017)
 김상배, “4차 산업혁명과 미래전, 그리고 세계정치”,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창립 컨퍼런스 자료집』(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9)
 김홍한, “군사고범 발간제도의 개선책”, 『군사평론』 39(육군대학, 1963)
 노양규, 「미군 작전술의 변화와 한국군 적용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년
 박경석, “베트남전쟁시 한국군의 전술교리와 작전”, 채명신 외 공저,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베트남 참전전우회, 2002)

박지훈, “4차 산업혁명시대 한국군 군사혁신 추진방향”, 『주간국방논단』 제 1704호(18-3)

박휘락, 「정보화시대 국방개혁에 관한 연구-미국 군사변혁 분석과 한국 국방개혁에의 함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년.

신성호, “군사혁신 그 성공과 실패-한반도 전쟁의 미래와 미래의 전쟁-”, 서강대학교 육군력연구소 기획, 이근욱 엮음, 『도전과 응전, 그리고 한국 육군의 선택』(경기 : 한울, 2020)

신승기, “북한 국방과학기술 정책의 변화 양상”, 『국방논단』 제 1826호(20-43), 2020.

심호섭, “주월한국군의 중대전술기지 운용이 지닌 이상과 현실-두코 전투(1966)를 중심으로-”, 『軍史』 제 120호(2021)

안기석, 「한국군의 군사혁신 추진방향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년.

양욱, 「미국 군사변환의 평가에 관한 연구-럼스펠드 시기 군사변환의 정책 평가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0년.

유윤식, 「한국의 월남파병 결정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년

위태선, “짜빈동 전투의 고찰”, 『軍史』 13호(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6)

이종호, 「군사혁신의 전략적 성공 요인으로 본 국방개혁 방향 : 주요 선진국 사례와 한국의 국방개혁」,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년.

이병구, “이라크 전쟁중 미군의 군사혁신 :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 군사혁신 이론의 타당성 검증을 중심으로”, 『군사연구』 제 91호(2014)

이용권,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구상과 한-러 관계의 새로운 모색”,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제 14-2호(한림대학교 러시아 연구소, 2014)

이종용, “4차 산업혁명시대 한국군 군사혁신 방향”, 『한국 국가전략』 제 5권 2호 (통권 13호)(한국국가전략연구소, 2020)

이효경, “육군 교리발전 체계의 개선”, 『군사평론』 50(육군대학, 1964)

임동원, “한국의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 1권 1호(서울 : 세종연구소, 1995)

정연봉, “베트남전 이후 미국의 군사혁신이 한국 육군의 군사혁신에 주는 함의”, 『군사연구』 제 147집(2019)

정춘일, “육군의 군사혁신 무엇을 할 것인가?”, 『군사혁신논단』 제 1호(18-1호)

채명신, “미군과 작전지휘권 협상 및 연합작전”, 『베트남 전쟁 연구총서』 제 1권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최용호,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의 작전 및 민사심리전 수행방법과 결과」,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년.

2. 국외 문헌

A. BOOKS

- Asymmetric Warfare Group, *Russian New Generation Handbook*, US Army, 2016.
- Andrew F. Krepinevich, *The Military-Technical Revolution : A Preliminary Assessment* (Washington D.C. :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 2002)
- Colby Howard & Ruslan Pukhov, *Brothers Armed: Military aspects of the crisis in Ukraine* (Mineapolis: East View Press, 2014)
- Frank. G. Hoffman, *Conflict in the 21st Century: The Rise of Hybrid Wars* (Arlington Virginia: Potomac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07)
- James F Dunnigan & Raymond Macedonia, *Getting It Right : in American Military Reforms After Vietnam and Into the 21st Century* (New York : Writers Club Press, 2001)
- John Ellis, *The History of the Machine Gun* (Baltimore :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5)
- Jonn Sloan Brown, *KEVLAR LEGIONS (The Transformation of the US Army 1989~2005)* (Washington D.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2011)
- Jonadan M. House, *Combined Arms Warfare in the Twentieth Century* (Lawrence : The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1)
- Lawrence Freedman and Efraim Karsh, *The Conflict 1990-1991 : Diplomacy and War in the New World Order*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Michael Kofman, Katya Migacheva, Brian Nichiporuk, Andrew Radin, Olesya Tkacheva, Jenny Oberholtzer, *Lessons from Russia' s Operations in Crimea and Eastern Ukraine* (RAND Corporation, 2017)
- Richard O. Hundley, *Past Revolutions Future Transformations* (Santa Monica : RAND, 1999)
- The Department of the Army, *ADP1-01, DOCTRINE PRIMER* (2014)
- US ASOC, *"Little Green Men" : a primer on Modern Russian Unconventional Warfare, Ukraine 2013-2014*(2015)

- US TRADOC, *TRADOC Pamphlet 524-3-1, The US Army in Multi-Domain Operations 2020* (2018)
- US TRADOC, *TRADOC PAMPHLET 525-92 The Operational Environment and the Changing Character of Warfare* (October 2019)
- Walter E. Kretchik, *US ARMY DOCTRINE: From the American Revolution to the War on Terror*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11)

B. ARTICLES

- Andrew F. Krepinevich, “Cavalry to Computer: The Pattern of Military Revolutions,” *The National Interest* (37, Fall 1994)
- Andrew Monaghan, “Putin’ s Way of War: The ‘War’ in Russia’ s ‘Hybrid Warfare’ ,” *Parameters*, Vol. 45, No. 4 (Winter 2015-16)
- Bartles, Charls K. “Getting Gerasimov Right,” *Military Review* (January-February 2016)
- David Holls, “Cyberwar Case Study: Georgia 2008,” *SMALL WARS JOURNAL* (January 6, 2011)
- General David G. Perkins, “Multi-Domain Battle, Driving Change to win in the Future,” *Military Review* (July-August 2017)
- Herbert Norman Schwarzkopf, “A Tribute to The Navy-Marine Corps Team,” *US Naval Institute Proceedings* (August 1991)
- Ian Bowers & Sarah Kirchbergers, “Not so disruptive after all : The 4IR, Navies and the Search for Sea Control,”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December 2020)
- Jacob. W. Kipp, “Russian Sixth Generation Warfare and Recent Developments,” *Eurasia Daily Monitor*, Vol. 9, Issue. 17 (January 25, 2012)
- John J. Mearsheimer, “Why the Ukraine is the West’ s Fault: The Liberal Delusion That Provoked Putin,” *Foreign Affairs*, Vol. 93, No. 5 (September/October 2014)
- Mark Galeotti, “ ‘Hybrid War’ and ‘Little Green Men’ : How It Works and How It Doesn’ t,” *E-International Relations* (16 April 2015)

- Max Boot, “The New American Way of War,” *Foreign Affairs*, Vol. 82, No. 4 (July/August 2003)
- Mary c. FitzGerald, “The New Revolution in Russian Military Affairs,” *RUSI Whitehall Paper Series* (1994)
- Norman C. Davis, “An Information-based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Strategic Review* (Winter 1996)
- Peter A. Mattson & Niklas Eklund, “Russian Operational Art in the Fifth Period : Nordic and Arctic Applicationa,” *Revista de Ciencias Militaries*, Vol. 1, No.1 (May 2013)
- Pillip A. Karber, “Russia’ s Hybrid War Campaign: Implication For Ukraine & Beyond,” *CSIS Russia and Eurasia Program* (10 March 2015)
- The Institute of Land Warfare, “Making Sense of Russian Hybrid Warfare: A Brief Assessment of the Russo-Ukrainian War,” *The Land Warfare Papers*. No. 112 (March 2017)
- Valery Gerasimov, “The Value of Science is the Foresight: New Challenges Demand Rethinking the Forms and Methods of Carrying out Combat Operations,” *Military Review* (January-February 2016)
- Wilson Jeane, “Coloured Revolutions: The View from Moscow and Beijing,”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and Transition Politics* 25(2) (2009)

3. 국외 문헌 번역서

A. BOOKS

- 기다 히데토 저, 오정석 역, 『걸프전쟁-역사적 배경과 전쟁수행과정을 중심으로-』 (서울 : 연경문화사, 2002)
- 맥스 부트 지음, 송대범 · 한태영 옮김, 『MADE IN WAR(전쟁이 만든 신세계)』 (서울 : 플래닛미디어, 2008)
- Harry G. Summers Jr. wj, 권재상 · 김종민 역, 『미국의 걸프전 전략』 (서울 : 자작아카데미, 1995)

James F. Dunningan & Ray M. Macedonia, 육군본부 비서실 정책과 역, 『베트남전부터 걸프전, 그리고 그 이후의 美 육군 개혁』(육군본부 : 2017)

MacGregor · Williamson Murray 편저, 김칠주 · 배달형 역, 『강대국의 선택 군 혁명과 군사혁신의 다이내믹스』(KIDA, 2014)

Recharad P. Hallion 저, 백문현 · 권영근 역, 『현대전의 알파와 오메가』(서울 : 연경문화사, 2001)

Thomas G. Mahnkenwj 저, 김수빈 옮김, 『궁극의 군대』(서울 : 미지 북스, 2018)

미 국방부 의회보고서, 국방군사연구소 역, 『걸프전쟁』(서울 : 군인공제회, 1992)

4. 인터넷 및 기타 자료

“Hack, Jam, Sense & Shoot : Army Creates Multi-Domain Unit” ,
Breaking Defense, 2019. 1. 24.

“In Crimea. Russia Showcases a Rebooted Army,” *New York Times*,
April 2, 2014.

“Russian Ups the Ante in Crimea by Sending in the ‘Night Wolves’ ,” *Time*, 2014. 2. 28.

Vladmir Putin, “Address by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March 18. 2014.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26652058>,
검색일 : 2021. 3. 27.

국방일보, “미 육군 개혁 이야기(남보람)” , 2018. 11. 20.

중앙일보, “한국군 따랐다면 월남전 이미 승리” , 1966. 5. 30.

초 록

본 논문은 군사교리와 군사혁신의 성공 관계를 설명하고, 군사혁신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한국군의 군사교리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사교리와 군사혁신 간의 성공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가 중요한 것은 첨단 무기체계 획득이나 조직구조 개편과 같은 비용과 노력이 많이 수반되는 군사혁신을 추진하는 것보다, 군사교리가 주도하는 군사혁신이 더 합리적인 추진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중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한 세 개의 사례 - ‘한국군의 베트남전시 중대전술기지’, ‘미군의 걸프전시 공지전투’, ‘러시아의 크림반도 군사작전시 하이브리드전’ - 에서 군사교리와 군사혁신 사이의 성공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간략히 다음과 같다.

세 가지 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베트남전시 중대전술기지 교리는 군사교리의 발전만으로 전쟁수행방식을 혁신한 사례에 해당하며, 미국의 걸프전시 공지전투 교리와 러시아의 크림반도 군사작전시 하이브리드전 교리는 군사교리가 무기체계와 조직편성의 혁신을 견인하여 새로운 전쟁수행방식을 혁신한 사례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군사교리는 발전 그 자체만으로도 군사혁신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고, 또 군사교리가 무기체계와 조직편성의 혁신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군사혁신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한국군이 군사혁신을 성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사교리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미래 작전환경과 전쟁양상의 변화에 대비한 군사교리 발전, 둘째, 한국작전전구(KTO)에 부합한 독창적인 군사교리 창출, 셋째, 전쟁사 및 훈련결과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작전수행방법 제시, 넷째, 장군단을 중심으로 한 군사전문가가 주축이 된 교리 연구 확대, 다섯째, 교리발전 조직의 최적화와 교리 감수 및 심의절차 강화, 여섯째,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연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정책적 함의는 한국군의 경우, 군사교리가 주도하는 군사혁신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사실 군사혁신은 그 구성요소인 무기체계, 군사교리, 조직편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통합적으로 진행될 때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3가지 요소를

조화롭게 병행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특히 비용과 노력이 많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기술주도형 군사혁신은 첨단무기체계의 개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의 실패에 대한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군사교리가 주도하는 군사혁신은 예산과 노력의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전쟁수행방식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작금의 한국처럼 국방예산의 확보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군사교리가 주도하는 군사혁신을 추구해 나간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노력만으로도 성공적인 군사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핵심 용어 : 군사혁신, 군사교리, 중대전술기지, 공지전투, 차세대전, 하이브리드전, 걸프전, 베트남전, 크림반도 군사작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plain the relationship for success between military doctrine and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RMA), and to suggest ways to develop Korean military doctrine to ensure the success of RMA. The reason why researches on the relationship for success between military doctrine and RMA is important is because promoting Doctrine-driven RMA can be better than pursuing military innovations, such as advanced weapons program acquisition and reorganization, which require both huge efforts and finance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hich applied multi-case research method on three cases(ROKA' Company Tactical Bases During the Vietnam War, US Military's Air Land Battle in the Gulf War, Russian Military's Hybrid Warfare during the Crimea Military Operation), is as following.

ROKA's Company Tactical Bases Doctrines comes under cases which innovations in Ways of War was carried out with only the development of military doctrine. US Military's Air Land Battle in the Gulf War and Russian Military's Hybrid Warfare in the Crimea Military Operations both falls under the cases which Military doctrine contributed to Weapons Systems and innovations in Restructuring of the organizations, which ultimately led to the advent of new Ways of War.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se analysis is that advancement in military doctrines can contribute to successful RMA in two ways. Not only can Development in Doctrines, just by itself, lead to successes in RMA, but also it can work as factors affecting reforms in weapons system and restructuring of the organizations, both of which lead to successes in RMA. Considering these points, in order to develop military doctrines necessary for the boom of Korean RMA, the following measures have to be pursue. First, Advancement in military doctrines which prepares both environments and aspects of future warfare. Second, Create the unique doctrines which complies with KTO(Korea Theater of Operations). Third, Suggest the method of effective conduct of operations which reflect the lessons of war history and results of training. Fourth, Expansion of doctrine researches by military experts led by the generals group. Fifth, Optimize the doctrine development organization, and consolidate doctrine supervision and deliberation procedure. Sixth, Guarantee continuous studies of doctrines over long period of time.

The policy implication of these findings, in cases of ROKA, is that it is

necessary to promote Doctrine-driven RMA. To be honest, RMA is considered the most ideal when it is proceeded integrally while maintaining balance and harmony with its elements; Weapons system, military doctrines, unit organization. But it is never easy to pursue advancements in RMA while maintaining balances in these three elements. This is especially true when it involves a lot of costs and efforts. Technology-driven RMA utilizing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not only requires huge budgets in development in high-tech weapons systems, but also bears the risk of failure in developing new weapons systems. However, Doctrine-driven RMA can create new ways of war while minimizing both the costs and efforts. Especially, in cases of current ROKA which faces difficulties in securing more national budgets, pursuing doctrine-driven RMA can enable successful advancements in military while spending comparably less money and effort.

Core Terms :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Military Doctrine, Company Tactical Base, Air Land Battle, Next Generation Warfare, Hybrid Warfare, Gulf War, Vietnam War, Military Operation in Crimea